

12
2화 + 0
시각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11 08



서울문화재단

C o n t e n t s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11. 08. vol 54



함께 읽고 생각하는 독서 캠페인 「책 읽는 서울」



08

- 02 아트 갤러리 이달의 표지 작가, 신지영
- 04 MUST 10 8월의 문화 소식

8월의 문화 + 서울 | 책 읽는 서울

주말마다 '책 읽는 버스'가 출몰한다. 넓고 깊은 책의 세계로 안내하는 전문 스토리텔러도 있다. 가까운 도서관은 또 어떤가. 독서는 이제 나 혼자만의 취미가 아니라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었다.

- 08 서울, 독서로 소통하다
- 10 책으로 아름다운 변화를 꿈꾸며
- 14 <움직이는 도서관>
- 16 <책, 세상과 만나다> 유정아 아나운서
- 18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 20 <읽는 책, 듣는 책, 보는 책>
- 21 책이 있는 공간 가이드



24

사람과 사람

- 24 **문화인** 시민 속으로 들어간 생활정치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현기
- 30 **영 아티스트** 우리는 달린다, 고로 존재한다
극단 '죽도록 달린다'
- 36 **나의 서울 생활기** 음식 한 접시에 담긴 문화의 힘
이탈리아 요리사 파올로 데 마리아
- 40 **서울 단상**
건축가 이현옥, 내가 땅콩집을 짓는 이유

지금 서울은

- 42 **이슈 1** 낭독공연이 뜬다
- 46 **이슈 2** IQ? EQ? 이제는 CQ를 높여라
- 50 **이슈 3** 10th 한국실험예술제
Performance must go on!
- 52 **연재**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새로운 길을 찾다 ②
- 56 **이미지** 서울 아빠는 슈퍼맨
- 58 **이달의 평론**
초라한 현실을 감추는 서정적 비가
극단 실험극장의 <바람이 분다>
- 62 **리뷰 1** 제2회 10초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 64 **리뷰 2** 제6회 피지컬 씨어터 페스티벌



70

서울 너머로

- 66 **해외 트렌드**
2011 국제공연예술협회 토론토 총회
- 68 **해외 뉴스** 뉴욕, 파리, 몬트리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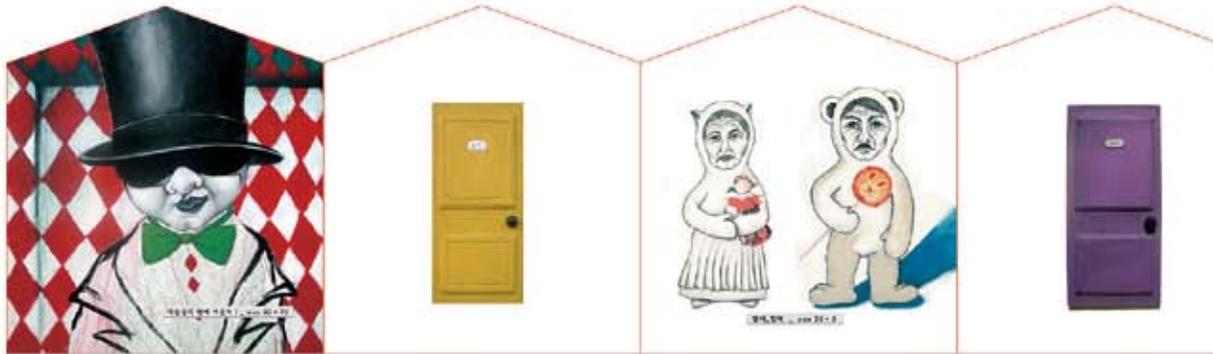
문화@서울

- 70 **좌충우돌 문화 체험**
망설이지 말고 춤을 춰요 이렇게
서교예술실험센터 무용 체험 프로젝트
<우물쭈물 꿈꾸는 움직임>
- 74 **문화 캘린더**
- 77 **SFAC 뉴스**
- 82 **현장 인터뷰**
- 84 **독자의 소리**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일 2011년 7월 25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발행인 안호상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편집기획 서울문화재단 홍보교류팀 | 홍보교류팀장 이현아 | 박영도, 정경미, 김수연, 신동석, 주환석 | 씨네21(주) 발행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el 02-3290-7000 Fax 02-6008-7347 홈페이지 www.stac.or.kr 편집·디자인·사진 씨네21(주) 교열 최귀열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 1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acrylic on paper&objet, 22×12cm, 2004
표지 작품인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는 어린이자 아이인 이들에게 희망의 문으로 존재한다. 현재에 대한 불안감과 답답함, 소외됨을 구석이라는 특정 장소를 통해 표현했다.
- 2 <키덜티즘>, painting&drawing on paper_computer graphic, 20×216cm, 2005

이달의 표지 작가

신지영

“북아트의 매력은 자유로움이다”



북아트 작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예전부터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현책의 냄새를 좋아했다. 북아트의 매력은 자유로움이라고 생각한다. 그 자유로움 안에는 다양성에 대한 배려와 인정, 그리고 자극이 담겨 있다. 북아트 작업을 하다 보면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오감의 소통, 그리고 소소한 것들에 대한 애정이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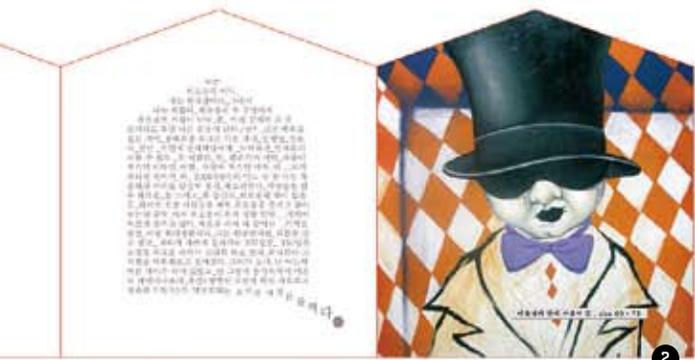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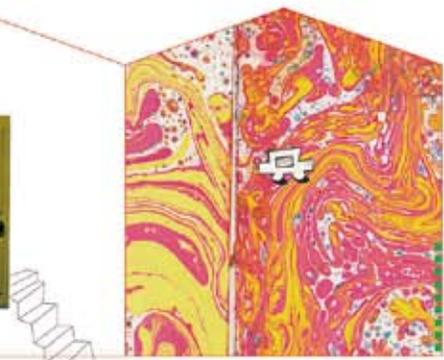
작업하는 데 있어 문래창작촌이라는 공간은 어떤가? 넓고 허술해 보이는 건물, 기계 돌아가는 소리, 코에 기름 묻혀가며 땀 흘리는 사람, 또 오래된 물건 모두가 정겹고 애착이 간다. 그 어떤 곳보다도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한 곳이다.

작품에 흐르는 일관적인 주제가 있다면? 작품의 제목은 가지각색이지만 그 안에는 항상 관계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자연과 인간의 관계, 사물과 인간의 관계 등을 다루는데, 예민한 관심을 통해 사소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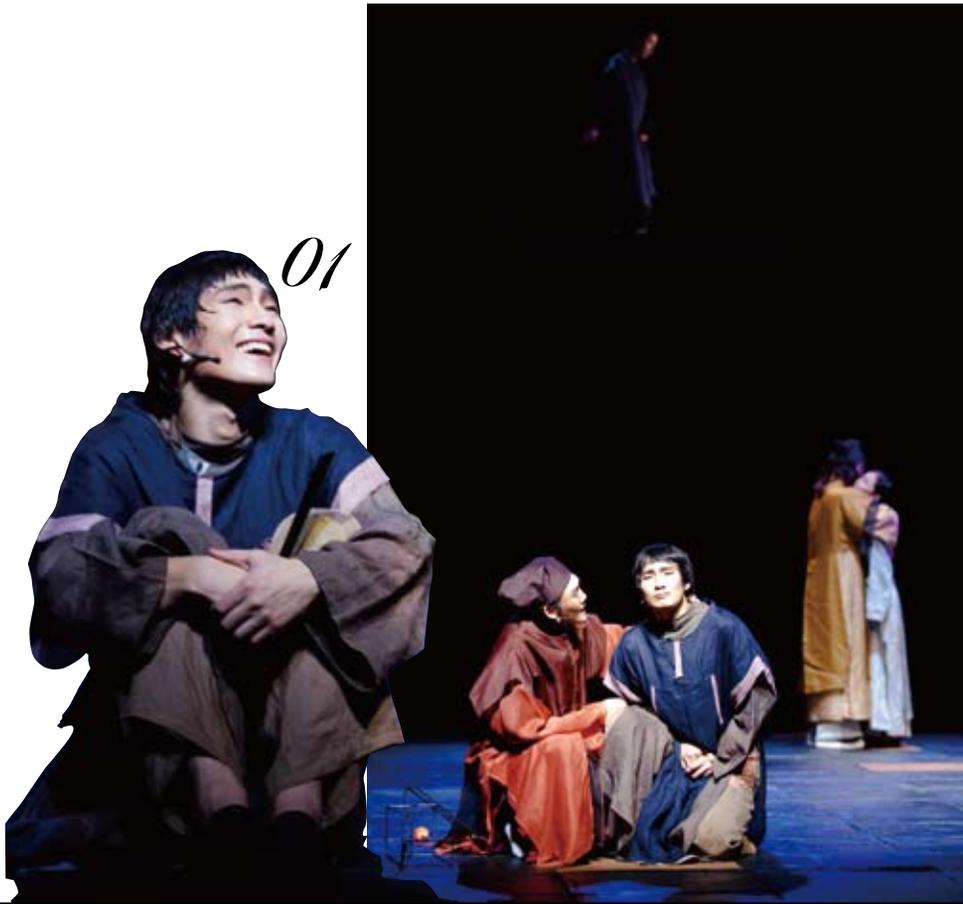
북아트, 드로잉, 설치 등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다. 각각의 분야가 가진 매력은 무엇인가? 세 가지 방법 모두 창조적 위치에서 바라보고 그려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다르지는 않다. 다만 작품의 의도를 극대화할 방법을 고민한다. 어떤 방법을 취하든 작가의 세계와 색깔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다면 최상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작업 계획은? 9월 중순 개인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잡스럽다고 평하던 것들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작업을 기획하고 있다. 언젠가 영상 매체에도 도전해보고 싶다.

• 문래창작촌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계원조형디자인대학, 인천대학교 등에 출강 중이다. 북아트, 드로잉,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다. 올해 일러스트 soki 국제 초대전, 사이아트 갤러리에서 열린 <Wage the Peace>전에 참여했으며, 문래동 비영리 문화공간 숨씨 기획전 <오브제의 파편>을 준비 중이다.



Must 10



01

01

고궁에서 뮤지컬을!

2011 고궁뮤지컬 <왕세자 실종사건> |

9월 1일부터(총 20회 공연 예정) | 경희궁 송정전 | 02-3290-7165

조선시대 왕이 연회를 즐겼던 자리에서 뮤지컬을 감상하는 흔치 않은 기회가 주어진다. 2011 고궁뮤지컬 <왕세자 실종사건>이 9월, 경희궁 무대에 오르는 것. 이 작품은 연극계 명콤비 서재형 연출과 한아름 작가가 탄생시킨 첫 번째 뮤지컬로, 2010년 초연 당시 98퍼센트 이상의 객석점유율을 보였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7월 27일 오후 2시, 인터파크, 예스24, 11번가, 옥션 등 예매 전문 사이트에서 티켓 오픈 예정이니 서두르자.

2011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
심포지엄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for Arts in Education and Creativity



예술교육으로
창의교육의 변화를
이끌다

Leading Change in
Education through AIE
and Creativity

2011.08.12.
Friday
09:30 - 17: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Council Chamber,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Seoul

 www.sisac.or.kr

02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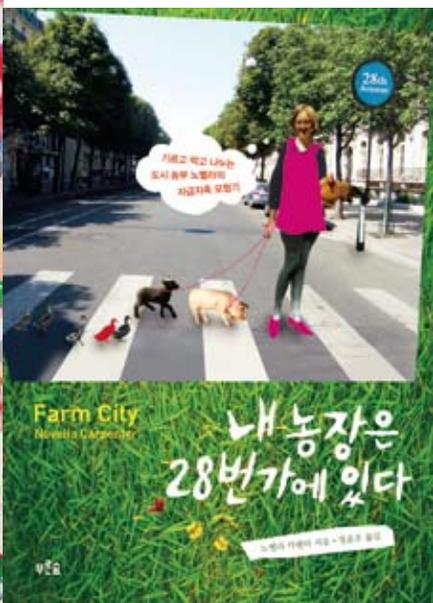
예술교육과 창의성?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심포지엄 | 8월 12일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02-758-2018

예술교육과 창의성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특별한 심포지엄이 시작된다. 바로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심포지엄(SISAC 2011). '예술교육으로 창의교육의 변화를 이끌다'라는 주제로, 창의적 예술교육의 철학적, 정책적 맥을 짚을 예정이다. 컬럼비아대학 교육학과 데이비드 한센 교수, 영국 CCE(Creativity Culture & Education)의 폴 클라드 대표, 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 등 참가자들의 면모도 화려하다.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이메일(edu@sifac.or.kr)이나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되며 참가비는 3만 원.

03



04

05



03

고은, 사랑을 노래하다

〈상화 시편: 행성의 사랑〉 | 고은 지음 | 창비 펴냄
 고은 시인이 53년 문학 인생 최초로 연시집을 펴냈다. 서문에서 스스로 이야기했듯 80세 앞에서 사랑의 시를 쓰는 그를 지금껏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터, 그가 쓴 사랑의 시는 놀라우면서도 신선하다. 1983년 결혼 이후 자신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부인에게 바치는 노래이기도 한 이 시집에는 사랑에 행복해하고 애달파하는, 사랑을 그리워하고 사랑으로부터 깨달음을 얻는 한 남자의 진솔한 모습이 담겨 있다.

04

도시농부의 자급자족 모험기

〈내 농장은 28번가에 있다〉 | 노벨라 카펜터 지음 | 정윤조 옮김 | 푸른숲 펴냄
 굳이 귀농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도심 속에서 먹을 거리를 제 손으로 길러 먹을 수 있다면? 도시인들의 로망을 직접 실현한 노벨라 카펜터가 1,400일 간의 농사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다. 맛있는 고기를 먹고 싶다는 단순한 욕망에서 도시농장을 시작한 저자는 일회적인 취미나 이벤트가 아닌, 오랫동안 꾸려갈 삶의 방식으로서 도시와 농장의 공존 모델을 보여준다.

05

춤추는 26컬레의 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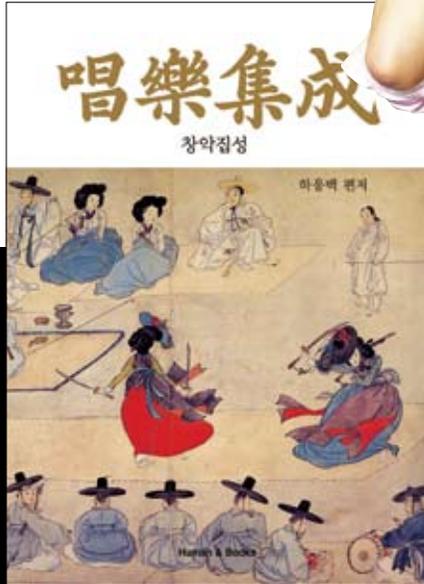
〈슈반의 신발〉 | 8월 10일까지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 02-2234-4036
 영국 국립극장이 청소년 관객을 위해 특별 제작한 팀 크라우치 원작의 〈Shopping for Shoes〉를 우리 문화에 맞게 재해석한 작품. 브랜드의 노예가 된 손과 그런 흐름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적인 모델 슈반의 스릴 넘치는 사랑 이야기가 10대 관객들에게 펼쳐진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아동청소년극장의 예술감독 브리짓 데티에가 연출을 맡았으며, 의인화된 26컬레의 신발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할 배우로는 전현아가 캐스팅됐다.

Must 10

08



06



07

06

살아 있는 전설, 기적을 지휘하다

다니엘 바렌보임 베토벤 교향곡 전국 연주회 |

8월 10일~8월 14일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1577-5266

〈타임〉지가 '전설적'이라고 표현한 세계적인 지휘자 겸 피아니스트, 다니엘 바렌보임이 27년 만에 내한 공연을 갖는다. 함께 내한하는 웨스티아스턴 디반 오케스트라는 유대인 출신의 다니엘 바렌보임과 팔레스타인 출신의 석학 에드워드 사이드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출신의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창단한 오케스트라로, 기적을 연주하는 평화의 오케스트라로 통한다. 베토벤 전곡을 연주할 이번 무대에서 주목받았던 교향곡 9번 〈합창〉의 솔리스트로는 조수미, 이아경, 박지민, 함석헌이 나선다.

07

현대판 국악 사설 백과사전

〈창악집성〉 | 히음백 지음 |

Human&Books 펴냄

국악 사설을 현대적으로 집대성한 책. 현존하는 거의 모든 소리의 사설을 수집, 총정리해 주석과 해설을 달았다. 문학평론가인 저자는 각 지방의 풍속과 전설, 그리고 방언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원본을 확정했으며, 내재된 문학적 의미를 밝혀냈다. 지금까지 나온 소리 가사집이 전문 소리꾼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 책은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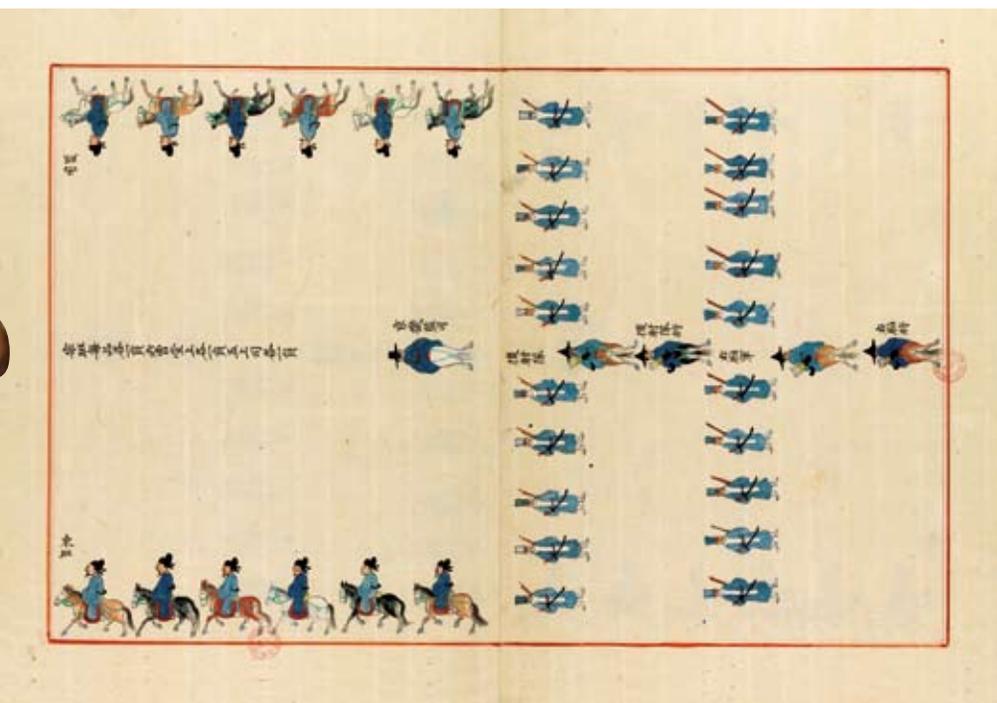
08

새롭게 돌아오는 명작 스캔들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 | 8월 2일~9월 18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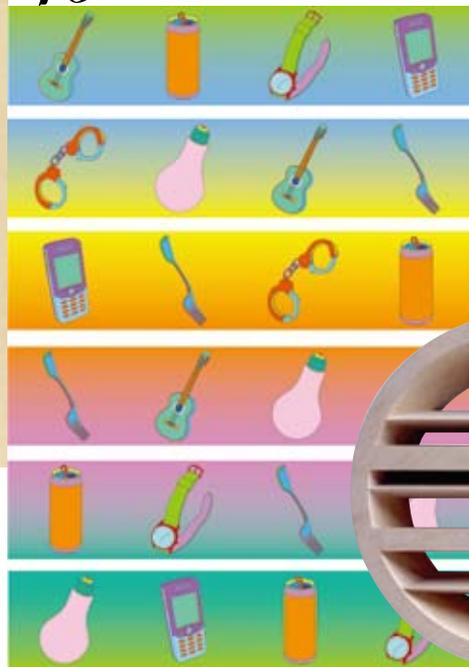
LG아트센터 | 02-2005-0114

뮤지컬계의 스테디셀러 〈아가씨와 건달들〉이 6년 만에 다시 한국 무대에 오른다. 새로운 〈아가씨와 건달들〉의 강점은 막강 캐스팅. 옥주현과 김영주가 주인공 아들레이드 역에 더블 캐스팅됐다. 또한 영화 〈마더〉 〈모비딕〉 등의 연기파 배우 진구, 무용수이자 모델, 연기자인 이용우가 각각 뉴욕 최고의 승부사인 네이슨과 스카iero 출연, 뮤지컬 데뷔 무대를 갖는다.



09

10



09

외규장각 의궤 최초 공개

〈145년 만의 귀환, 외규장각 의궤〉 |

9월 18일까지 |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 |

02-2077-9000

임금만 봤다는 조선왕실의 최고 기록집, 외규장각 의궤가 드디어 일반인들에게 공개된다.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지 145년 만에 파리국립도서관으로부터 돌아온 옛 강화도 외규장각 의궤 297책 가운데 40여 점을,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는 것. 의궤 반환의 형식을 둘러싸고 여전히 말이 많지만, 외규장각 의궤의 실물을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임은 분명하다.

10

영국 현대미술 속으로

〈영국 로열아카데미 대표작가〉전 | 9월 25일까지 |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 | 031-783-8141

영국 로열 아카데미의 회화, 조각, 건축 부문의 대표 작가 13인의 작품 60여 점을 선보이는 전시. 마이클 그리이그 마틴, 리사 말로이, 테스 제레이 등이 참여해 영국 현대회화의 흐름을 보여준다. 영국 최고의 현대미술상인 '터너상'을 수상한 안토니 고프리, 1971년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를 설계한 리처드 로저스, 추상 조각가 나이젤 홀 등의 작품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다.





서울,
독서로 소통하다

책 읽는 서울

7년 전, 서울 곳곳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서울 시내 도서관을 중심으로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무리들이 생겨났고, 커피향 풍기는 카페에 앉아 '움직이는 서가'에서 책을 꺼내 읽었다. 여덟 번째를 맞이한 올해의 '책 읽는 서울' 캠페인 또한 긍정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순항 중이다.

올해는 '책 읽는 버스'가 주말마다 출발하고, 음악과 영화, 인문학 전문가가 넓고 깊은 책의 세계로 시민들을 안내한다. 지역 도서관에서 '소통과 배려'를 주제로 펼쳐지는 독서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다.

독서는 이제 혼자만의 취미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신나는 축제다.

시민과 함께 하는
독서 캠페인 '책 읽는 서울'

책으로 아름다운 변화를 꿈꾸며

“오직 독서 한 가지 일만이 위로는 죽히 성현을 뒤쫓아 나란히 할 수 있고, 아래로는 길이 못 백성을 일깨워줄 수가 있다. 그옥이 귀신의 정상을 흰히 알고, 환하게 왕도와 패도의 계책을 이끈다. 날짐승과 벌레 따위를 초월하여 큰 우주를 지탱한다. 독서야말로 우리의 본분인 것이다.” - <다산어록청상> 중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이다. 그가 목표로 삼은 것은 과거에 급제하여 좋은 자리에 오르기 위한 독서가 아닌 인간다움을 가진 성인(聖人)과 현인(賢人)이 되게 하는 깨우침의 독서였다. 하지만 이처럼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책 읽기'는 그 무한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시간 부족을 핑계로 늘 남겨놓은 숙제가 될 때가 많다. 다양한 디지털 매체의 등장으로 우리가 '책'에서 얻을 수 있었던 지식뿐 아니라 그 지식을 구할 수 있는 원전에 대해서도 매우 쉬운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있기에 그만큼 '책'에 대한 접근은 계속 멀어진다. 그러나 많은 지식의 공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깊이가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독서가 갖는 가장 큰 의미와 가치는 책을 통한 단순한 지식 획득이 아닌 사유를 통한 지혜를 구함에 그 지향을 두기 때문이다. 다양한 독서캠페인은 이러한 책의 가치를 높이 사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사유를 통한 개인의 변

화에서 나아가 많은 사람과 생각을 나누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책의 가치를 활용하게 된다. 해외에서 나타나는 독서캠페인의 경향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해외의 다양한 독서 캠페인

첫째,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게 하기 위해 흥미를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데,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Go Wild about Reading' 'Read across America'가 대표적 사례이다. 책을 통해 읽기와 쓰기에 관련한 교육 자료가 필요한 어린이들과 가정에 책을 무료로 제공하며 어린이들의 독서를 이끌어내는 'Reading is Fundamental(RIF)'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 대표성을 갖는다.

유사한 사례로 1992년 전직 교사이며 사서였던 웬디 콜링의 아이디어로 시작해 현재 영국 북 트러스트가 주도하고 있는 'Book Start'를 들 수 있다. 주요 내용은 태어난 뒤 첫 건강



2

- 1·2 움직이는 서가.
- 3 독서 골든벨

책은 세계를 담고 있는 그릇과도 같다. 책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세상과 부딪히며 우리는 아름다운 변화를 그린다.



3



진단을 받으러 보건소에 오는 아이들에게 그림책이 든 가방을 무상으로 선물하여 아이와 부모, 지역사회와 한 가정이 서로 책을 나누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올바른 양육, 문맹 부모의 읽기·쓰기 능력 개선, 지역 도서관 이용 증가 등으로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는 'Book Start'가 지속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한국에서도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과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주도하에 북 스타트 코리아가 2003년 도입하였으며 현재 일본, 태국, 대만, 호주, 독일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특히 부모들과 아이들의 친밀도를 더 높이고자 '잠들기 전 독서 목록(Bedtime Reading Resources)'을 제공하고 '북 토큰(Book Token)' 행사를 실시하여 모든 어린이가 '책의 날'에는 할인된 가격으로 책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발한 책 읽기를 도모하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두 번째로,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들의 활발한 책 읽기를 도모하는 캠페인으로 영국의 서점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Book-crossing'을 들 수 있다. Book-crossing은 읽기(Read), 쓰기(Register), 나누기(Release)라는 소위 3R을 모토로 전개되었던 캠페인으로, 책을 책꽂이에 꽂아두지 않고 지역 곳곳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하여 여러 사람과 함께 돌려 읽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파리에선 Book-crossing에 참여한 서적을 진열한 북토탐이라는 책장이 있을 정도이다. 이 캠페인에는 마니아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서점과 같이 완벽한 민간분야에서 시작된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그 자발성이 더욱 돋보인다.

세 번째로, 전적으로 국가 주도하에 독서를 통한 계몽의 특성을 갖는 캠페인의 형태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말레이시아의 정보통신문화부(Ministry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Culture)의 후원하에 국립도서관을 비롯하여 주립도서관, 각 부처 및 민영기관까지 참여시킨 국민독서진흥 캠페인이다. 특히 이 캠페인은 정보활용능력진흥국(Information Literacy Promotion

Division)이 참여하여 말레이시아인의 독서습관을 장려, 개발하고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 활동을 수행하면서 책을 통해 국민의 리터러시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책을 통해 소통을 강조하고 책이 매개가 되어 지역과 그 지역 사람들 간의 통합, 나아가 책을 매개로 지역의 축제를 지향하는 미국의 'One Book, One City' 'Big Reads' 등이 있다. 이러한 캠페인은 사유하는 책을 넘어 함께 읽고 생각하는 책을 강조한다. 특히 서울문화재단의 책 읽는 서울과 가장 유사한 형태인 'One Book, One City'는 시에서 정한 한 권의 책을 읽고 시민들이 도서관 등에서 개최하는 각종 이벤트와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한다. 대부분의 독서 캠페인이 '책은 재미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었다면 'One Book, One City'의 경우는 독서를 삶의 현장이나 사회적 문제에 연결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는 책 읽기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하는 것이며, 그 원천이 되는 상상력은 바로 책 읽기에서 나온다 했다. 최첨단 테크놀로지가 일상 속에도 존재하고 활자보다는 디지털 영상의 시대가 강화된 오늘에도 우리가 놓치지 쉬운 삶의 가치는 책 속에서 발견한다는 관점으로 시작한 독서문화 캠페인이 바로 '책 읽는 서울'이다.

'책 읽는 서울'은 서울문화재단이 설립된 2004년부터 그 역사를 같이한다. 책 읽는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한 도서



1

관 한 책 읽기)로 1998년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한 'One Book, One City'를 벤치 마킹했으며 서울이 갖는 거대함과 다양성의 특성상 이를 한 개의 도서관이 아닌 지역별 공공도서관을 거점으로 한 것에서 차별화된다. 2004년 25개 공공도서관의 참여를 시작으로 2011년 현재는 총 87개의 공공도서관이 참여하고 있다. 닫힌 공간에서 혼자 읽는 책이 아니라 열린 공간에서 함께 읽는 책을 통해 여러 사람과 생각을 나누며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시도는 독서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방법으로 독서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서관에게는 지역의 문화커뮤니티센터로 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책 선정은 책 읽는 서울 조직위원회의 자문위원들을 중심으로 올해 주제에 부합하는 도서를 추천받은 후 참여하는 도서관 사서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특정 세대가 아닌 다양한 연령대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 청소년, 성인의 도서가 형평성 있게 선정되도록 했으며, 무엇보다도 활발한 토론문화를 이끌어내고 책 속의 다양한 상황을 실제 삶의 현장 모습에 비추어 상상적, 성찰적 사고를 유도할 수 있는 문학작품 위주의 도서를 선정했다. 또한 국내 작품을 우선으로 하되, 세계적으로 우수한 작품이면서 올해 주제에 부합한다면, 해외 작품도 함께 선정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열어놓았다.

2011년에는 어린이 대상의 도서로 <내 짝꿍 최영대> <당산 할매와 나> <블랑랑 자전거여행> <우리 친구하자>를, 청소년 대상으로는 <연을 쫓는 아이>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을, 성인 대상으로는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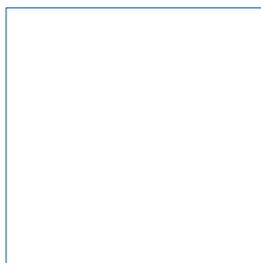
가니> <소년을 위로해줘> <친절한 복희씨>를 선정했다.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에서 주목하는 점은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는 토론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도모한다는 점이다. 독서토론전문가들을 도서관에 파견하여 실제로 시민들과 함께 독서토론을 진행하고 서브 프로그램으로 서울대학교 자원봉사그룹 '드림 리딩팀' 17명이 도서관을 방문하여 추가적인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독서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 사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독서토론전문가가 함께하는 집중 워크숍을 진행하여 높은 만족을 얻고 있다.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만남

<한 도서관 한 책 읽기>가 도서관을 거점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다면 도서관 밖에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진행되어왔다. 우선 저자들과의 활발한 만남과 낭독을 주도한 <저자와 함께 학교에 가다>와 <Leader & Reader>가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책 속의 글로 만날 수 있었던 작가를 직접 만나게 되었고 그들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고민했던 보다 깊은 생각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2010년에 시작한 <책으로 만나다>는 책을 매개로 다양한 통섭을 시도한다. 책을 음악으로, 영화로, 그리고 인문학으로 새롭게 만나게 하는 프로그램

- 1 빅북 전시.
- 2·3 <책, 음악과 만나다>.



이다. 이 프로그램은 매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요일 대학교 연극센터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책 읽는 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참가자 발표는 프로그램 진행 하루 전날인 월요일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스토리텔러로 각 분야의 전문가인 장일범, 이동진, 유정아 씨가 참여하면서 그 빛을 더하고 있다.

Indoor 프로그램으로 저자와의 만남, 책과 문화예술 장르와의 통섭적 만남을 시도했다면, Outdoor 프로그램으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한 동화 읽어주는 낭독 콘서트와 라이브 북 콘서트, 2미터 크기의 동화책을 도심 속에서 선보였던 빅북 전시, 학교와 많은 시민이 오고 가는 카페에 책을 비치했던 움직이는 서가, KBS와 함께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독서 골든벨 등 매우 다양하다. 특히 2011년에는 네이버문화재단과 함께 <움직이는 도서관>을 주말 한강시민공원을 중심으로 순회 운영하고 있다. 이 순회 버스 안에서는 책도 읽을 수 있고 책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책은 세계를 담고 있는 그릇과도 같다. 책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세상과 부딪히며 우리는 아름다운 변화를 그린다. 이제 책은 사유의 책을 넘어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며, 현실의 벽을 넘어 우리를 더 큰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항해의 돛과도 같은 것이다. 올해로 8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책 읽는 서울은 오늘도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돛을 한껏 펼쳐본다.

'책 읽는 서울' 홈페이지 www.readingseoul.org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역대 주제와 참여 도서관 수		
연도	주제	참여 도서관 수
2008	서울은 고향이다	63개소
2009	21세기, 가족의 얼굴	72개소
2010	다문화, 함께하는 행복	85개소
2011	소통과 배려	87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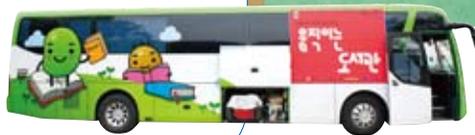
2011년 <책으로 만나다>		
책, 음악과 만나다(스토리텔러: 장일범)	책, 세상과 만나다(스토리텔러: 유정아)	책, 영화와 만나다(스토리텔러: 이동진)
두 번째 화요일	세 번째 화요일	네 번째 화요일
괴테의 〈파우스트〉와 오페라 속의 파우스트	책, 책을 만나다 〈건지, 감자껍질파이 북클럽〉	가이만 하는 길 〈더 로드〉
조셉 젤리네크의 〈악마의 바이올린〉	책이 차별을 바라보는 시선 〈울분〉	가지 않은 길 〈레볼루션러리 로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발레, 오페라, 뮤지컬의 돈키호테	책, 극으로 여성을 그리다 〈나다〉	출로 가는 길 〈싱글맨〉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발레 속의 로미오와 줄리엣	책이 욕망을 소화하는 방법 〈장승〉	끊어진 길 〈베니스에서 죽다〉
티르소 데 몰리나의 〈돈조반니〉 모차르트 오페라의 돈조반니	책에도 사람에게도 때가 있다 〈나의 삼촌 브루스 리〉	보이지 않는 길 〈오발탄〉
푸슈킨의 〈스페이드의 여왕〉 차이코프스키의 오페라스페이드의 여왕	책이 보는 1할 2푼 5리의 인생 〈삼미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도둑아 가는 길 〈라쇼몽〉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세계의 가난, 책 안의 가난 〈적절한 균형〉	두 갈래 길 〈인디애어〉

글. 한지연 서울문화재단의 창단멤버로 2006년과 2007년에는 '책 읽는 서울' 사업의 담당자이기도 했고 지금은 책 읽는 서울 사업을 진행하는 문화사업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늘 상상한다. 신나는 문화사업 뭐 없을까?



〈움직이는 도서관〉 현장 속으로

책으로 가득 찬 버스



네이버문화재단 '책 읽는 버스' 안에서 진행된 낭독 프로그램.

“공원에 놀러 왔다가 팸플릿을 나눠 주기에 궁금해서 외봤어요. 책도 읽을 수 있고 공연까지 보여준다고 하니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7월 2일, 난지 한강공원 거울분수 앞에 자리 잡은 〈움직이는 도서관〉은 주말을 맞아 아이 손을 잡고 놀러 나온 부모들로 가득했다. 망원동에 사는 권성훈 씨도 아들과 함께 〈움직이는 도서관〉에 올랐다. “일곱 살인 애한테 맞는 책도 있고, 제가 볼 만한 책도 있어서 좋네요. 시원하고 편한 점도 마음에 듭니다.”

서울문화재단 〈움직이는 도서관〉 일환으로 진행되는 네이버문화재단의 ‘책 읽는 버스’는 책으로 가득 찬 버스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책과 함께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향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버스 안에는 그림책부터 소설 책까지 다양한 책이 가지런히 꽂혀 있다. 책을 고른 부모와 아이들은 편한 자세로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소리극단 ‘책 읽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체인 선 작가의 〈내 짝꿍 최영대〉입니다.” 30여 명의 사람들이 뺨뺨이 모여 앉은 버스 안, 3시가 되자 ‘책 읽는 사람들’ 남경희 대표의 인사와 함께 ‘들려주는 독서여행’이 시작되었다. ‘들려주는 독서여행’은 서울문화재단의 ‘책 읽는 서울’ 중 책을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책, 예술과 만나다’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이다. 한 권의 책을 극본화하여 전문 성우와 배우들이 실감나게 낭독하며, 다양한 음향효과까지 더해져 상상의 나라를 떠돌게 도움을 준다. ‘책 읽는 사람들’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4년째 ‘들려주는 독서여행’을 진행하고 있다.

버스 뒤쪽에 마련된 아담한 무대에 3명의 배우가 앉았다. 배우들은 때로는 어눌한 영대를, 때로는 심술궂은 반아이들을 연기하며 책을 읽어 내려갔다. “굼벵이 바보! 재는 말을 잘 못 한대. 아마 듣지도 못할 거야.” 영대를 놀리는 아이들을 연기할 땐, 말만 심술궂은 게 아니라 표정까지도 알찼다. “뽀옹~” 배우가 방귀소리를 내자 아이들이 왁자지껄 웃음을 터뜨린다. “흑흑흑흑.” 영대 역할의 배우가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어뜨릴 듯 서럽게 울자 아이들도 제법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낭독공연이 끝나고 아이들은 한 장의 종이를 받았다. “한 면엔 앞, 한 면엔 뒤라고 쓰세요.” 낭독공연 후 이어진 독서토론의 진행자로 나선 오우리 씨는 아이들에게 질문했다. “처음



책을 깊게 읽고 표현하는 법

소리극단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 남경희 대표

에 영대는 어떤 아이였나요?” “옷차림은요?” “표정은요?” 진행자는 종이 앞면에 영대의 처음 모습을 그리도록 유도했다. 아이들이 앞면에 그림을 그리자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다. “친구들은 왜 선물을 줬을까요?” “영대는 이후 깨끗해질까요?” 종이 뒷면에는 바뀐 영대의 모습을 그리도록 했고, 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 토론은 끝이 났다. 낭독과 토론을 합쳐 50분 가까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지루해하거나 딴 짓을 하는 아이는 없었다.

오우리 씨는 “책을 읽은 후 토론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토론의 의의를 설명했다. “아이들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면 방금 한 것처럼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연희동에서 온 초등학교 2학년 김가영 양은 친구들과 함께 <움직이는 도서관> ‘책 읽는 버스’를 찾았다. “책을 이렇게 들려주는 건 처음 봐서 진짜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영대가 말도 못했는데 마지막에 영대가 바뀌는 장면이 제일 재밌었어요”라고 공연 소감을 밝혔다.

성신동에 사는 김창훈 씨는 초등학교 3학년인 윤수빈 양과 ‘들려주는 독서여행’을 관람했다. “아이가 3학년인데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책 읽는 것도 약간 소홀해졌는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즐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네요.” 아울러 <움직이는 도서관> ‘책 읽는 버스’를 이용하며 느낀 소감도 덧붙였다. “근처에 도서관이 없어서 책을 빌리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이런 버스가 많아져서 우리 동네에도 자주 들르면 좋겠어요.”

<움직이는 도서관> ‘책 읽는 버스’는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운행된다. 운영 시간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며,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오후 3시에 시작된다. 독서한강공원, 난지한강공원 등을 찾아간다.

“책을 안 읽는 아이들에게 책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저희 공연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소리극은 책을 싫어하는 아이, 좋아하는 아이 모두에게 교육적 효과가 큼니다.”

차분한 인상의 남경희 대표는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의 활동 취지에 대해 간결하게 대답했다.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은 도서관이나 학교를 중심으로 ‘들려주는 독서여행’ 공연을 4년째 진행하고 있다. ‘들려주는 독서여행’은 음향효과까지 더해지며 한 권의 책을 맛깔나게 낭독하는, 일종의 소리극이다. 감정을 실어 읽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 성우나 배우들이 공연을 맡는다. 책을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성우들의 실감 나는 연기에 빠지다보면 쉽게 책 내용에 집중할 수 있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소리극을 통해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 책을 들으며 자기가 읽었던 내용과 비교하다보면 상상력이 무럭무럭 자란다.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깊게 읽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낭독 후에 꼭 토론을 합니다.”

‘들려주는 독서여행’이 낭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론까지 진행하는 이유는 책을 깊게 읽는 버릇을 길러주기 위해서다. 책을 ‘깊게’ 읽는 아이들은 표현력이 다르다. 책에 대한 소감을 물으면 ‘좋았다’ ‘재미있다’로만 대답하지 않고 ‘어떤 점이 왜’ 좋았는지를 대답할 수 있다. 아이들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책에 대한 생각을 한번 표현해보라’고 질문하는 것으로도 책을 깊게 읽는 버릇을 키워줄 수 있다.

“요즘 아이들은 남의 말을 끝까지 듣지를 못하더라고요. 듣는 것은 배려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듣고 배려하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어서 이런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글. 강유미 한겨레 교육문화센터 교육기획팀 팀장 위즈덤하우스 기획위원 등으로 일했다. 현재는 출판기획자이자 교육기획자로 출판과 교육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진. 최성열 한여름의 청량한 사이이다 한 잔 같은 사진 한 장을 찍고 싶은 사진가다.



〈책, 세상과 만나다〉
스토리텔러 유정아 아나운서

책 읽어주는 여자

KBS 라디오 〈명사초대석〉의 진행자, 행정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이자 선생님, 클래식 음악회 사회자, 그리고 세 권의 책을 낸 저자.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온 유정아 아나운서에게, 올해 또 하나의 역할이 추가됐다. ‘책 읽어주는 여자’라고 하면 적절한 표현이 되려나? 인문학을 탐색하는 독서 강연 〈책, 세상과 만나다〉를 진행하며, 유정아 아나운서는 책 속에서 세상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 〈책, 세상과 만나다〉 프로그램은 어떻게 맡게 되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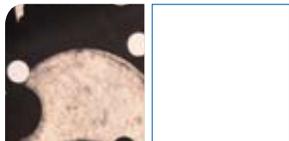
서울문화재단에서 제의가 들어왔을 때 참 기쁘고 감사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보다 ‘일 외에 뭘 하는 사람인가’가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준다고 생각한다.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방송 일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책과 함께 보낸다. 일종의 강박관념이기도 한데, 힘들 때 책을 읽으면 책 속에 해답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걸 갖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무척 행복하지 않나.

선정된 책들을 보면 베스트셀러도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책도 있다. 선정 기준이 뭔가요?

다양하다. 주로 나에게 의미가 있었던 작품이나 작가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책들이다. 8월 프로그램인 천명관 작가의 〈나의 삼촌 브루스 리〉는 예스24에 연재 중인 소설인데, 8월에 마감한다고 하더라. 친하게 지내는 작가이기도 하고, 한번 인터뷰도 하고 싶어서 8월 프로그램으로 권했다.

그렇다면 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작가의 의도에 충실한 편인가, 아니면 자신이 느낀 바를 더 많이 전달하는 쪽인가.

사실 나는 애매한 위치에 있다. 진행자일 수도 있고 강연자일 수도 있다. 어떻게 할지 몰라 아직까지는 긴장하고 있는데, 그냥 내 진심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 책을 읽으세요, 이 책이



좋아요” 식의 교조주의는 피해야 한다. 그저 내가 읽은 것에 대한 정성을 보여주면 되는 거다. 이를테면 대학원 조교의 도움으로, 책에 관한 시각적 자료를 준비해 보여주고 있다. 청중들에 일일이 맞출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하면 울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가자들의 반응이 어떤가.

이 프로그램은 필수과목이 아니라 선택과목이다. 스스로 선택해서 오기 때문에, 무척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청중이 많다. 나는 강연시간 내내 일방적으로 나 혼자 이야기하지 않는다. 1시간 정도 강연하고 나머지는 질문과 답을 주고받으며 대화하려고 한다. 서로의 이야기들이 오가는 그런 순간이 참 즐겁다. 다들 조용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디선가 다 책을 읽고 있다는 증거니까.

이제까지 진행한 강연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두 번째 강연에서 소개한 책이 <울분>이었는데, 작가 필립 로스는 1930년대 태생의 유대인이다. <울분>은 작가의 자전적인 부분이 들어 있는 소설로, 대학에서 차별받으며 울컥했던 경험들이 녹아 있다. 그 이야기를 청중들에게 해줬는데, 그들에게도 저마다 품은 울분이 있더라.(웃음) 사람들에게겐 울분에 대해 무척 쿨하게 얘기했지만 나의 울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난다.

7월 프로그램 <장송>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나.

<장송>은 일본 작가 히라노 게이치로가 쓴 소설로, 19세기 초반 프랑스 파리가 배경이다. 21세기 예술가들에게 “다시 산다면 어느 세기, 어느 곳으로 가고 싶은가?”라고 물으면 많은 이들이 19세기 초반 파리라고 대답한다. 그만큼 예술가들에게는 무척 매력적인, 들끓는 시기인 것이다. 그 시기를 21세기에 사는 동양 남자가 썼다는 게 흥미로웠다. 그 상상력이 놀라웠고, 인간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도 얼마든지 다른 시대, 다른 장소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에게 책을 소개해주고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게 목적이다. 그런 점에서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러’의 역할이 뭐까?

자신이 진정으로 재밌게 읽었다면 좋은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다. 그러려면 한 번 읽은 책도 다시 읽어야 하는데, 내게도 무척 좋은 경험이다. 예전에 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책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선정한 책이 김연수의 <내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이었다. 다시 읽어보니 ‘5월’이란 시간이 계속 나오더라. 1980년의 5월, 1987년의 5월, 1968년 프랑스의 5월 등. 다시 읽지 않았다면 걸러내고 말았을 부분이다. 책을 안 읽은 사람에게는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하고, 읽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려면 내가 제대로 읽어야 한다. 진정으로 깊이 읽지 않으면 소용없으니까.

스마트폰이 삶의 일부가 되면서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런 생활 패턴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잘 모르겠다. 내가 읽는 게 좋다고 해서 남들도 다 읽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 얼마 전 지하철 환승역에서 책을 들고 걸어가는 여자를 봤다. 자기가 읽던 페이지에 손가락을 끼우고 있었는데, 빨리 지하철에 타서 읽고 싶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 모습이 아주 예뻐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 있다. 현재 스마트폰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지만, 책이라는 매체가 더 보편적이고 지속적일 거라고 본다. 일회일비하고 싶진 않다. 언젠가는 다들 책을 읽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는 정도?(웃음)

<책, 세상과 만나다>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올해 계획이 뭔가. 무척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웃음)

바쁘지 않다. 바쁘게 살고 싶지도 않고, 12월 출간을 목표로 지금 <말하기 강의> 2권을 쓰고 있는데, 그것 말고는 특별한 게 없다. 한 달에 한 번씩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음악회 사회를 보거나 글을 쓰는 정도다. 딱히 올해의 계획을 세워두는 스타일이 아니라, 만날 책 읽으며 지내고 있다.(웃음)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당신을 위한 딱 한 권의 책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을 만난 것은 서울시립강남도서관에서 근무를 시작했던 2005년 8월이다. 안도현의 〈나비〉를 강남도서관의 한 책으로 선정하여 독서릴레이, 작가와의 토론회, 토론 진행교육 등 관련 행사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도서관 문화에도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원래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는 1998년 시애틀에서 『If All of Seattle Read the Same Book, 만약 시애틀의 모든 사람이 같은 책을 읽는다면』(현재는 Seattle Reads로 바뀜)이라는 대중독서운동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영국, 호주, 캐나다로 확대된 운동은 2003년 비영어권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도서관협회에서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충남 서산에서 ‘한 책 독서운동’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서울에서는 서울문화재단이 주축이 되어 열린 공간에서 여러 사람과 책을 통해 생각을 나누며 소통하고 문화와 결합된 독서운동을 펼치고자 재단 설립 원년인 2004년 ‘책 읽는 서울_기초예술, 책부터 시작이다’ 사업을 추진하고, 그 일부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를 시작했다. 국내 여타 도시들과는 달리 서울의 경우,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는 시 전체의 차원이 아니라 도서관별로 이루어진

다. 도서관별로 해당 지역 차원에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서울지역 공공도서관에서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사람들이 읽고 토론하고 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함께 즐기는 독서 캠페인으로 공통의 문화적 체험을 갖게 하며, 독서와 토론 문화를 복돋우는 독서운동으로 어느덧 8년째 이어오고 있다.

2010년 주제 ‘다문화와 함께하는 행복’에 이어 올해는 ‘소통과 배려’라는 주제하에 87개 서울시 공공도서관이 참여하여 아동부문 추천도서 4권, 청소년부문 추천도서 3권, 성인부문 추천도서 3권 중 각자 도서관에서 선정한 도서를 가지고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정독도서관에서는 〈불량한 자전거 여행〉을 한 책 도서로 선정했으며, 종로구 소재 정독·어린이·종로도서관이 함께 종로구킨소시업을 구성하여 ‘궁궐 옆 도서관’이라는 별명을 만들어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 〈불량한 자전거 여행〉은 2006년 올해의 예술상을 받은 김남주 작가의 장편동화로, 속도감 있는 문장과 익살 가득한 에피소드, 그리고 단숨에 읽히는 흡입력이 뛰어난 작품이다. 가족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해 가출한 소년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뜨거운 여름 11박 12일 1,100킬로미터 자전거 여행을 무사히 완주해내고, 가족 간의 소통을 위해 새로운 여행을 시도한다는 내



용이다. 올해의 주제와 부합하고 어느 세대가 읽어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며 관련 행사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아 한 책 읽기 릴레이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행복한 소통, 즐거운 배려

종로구 컨소시엄에서는 2011년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의 주요 사업으로 연극 공연을 기획했는데, 일반시민을 배우로 모집하고 연습하여 무대 위에 공연을 올리는 것도 주제와 부합하는 소통과 배려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조금 힘들고 과정 자체가 어려워도, 선정도서를 읽고 참여하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배우를 선발하여 운영함으로써 한 책 사업을 시민들과 함께한다는 데 의의가 있고, 완성되었을 때 참여자나 이를 지켜보는 관객 또한 새로운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나는 시민배우다>라는 제목으로 순수 아마추어 시민배우를 모집했고, 모집 과정 자체가 신선하여 이용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처음 의도대로 많은 지원자를 통한 오디션 선발은 아니었지만, 선정도서를 읽고 일상에서 탈피하여 연극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즐기고자 하는 일반인들을 만날 수 있었고, 두 개의 연극팀을 구성했다. <불량한 자전거 여행> 속의 자전거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각각 다른 사연과 목적으로 출발하지만 여정의 완주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함께 울고 웃었던 것처럼 종로구컨소시엄의 아마추

어 시민배우들도 전혀 다른 환경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알아가고 배려하며 연극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한 사람들을 청소년팀과 일반인팀, 두 개 팀으로 조직하여 26명의 단원이 매주 토요일 정기적인 연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 중순에 정독·어린이·종로도서관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한 책을 통해 만나고, 한 책을 통해 즐기고 웃으며, 한 책을 통해 연극으로 더 많은 시민에게 다가갈 소통과 배려를 전파해줄 문화의 씨앗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은 도서관에서 한 해 동안 꾸준히 준비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 책'으로 토론하고 지역 사회에 토론문화를 키우자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담당사서가 도서관의 기본을 지키면서 각 도서관의 현실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이용자들을 만나며 '한 책'으로 진정한 기쁨을 나눌 때 사서로서의 진정한 보람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토론회에서 눈을 빛내며 의견을 나누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소통하는 서울시민들이 8년 동안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를 지속하게 한 원동력이 아닌가 싶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을 열심히 추진 중인 사서들과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행복한 소통을 경험하는 서울시민들은 참 행복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가까운 공공도서관에서 '한 책'을 만나보자.

글 조양옥 현재 정독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다. 개포도서관에서 2008년과 2009년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프로그램으로 우수도서관상을 수상했다.

사진 최성열 한여름의 청량한 사이이다 한 잔 같은 사진 한 장을 찍고 싶은 사진기자.

〈읽는 책, 듣는 책, 보는 책〉

소설 속 주인공이 눈앞에 나타난다면?



‘책 읽는 서울’ 외에도, 서울문화재단은 일상 속에서 책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
각색의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시창작공간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에
서 6월 8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된 〈읽는 책, 듣는 책, 보는 책〉 또한 문학작
품을 접하는 독특한 방법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읽는 책, 듣는 책, 보는 책〉은 시대를 초월한 명작의 감동을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고,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문학을
경험하는 다양한 방법을 예술적으로 표현,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자극하
는데 집중했다. 이를 위해 어떠한 작품을 선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
두된 것은 당연지사. 6~10세 자녀를 둔 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 작품을 선정했다. 그 결과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작품이 바로 바스콘셀로
스의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어린 시절 한 번쯤은 읽었을 법한 이 책은 이른
나이에 삶의 슬픔을 발견해버린 다섯 살 꼬마 제제의 이름답고도 몽클한 성장
사를 담고 있다.

〈읽는 책, 듣는 책, 보는 책〉은 7주간 하루 두 차례씩 같은 프로그램을 반복
적으로 운영했다. 사전 예약을 거쳐 참여한 어린이들은 먼저 ‘읽는 책’을 통해
제제와 밍기뉴의 우정과 성장 이야기를 활자로 만나며 스스로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다. 6~10세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큰 사이즈로 제작된 〈나의 라임오
렌지나무〉가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어진 ‘듣는 책’은 상상력
안대와 이야기터널(헤드폰)을 착용하고 전문 배우의 목소리로 책의 내용을 감
상하는 시간. 마지막으로 ‘보는 책’은 머릿속으로만 상상했던 책 속 장면들을 시
각적으로 만나봤다. 색채그림자, 관절인형, 영상미디어 등 다양한 기법을 이용
해 주인공 제제와 친구들을 어린이들의 눈앞에 등장시켰다. 세 가지 방법으로
문학작품을 경험한 어린이들은 소감 나누기를 통해 직접 제제와 밍기뉴가 되어
봄으로써 〈나의 라임오렌지나무〉를 온몸으로 되새겼다.



마지막 주 목요일은 연희동 가는 날

연희동 목요일 낭독극장

연희동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서울시창작공간 연희문학창작
촌. 이곳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시민을 위한 정기 문학
낭독회 ‘연희목요일낭독극장’이 펼쳐진다. 오후 7시 30분 야외무
대 열림에서 열리는 낭독극장은 입주작가의 신간 중심으로 운
영되는데, 단순히 작품을 낭독하는 형식이 아니라 문학텍스트
와 음악, 무용, 극이 만나는 실험적인 공연을 선보인다. 문학인
이 공연의 연출을 맡는 것 또한 연희목요일낭독극장만의 특징. 지
금까지 15회의 공연에 작가 32명과 관련 예술가 100여 명이 참
여했고, 한 회당 200여 명이 관람해 2,500여 명의 시민이 특별한
목요일 밤을 보냈다. 오는 8월 25일 목요일에는 세 번째 소설집
을 발표한 백가흠 작가와 첫 장편소설을 펴낸 김유진 작가가 함
께한다. 이번 공연의 연출은 〈말괄량이 삐삐〉 〈한여름 밤의 꿈〉
〈연오세오〉 등에 출연하고 2011 예정문학콘서트 〈이 세상 속 흑
과 백 이야기〉를 연출한 성경선 씨가 맡을 예정. 문학을 사랑하
는 이라면 누구나 환영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2-324-4690

책이 있는 공간 가이드

책 향기 폴폴 나는 문화공간으로 초대합니다



2 서울연극센터 정보자료관



1 서울문화재단 '책방'



4 서교예술실험센터 '서교예술창고'

1 서울문화재단 '책방'

서울문화재단 1층에 자리한 책방은 조선시대 서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이다. 특유의 개방적인 공간이 주는 편안함은 천장을 유유히 오고 가는 물고기들과 함께 배가되는데, 김연희 작가의 작품 <어몽(Dream of Fishing)>은 과거의 질곡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받은 청계천의 흐름을 공간에 끌어들이고자 제작됐다. 총 4,000여 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책을 읽고 싶은 이라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별도의 안내데스크와 안내직원이 없으며, 비치된 도서는 대여할 수 없으므로 주의.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서울문화재단 1층 이용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문의 02-3230-7033

2 서울연극센터 정보자료관

연극과 공연예술에 관한 전문 자료가 필요하다면 한걸음에 달려가야 할 곳, 바로 서울연극센터 2층에 위치한 정보자료관이다. 대학로 공연예술 정보의 메카로 자리 잡은 이곳에서는 연극인과 시민 모두 무료로 자료를 열람하고 대출할 수 있다. 특히 1979년 1월에 발행된 <한국연극> 창간호는 이곳의 자랑거리. 해외 뮤지컬과 오페라 감상이 가능한 공연예술영상 웹DB가 있어 연극인과 전공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미디어 열람석에서는 공연실황 등의 DVD도 시청할 수 있으니, 대학로 공연 나들이 일정에 서울연극센터 정보자료관 방문도 첨가하면 좋지 않을까.

주소 서울시 종로구 대명길 3 서울연극센터 2층 이용 시간 화요일~토요일 오전 10시~오후 8시, 일·공휴일 오전 10시~오후 7시 도서 대출 1인 3권 2주간 대출 가능(서울연극센터 회원에 한하여 대출카드 발급 이후 가능, 일부 도서 제외) 문의 02-743-9350

3 남산예술센터 예술교육정보자료관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 정답은 남산예술센터에 자리한 예술교육정보자료관. 국내 유일의 예술교육 전문 자료관이라는 자부심으로 열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이곳은 소장 자료만 1만여 점. 예술교육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주소 서울시 중구 소파로 138 남산예술센터 예술교육관 3층 이용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12시~1시 휴관) 도서 대출 1인 3권 2주간 대출 가능(문화예술 교육 전문가로 예술교육정보자료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회원에 한함) 문의 02-758-2036~7 / www.e-sac.or.kr

4 서교예술실험센터 '서교예술창고'

2009년 문을 연 서교예술창고는 홍대라는 지역의 문화예술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아카이브 룸이다.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생산한 각종 자료를 비롯, 홍대 앞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의 포트폴리오, 국내 잡지와 해외 문화예술 학술지 등 100여 종의 자료를 비치하고 있다. 서교예술창고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노트북에 구축된 'JSTORE', 온라인으로 원문을 검색하고 자료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음악, 영화, 공연예술, 민속예술, 건축학을 비롯한 인문학 전반에까지 17세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다양한 데이터를 원문으로 제공한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9-8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이용 시간 오전 11시~오후 8시(매주 월요일 휴관) 문의 02-333-0246

5 연희문학창작촌 '문학미디어랩'

책 속에 폭 파묻혀 하루를 보내고 싶은 이라면, 연희문학창작촌 내에 위치한 문학미디어랩만 한 공간이 또 있을까. 문학미디어랩은 작가와 시민의 문화 콘텐츠 열람을 위한 열린 문화 공간으로, 총 8,400여 종의 자료를 비치하고 있다. 문학미디어랩에 구비된 도서는 상당수 기증을 받아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 유일의 문학 전용 창작공간인 연희문학창작촌 개관 당시 국내 유명 출판사들이 문학 활동 활성화를 기원하며 기증해줬다. 문학미디어랩은 자료만 열람 가능한 공간이 아니다. 시 창작반, 소설 창작반, 브런치 연희문학학교 등 세 개 강좌로 이루어진 연희문학학교가 상반기와 하반기 각 13주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 문화 콘텐츠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지만, 도서는 외부 대출이 불가하므로 주의할 것.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203-1 연희문학창작촌 3동 지하층

이용 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문의 02-324-4690, 4622

6 성북예술창작센터 '성북예술다방'

성북예술창작센터 1층에 자리한 성북예술다방은 성북구민들에게 사랑방 같은 공간이다. 비치된 450여 권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는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 가능하며, 한 쪽에 마련된 음료는 자율적으로 기부금을 내고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모은 수익금은 연말 지역 내의 비영리 기관과 불우 단체에 기부할 예정. 뿐만 아니라 다방을 거점으로 한 문화예술 이벤트가 상시 진행되어 지역 문화예술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비치된 책들은 외부로는 대출이 불가하다.

주소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28-368 성북예술창작센터 1층 이용 시간 매일 오전 10시~오후 10시

문의 02-983-9300

7 문래예술공장 아카이브

문래예술공장 3층, 공동카페 공간에 자리 잡은 아카이브는 365일 누구에게나 개방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열린 공간이다. 문래창작촌 예술가들의 포트폴리오 36종, 국내 공연예술과 시각예술가들의 포트폴리오 75종, 문래예술공장이 직접 제작한 인쇄물 40종을 비롯, 문화예술 관련 잡지와 전문 도서 등 출판물 229종을 보유하고 있다. DVD와 CD는 운영사무실에 요청하면 대여가 가능하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1가 30번지 문래예술공장 3층 이용 시간 매일 오전 10시~오후 10시

문의 02-2676-4300

8 흥은예술창작센터 '책eat수다'

흥은예술창작센터에서 운영하는 북카페 '책eat수다'는 재미난 이름만큼이나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공간이다. 문화예술과 인문, 어린이 관련 도서 등 다양한 서적을 구비하고 있으며, 커피와 차, 물 등 간단한 음료도 셀프 서비스로 이용 가능하다. 은은한 커피 향기와 함께 책을 읽거나 분위기를 좋은 카페에서 소곤소곤 담소를 나누고 싶다면, 주저 말고 흥은예술창작센터로 향하자.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흥은동 304-1 흥은예술창작센터 2층

이용 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주말 오전 10시~오후 8시 문의 02-394-9100



5 연희문학창작촌 '문학미디어랩' 7 문래예술공장 아카이브



6 성북예술창작센터 '성북예술다방'



8 흥은예술창작센터 '책eat수다'



10 NHN 'LIBRARY 1'

9 가든파이버 '아띠북카페'



12 북서울 꿈의숲 '카페드림'



11 사계절출판사 '사계절 책 향기가 나는 집'



9 가든파이버 '아띠북카페'

아띠북카페는 갤러리와 북카페가 결합된 독특한 문화 공간이다. 신진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책과 함께 순간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문화와 미술 분야의 전문 서적,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갖추고 있다. 아띠북카페는 일요일이면 엄마 손을 잡은 아이들이 가득 들어차는데, 이는 엄마와 함께 듣는 구연동화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 어린이들에게 책에 대한 호기심과 풍부한 상상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으로 아띠북카페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주소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516 가든파이버 라이프 영관 9층 이용 시간 매일 오전 10시~오후 8시
문의 02-2157-8770

10 NHN 'LIBRARY 1'

NHN에서 지난해 11월 문을 연 'LIBRARY 1'은 국내외 디자인과 IT 분야의 장서를 폭넓게 보유한 전문 도서관이다. 특이한 점은 NHN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북 셀렉터가 양질의 책을 선별하고 추천한다는 것. IT와 디자인에 관심이 있고 책을 사랑하는 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지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도서는 관내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8-1 그린팩토리 이용 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10시, 주말 오전 10시~오후 5시(공휴일과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은 휴관) 문의 031-784-4898 / www.library1.nhn.com

11 사계절출판사 '사계절 책 향기가 나는 집'

사계절출판사가 운영하는 북카페 '사계절 책 향기가 나는 집'은 갤러리, 카페, 책방, 놀이터, 도서전시장이 결합된, 말 그대로 복합 문화 공간이다. 모퉁이 책방은 반쯤 도서관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가능해 방문자들에게 인기 만점. 이곳을 찾은 엄마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은 책놀이터로, 방 안에 비치된 모든 책을 놓거나 혹은 없어서, 자유로운 자세로 마음껏 읽다 갈 수 있다. 북카페에서는 매달 새로운 문화 체험도 진행한다. 매월 둘째 주에는 심학산 생태체험을, 넷째 주에는 책놀이 프로그램을 고정으로 진행하며 방학에는 여러 가지 특강이 있으니 방문 전에 꼭 확인해보자.

주소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도시 513-3 사계절출판사 사옥 내 이용 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7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0시~오후 8시 문의 031-955-8597, 8588 / www.sakyejul.co.kr

12 북서울 꿈의숲 '카페드림'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청록색의 나무를 배경으로, 온가족이 함께 책의 향기를 즐기다 갈 수 있는 곳. 바로 북서울 꿈의숲 아트센터 1층에 자리한 카페드림이다. 북존과 키즈 존 등 효율적인 공간 구성으로 어른과 아이 모두 한 공간에서 만족할 만한 독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단순한 카페 이상의 열린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저렴한 가격의 커피를 비롯, 외출과 머핀 등 기본적인 베이커리도 마련해놓고 있으니 배고파질 걱정 없이 원하는 시간만큼 머물다 갈 수 있을 듯.

주소 서울시 강북구 번동 산 28-6 북서울 꿈의숲 아트센터 1층
이용 시간 매일 오전 10시~오후 9시 문의 02-2289-5419

시민 속으로 들어간 생활정치인

서울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현기

정치인은 딱딱하고 틀에 박혔다? 김현기 위원장은 이러한 선입견을 깨뜨린다. 스스로를 '생활정치인'이라고 칭하는 그는 시민의 삶을 운택하게 하는 정치를 꿈꾼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서울시의 도서관 확충을 외치는 것도 그의 이러한 정치관이 반영된 것. 서울시와 지역구를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김현기 위원장을 만났다.



●
위원장님께서 문화체육관광 분야만 두 번째입니다. 특별한 애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방대한 업무 중에서 문화와 체육, 관광, 예술,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두 번이나 문화예술, 디자인 분야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회 활동 중 가장 보람찬 일을 꼽는다면요.

4년 전 음악영재를 지원하는 사업예산을 독자적으로 확보해 서울문화재단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음악이나 미술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가정형편 때문에 그 뜻을 펼치지 못하는 걸 볼 때면 안타깝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예술영재 지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고픈 욕심이 있습니다.

소위 부자 동네인 강남구를 지역구로 가지고 계십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다소 의외입니다.

무릇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는 법. 강남에도 그늘지고 고단한 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회적 소외계층이지요.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구가 임대주택이 세 번째로 많습니다. 노원구, 강서구, 그 다음이죠. 현재 강남구에는 약 1만2천 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자치구 중 일곱 번째로 많아요. 다시 말해 강남구에도 사회적 관심과 지원, 따뜻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살고 있지요.

지역구와 서울시, 양쪽 의정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을 듯합니다.

모든 정치인이 지역대표성과 전체대표성 사이에서 겪는 고충이죠.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은 서울시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고,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에서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의회 의원이고 특히 문화예술정책을 담당하는 위원장입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서울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선거구를 배려하고자 하는 자세를 기본적으로 취합니다. 무엇보다 양자를 조정하고 화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역구민이 피해를 입지 않고 상생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조화로운 조정에 예산이 빠질 수 없겠지요. 예산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예산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웃음) 재정 분야를 전공했고 예산 관련 논문도 쓴 바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나아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살림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줄이는 예산이 문화예술 비용입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사고방식입니다. 문화가 산업이고, 문화산업이 곧 도시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재정이 어렵다고 금년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는 단견(短見)이며 미래를 예측하지 않은 불합리한 판단입니다.

201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서울시는 전체 예산을 3% 정도 감축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무려 15% 가까이 축소됐습니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한국을 찾는 사람이 서울을 찾지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서울은 문화가 숨 쉬는 도시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그에 필요

“

의원 발언과 집행기관 답변에
 선입견을 배제하고 회의를 편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면 핵심이
 정리됩니다. 물론 평소 훈련이
 필요하지요. 저도 그런 노력을
 평소에 합니다.

”

한 예산 확보는 당연한 귀결이고, 그러한 원칙에 크게 역행한 것이 2011년도 예산편성입니다. 문화경쟁력을 제고하려면 2012년도부터는 원상회복 이상의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문화예술 예산 확충을 위해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역할이 더 늘어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어떤 부분에 주력하실 생각입니까.

문화예술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지역, 계층 구분 없이 누구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문화소외계층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정비해나갈 겁니다. 서울은 세계에서 사랑받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외국인이 방문하고 싶은 도시 10위 안에 꼽을 정도로 인기 있는 곳입니다. 찾아오는 외국인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는 천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 특히 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이라고 하는 MICE 산업을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 관광이 어우러져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설정, 주도하는 것도 우리 위원회의 몫이고, 위원장으로서 제가 앞장서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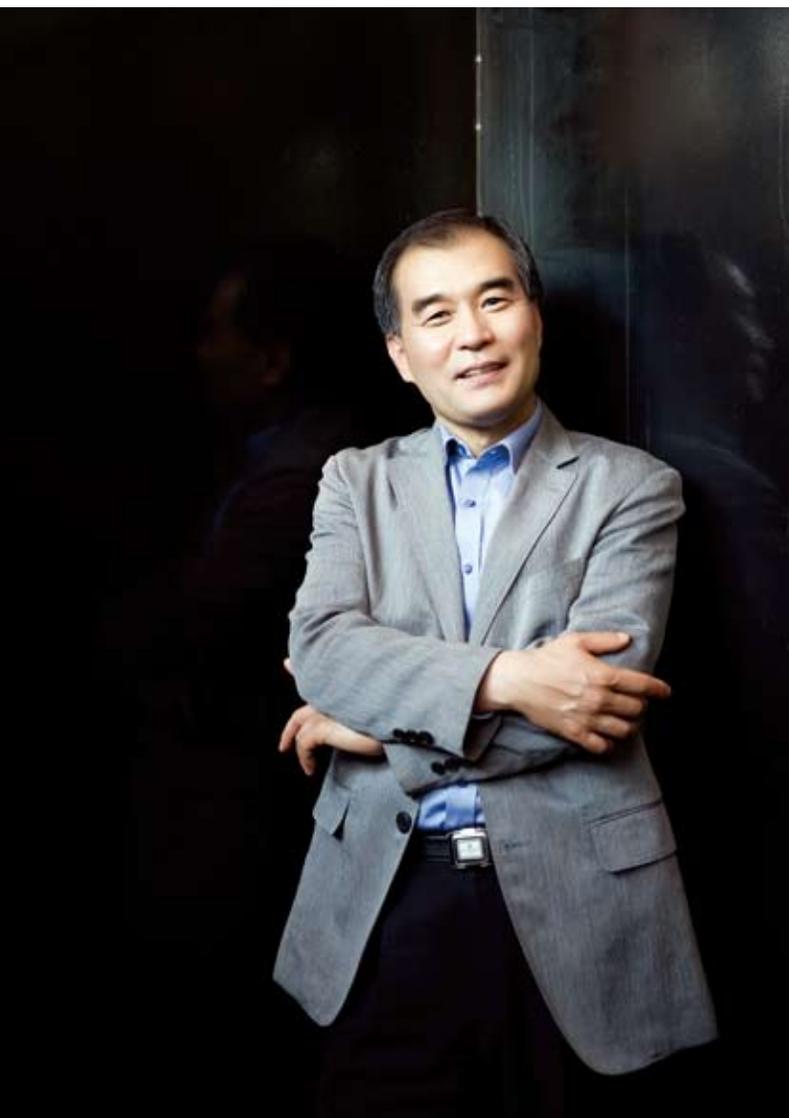
문화예술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문화예술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관광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문화예술 분야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해당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 전문성을 높여겠습니다. 그 중심에서 서울문화재단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공? 아니 훈련과 경험

도서관에도 남다른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보급과 확충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얘기 아시나요? 12세기 마르코 폴로가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가서 <동방견문록>을 썼습니다. 그리고 약 2세기 뒤 그 책을 감명 깊게 읽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



기 위해 대항해를 했습니다. 한 권의 책이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았지요. “책만큼 우리를 멀리 항해시켜주는 배는 없다”라는 미국 시인 에머슨의 말은 의미심장하지요. 그만큼 책은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상상력을 심어주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제대로 된 도서관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강철왕 카네기의 사례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1960~70년대 카네기는 그 당시 무려 5,000여억 원을 기부해 미국 전역에 도서관을 3,000여 곳 보급했다고 합니다. 기업이윤의 사회적 환원이죠, 우리도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독지가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인 상임위원회를 불협화음 없이 원만하게 잘 이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그렇게 높게 평가하나요? 문화예술에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웃음) 문화예술관광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서울시의 수준

과 품격을 높이고, 이것이 시민에게 귀착된다고 판단하면 마찰이나 갈등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제가 잘 조정한다기보다는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거고요. 그래도 약간의 다른 견해가 있을 때는 제가 다선 위원장으로서, 시의원 중 문화예술 분야에서 가장 오래 일한 사람으로서 여러 사례를 들면서 이해를 구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명쾌하게 핵심을 꼬집어내는 위원장의 운영 능력도 한몫하는 건 아닐까요.

경험입니다. 그건 누구나 회의 의제와 현안에 집중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의원 발언과 집행기관 답변에 선입견을 배제하고 회의를 편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면 핵심이 정리됩니다. 물론 평소 훈련이 필요하지요. 저도 그런 노력을 평소에 합니다. 우선 제가 정치인이잖아요. 주민들 앞에서 발언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2분 이내에 상대가 ‘응 그래!’ 하는 반응을 꼬집어내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그걸 파악해서 얘기를 합니다.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웃음) 두 번째는 강의를 얼마 전까지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적을 두고 강의하는 전문교수는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례중심으로 관심사가 뭔지를 찾아서 정리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뻐 거 아닐까요.

실제로 문화관광위원회로 바뀌면서 관광 분야에 대한 소관업무 갈등을 ‘정상화’란 표현으로 간단하게 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노하우 내공은 어디서 나오나요.

과찬이죠. 내공은 아니고요. 정치의 영역은 항상 욕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같은 의회 구성원인 시의원이지만 위원회에 따라서 자기 영역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일종의 위원회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관광 분야에 대한 소관업무 갈등도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까지는 관광업무가 문화국 소관이었습니다. 그러다 서울시가 경제를 진흥한다는 명분하에 관광을 산업으로 분류하면서 경제파트로 이관했죠. 그렇게 4년이 지났는데 괄목할 실적은 커녕 오히려 문화와 관광이 같이 있을 때보다 후퇴했다고 판정되었습니다.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광업무를 문화와 분리시켜 다른 위원회에 배치하는 걸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걸 더 이상 곤란하다,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 그것을 정상화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위원장 이전에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입니다. 흔히 광역의원이라고 합니다. 광역의원은 중앙 정치인이 아니고 지방의원입니다. 흔히 생활정치인이라고 하죠. 시민들이 겪는 생활 속 고충을 해결하고 필요한 것을 적기 적소에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기능입니다. 또한 저는 사회복지사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계층과 같이 현장에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제도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생활정치인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시의회는 중앙정치처럼 정치적인 투쟁을 하고, 이념을 놓고 대립과 갈등을 겪는 곳이 아닙니다. 생활정치인의 본분으로 들어오면 서울시의회가 여소야대라는 개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서, 생활개선을 위해서, 시민 속에 들어가는 정치가 생활정치니까요.

생활정치인으로 입문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한완상 박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분은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왜 사회학을 전공했냐는 물음에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의사고 사회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회학을 공부했다고 답하더군요. 제가 생활정치에 입문하게 된 배경도 그런 맥락입니다. 누군가는 사회의 불합리를 조정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학에 가서 가르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가 교육자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정치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여기엔 어린 시절 경험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호롱불을 켜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전기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점등식 행사장에 갔더니 전기를 우리 마을에 넣어준 사람이 우리 지역 정치인이었어요. '정치가 국민과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능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죠.

그렇다면 생활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회적 재원을 배분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합리적 배분 말입니다. 대학 등록금도 무상급식도 배분의 문제죠. 배분에 관해서 늘 고민을 했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배분의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게 사회복지사들의 임무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집행업무이다 보니 어떤 결정 업무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생활정치의 틀 안에서 그 해법을 강구해보고자 했습니다.

하이서울페스티벌의 성공이 가리키는 것

얼마 전 남산예술센터를 방문해 서울문화재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습니다.

짧은 기간에 어려운 현실적 여건에서도 서울의 문화정책을 크게 업그레이드한 주역이 문화재단이죠. 민간의 힘이 역시 크다는 점을 실감하지요. 서울시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하드웨어, 즉 제도 구축은 어느 정도 했다고 봅니다. 문화재단을 만들고, 공연장 운영기관을 법인화하고, 다만 신설 공연장 확보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남산예술센터도 공연장을 임대해서 쓰지 않습니까? 노후화된 협소한 공간을 갖고 있다는 게 안타깝죠. 서울문화재단이 발전하려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이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보실 텐데요.

그동안은 주로 서울시가 결정한 사업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었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서울문화재단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정체성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부족한 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문화재단 구성원 모두의 노고와 땀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서울문화재단이 추진하는 창의적인 사업의 하나가 하이서울페스티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하이서울페스티벌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올해 하이서울페스티벌은 대폭 줄어든 예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짧아진 축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참여는 늘었고, 내용도 더 알찼다는 평가입니다.

● **김현기 위원장 이력**

국립 철도고등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박사)
 철도청, 의료보험관리공단 근무
 국회의원 보좌관
 서울시립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자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 7, 8대 의원(현)
 강남교육청 교육발전위원(현)
 한나라당 강남을 당협 부위원장(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현)

주체인 문화재단의 정성이 낳은 결과입니다. 가식적으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악조건에서도 예년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것은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힘을 발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썼습니다. 의정부와 안산에서도 하이서울페스티벌과 비슷한 시기에 축제가 열려 이를 기회로 잘 활용했습니다. 세 도시가 해외 예술가들을 함께 초청해 공유한 겁니다. 항공료 한 번만 주고 세 도시를 순회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축제 콘셉트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2006, 2007년도만 해도 관 주도, 우리가 하나 가져와서 보라는 일방통행식이었다면 지금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같이 즐기는 축제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위원장님의 평가에는 외국에서의 경험이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남 본부장하고는 여러 축제를 동행했죠. (웃음) 에든버러 공연축제, 런던 템스강 페스티벌, 노팅힐 카니발 등등. 거기서도 확인한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테마는 '시민 주도'입니다. 시민이 주체가 됐을 때 더 큰 감동이 오죠. 직접 참여하니까 자기네 눈높이로 만듭니다. 그리고 보람을 느끼죠.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면 결국 모든 시민이 내 축제, 내 공연이라는 주인 의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서울문화재단에서 일종의 시민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시민 주도의 공연이 필요하고요. 그건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문화재단이 시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가며 축제의 틀을 만들어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이 보셨잖아요. 런던시에서는 지원해준 게 거의 없어요. 장소 협조요청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시민과 기업, 그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만들어가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공무원들에게 해외출장 가서 많이 배우라고 하시는 건가요.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가

서 눈으로 봐야 확신이 섭니다. 두 번째, 해당 부서의 일을 맡은 즉시 외국에 나가서 봐야 해요. 그래야 보고 느낀 것을 업무에 녹여낼 수 있거든요. 근데 대개 다른 부서로 옮길 때쯤 국외연수를 갑니다. 그간 고생했으니 외국 가서 쉬고 오라는 식이죠. 다녀오면 전출되어 전혀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요. 그러니 새 부서에 왔을 때 그 분야의 선진 사례를 먼저 보러 가라는 거예요. 자주 해외로 나가서 목적 있는 축적을 하라는 애깁니다.

책임감과 의무감 사이에서

공연장을 자주 찾으신다고 들었습니다.

공연예술은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으로서 책임감과 의무감이 절반은 되지요. 공연보다 더 가까이 하는 건 책임입니다. 그 외 창작예술 분야에도 관심이 많고요.

근래에 읽은 책중에 권할 만한 책이 있다면.

지하철에서는 주로 역사소설을 많이 읽어요. <사기>라든지 <초한지>라든지. 역사 속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을 많이 읽죠. 내가 속한 위원회에 필요한 서적도 가끔 읽습니다. 최근에는 이태석 신부의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마이클 센텔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건강관리로 즐겁기를 즐겨 하신다고요.

먼저 걷기 운동을 합니다. 양재천과 대모산을 열심히 걸어요. 걷는 것만 으론 운동효과가 부족하니까 작은 공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빠른 운동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뭔지 궁리 끝에 즐겁기를 찾았죠. 시작한 지 아주 오래됐고요, 요즘엔 하루에 1,500개 정도 넘습니다. 새벽에 귀가해도 심지어 해외출장 가서도 빼먹지 않아요. 최근에 프랑크푸르트와 파리를 다녀왔는데, 센 강과 마인 강변에서도 매일 했어요. 그곳 사람들이 나를 아주 관심 있게(?) 보더라고요. 즐겁기에도 요령이 있어서, 아무렇게나 하면 곤란합니다. 즐겁기는 대부분 체중을 줄여보려고 시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체중인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체중을 어느 정도 줄여서 시작해야 합니다. 즐겁기는 기본적으로 1분 하고 2분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관절에 무리가 없어요. 근육이 튼튼해지면 2분 정도 하고 2분 쉬어도 됩니다.

그는 하루에 30분 정도를 즐겁기에 투자한다고 한다. 한 번에 250개 정도 하고 2분 쉬고, 250개는 2분이면 넘을 수 있단다. 그는 즐겁기처럼 가벼운 운동을 하더라도 철저히 계산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인다. 해외출장 가서도 빠뜨리지 않을 정도로, 꾸준하게. 성격과 생활습관만큼이나 그의 정치 여정도 딱 차고 빈틈없다. 그가 그려나갈 문화도시 서울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
연출가 서재형과 극작가 한아름이 주축이 된 극단 '죽도록 달린다'는 이름처럼 한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숨이 턱까지 차오를 만큼 열심히 달리는 예술가의 질주 본능을 모토로 한 젊은 극단이다. <죽도록 달린다> <왕세자 실종사건> <호야> <청춘 18대1> 등 대부분 작품에서 배우들은 저러다 탈진하진 않을까 싶을 만큼 설 새 없이 뛰고 또 뛰고를 반복한다. 배우가 힘들수록 관객은 즐겁다고, 배우들이 구슬땀을 흘리는 사이 관객들은 서서히 작품에 매료된다. 단순히 뛰는 동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의미와 재미가 만들어지고, 화려한 장치나 큰 도구 하나 없이도 어느 순간부터 무대에 나무가 보이고 길이 보인다. 이렇듯 시공간의 확장을 중요시하는 이미지 연극을 통해 다양한 극 형식을 실험해온 공연계의 양팡테리블 서재형, 한아름 콤비. 흥미로운 극적 모험이라면 일단 달리고 보는 이들이 이번에는 고궁뮤지컬 <왕세자 실종사건>이라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다.



극단 '죽도록 달린다' 연출가 서재형 · 극작가 한아름 부부



우리는 남편이다
고로 존재한다



● “제가 미친 생각을 하는 바람에 스태프들이 2년 동안 경제적으로나 작업적으로나 힘들었는데 이 상을 받아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더 뮤지컬 어워즈’ 소극장 창작 뮤지컬상을 수상한 극단 죽도록 달린디의 <왕세자 실종사건>. 극단 대표인 서재형 연출은 지난 시간의 고충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수상 소감과 함께 “작년에 아내가 극본상 후보에 올랐다 떨어졌어요. 그 날 소주 10병을 마시면서 내년에 꼭 작품상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켜서 기분이 좋습니다”라는 유쾌한 멘트로 아내이자 동료인 한아름 작가에게 감사와 애정을 표했다. 2005년 예술의전당 ‘자유젊은연극시리즈’에서 최고점을 받았던 연극에서 뮤지컬로 성공적인 변신을 거둔 <왕세자 실종사건>. 제목만 보면 <왕세자 실종사건>은 사라진 왕세자를 찾는 줄거리일 것 같지만 관객이 극에 몰입되면 몰입될수록 극 속에서 왕세자 실종

사건은 ‘실종’되고 내시 구동과 나인 지숙의 아픈 사랑 이야기만 남는다. 왕세자가 어떻게 실종됐는지, 범인은 누구인지, 살아 있는지 등 그 사건에 대해 극은 어떤 단서도 제공하지 않는다.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한아름 작가와 서재형 연출의 숨은 의도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를 계속 오가는 형식과 복잡한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고 뮤지컬로 만드는 건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다.

“저희 연극으로 뮤지컬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이 많았어요. 특히 <왕세자 실종사건>과 <청춘 18대1>에 관심을 보인 제작자가 꽤 있었는데 뮤지컬을 만들더라도 일단 우리 안에서 먼저 해보자 싶었지요. 극단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기였거든요. 그동안 <왕세자 실종사건>을 다시 보고 싶다는 요청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 어느 작품보다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아이의 덕을 많이 봤기 때문에 망설이 없이 아이를 택했죠. 잠시만 한눈 팔아도 작품이 확 변해버리는 까다로운 아이라 작업은 어려웠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컸어요.”

한아름 작가는 자신의 작품들을 ‘아이’라고 표현한다. 아이를 낳는 산고 못지않은



“연극인은 클래식을 하는 예술가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오랫동안 반복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창의성도 붙는 거고,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극단도 죽도록 달릴 수 있죠.”

보면 배우들이 노래를 위해 연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기가 노래를 위한 양념은 아니거든요. 배우들에게 이런 점을 계속 강조했고 연기 연습도 혹독하게 시켰지요.”

죽도록 달리면 다다르지 못할 곳이 없으니

독특하다, 창의적이다. 새롭다. 극단 죽도록 달린다는 작품에 늘 따라오는 수식이다. 조금만 편해도 배우들이 불안해한다는 우스갯소리를 할 만큼 강도 높은 연습으로 유명한 극단 죽도록 달린다. 리딩을 하더라도 땀이 안 나면 열심히 안 한 것이라고 간주하는 연출가나, '상기된 얼굴'과 '뛰는 심장'으로 이를 증명하는 단원들이나 혹독한 연습에는 인이 박일 대로 박여 있다. 하지만 외부에서 온 배우들은 적응하는 데 꽤나 애를 먹는다.

“연극 <죽도록 달린다> 때부터 여덟 바퀴를 뛰고 숨차하는 배우들에게 해운 이야기가 있어요. 힘든 건 아는데 차분하게 대사는 다 들려야 한다고. 불가능하게 보였지만 해내더라고요. 그게 우리 배우들의 힘인 것 같아요. 외부에서 배우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데 까먹고 있었구나' 하고 충격을 받는 배우와 연습 자체를 못 견디는 배우, 두 타입으로 갈려요. 이제 소문이 나서 외부 배우를 접촉하게 되면 다들 첫머리가 '뻥세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배우러 왔습니다' 하는 친구가 많은데 겪어봐야 알죠. 같이 부딪히고 구르며 저희 방식과 잘 맞으면 두세 작품 꾸준히 가는 배우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극단의 특성을 설명한 한아름 작가는 한태숙 연출의 <서안화차>에 드라마투르그로 참여하며 극단 물리의 조연출이었던 서재형 연출과 만났다. 그 누구보다 서로의 뜻과 방식을 잘 이해해주는 동료였던 둘은 2004년 연극 <죽도록 달린다>로 의기투합하며 공연계의 앙팡테리블로 떠올랐고, 2007년 부부의 연을 맺으며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형식의 작품들을 선보였다. 새로운 연극 양식을 만드는 서재형과의 작업이 즐거워 거기에 주력한 작품을 써온 한아름. 하지만 그녀에게는 칭찬과 함께 '사실주의가 아니다' '정서가 부족하다'는 돌도 날아들었다. 그래서 절제와 반대로 가보자며 <호야>와 <청춘 18대>을 내놨더니 이번엔 또 신파라고 나무라는 이들이 나왔다. 그런 선입견도 올봄 선보인 연극 <더 코러스: 오이디푸스>를 통해 깨어졌다. 소포클레스의 고전을 함축적이되 추상적이지 않은 대사들로 군더더기 없이 풀어낸 그녀에게 그 누구도 더 이상 대사보다 장면이, 줄거리보다 구성이 기억에 남는 작품을 쓰는 작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감정 조절이 필요한 타이밍에 <더 코러스: 오이디푸스>를 만났죠. 여태까지 해왔던 작품들이 남긴 숙제를 한 번에 한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제 원칙은 변함이 없었어요. 전 연습 기간 내내 대본을 수정하고 최소한의 대사만을 남기느라 바빠요. 대

고된 과정을 거쳐 세상에 나온 작품들이기 때문일 테다. 그중에서도 <왕세자 실종사건>은 예술의전당 자유젊은연극시리즈에 당선됐을 때부터 “극단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돌과구를 만들어준 효자”라고 설명한다. 뮤지컬 역시 이 작품이 전국문예회관협회 창작팩토리 뮤지컬 부문에 당선되어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한아름 작가에겐 더 이상 줄일 부분이 없이 정제될 만큼 정제된 연극 대본을 부수는 게 어려웠다면, 서재형 연출이겐 뮤지컬은커녕 노래가 처음인 단원들을 이끄는 것부터 난관이었다.

“공연도 공연이지만 공모전 때 선보인 40분짜리 시연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악보도 볼 줄 모르는 단원들과 어떻게 뮤지컬을 만드나 캄캄했지만 대부분이 이 작품을 잘 알고 있어서 겁은 안 나더라고요. 시연회의 특성상 세트를 만들고 공연을 하고 치우는 것까지 정해진 시간 내에 마쳐야 하는데 저는 조금이라도 완성도를 높이고자 등퇴장까지 공연의 일부처럼 동선을 짰어요. 그런 창의성을 높게 봐준 심사위원도 있었고 '그 자체가 쇼였다고 격려해준 관계자도 있었죠. 본공연에는 뮤지컬 전문 배우들의 영입이 불가피했지만 그 친구들에게도 강조한 게 있었어요. 뮤지컬을 보다

본이 줄어야 연출이 할 일이 늘고 음악이 들어올 부분도 생기고 무대도 풍요로워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단원들 다 데리고 가야 한다는 고집이 있어요. ‘이번에는 이 친구가 잘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줘야겠다. 이 친구는 그동안 희생을 많이 했으니 보상이 될 만한 역을 줘야겠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다보니 작품을 쓰면서 생각이 많죠. 작품 써 놓고 어울리는 배우를 고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반대여도 행복해요.”

한편 서재형에게는 ‘젊은’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 다닌다. 비단 그의 물리적, 신체적 나이 때문만은 아니다. 기성 연극의 형식과 내용을 답습하지 않으려는 부단한 의지와 건강한 실험 정신이 작품 안에 넘쳐흐르기 때문이다.

“제가 추구하는 건 생각보다 단순해요. 기본을 지키는 것. 방송 드라마를 많이 접하다보니 연극의 클래식성이 많이 가려졌지만 연극이란 장르 자체는 클래식이에요. 클래식이란 단어에는 ‘오랜 시간 연습하는 것’이란 간단한 진리가 숨어 있어서 그걸 무시하는 순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버리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극인은 클래식을 하는 예술가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오랫동안 반복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창의성도 붙는 거고,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극단도 죽도록 달릴 수 있죠. 오케스트라도 개별 연습이 충분히 된 다음에 지휘자가 들어가 최상의 화음을 끌어내는 것처럼 배우들도 기본 이상의 연습이 되어 있어야 저와 한 작가가 들어가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에게 가장 무서운 건 기자나 평론가가 아니라 관객이다. 이는 한아름도 마찬가지다.

“관객 중에서도 우리의 공연을 기대하는,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요. 처음에 팬 층이 없을 때는 비평에 상처를 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잘한다는 칭찬이 더 무섭습니다. 티켓이 얼마나 나갔네, 매진이네 소리를 들으면 정신 혼미해져요.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두 번째 라운드 시작

작업자로서 자신이 쓴 대본을 이렇게 많이 읽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울 뿐이라는 상상력 넘치는 아내와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철저하게 공부하는 메모광, 자료수집광인 부지런한 남편. 이들이 만드는 작품은 프리뷰나 본공연이 똑같은 만큼 완성도가 높다.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 작품은 공연 일주일 전과 공연 첫날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공연 일주일 전부터는 4시쯤 모여서 전날 체크한 부분만 맞춰보고 런을 한 번 도는 정도로 연습을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스케줄을 당겨 초반에 세계 연습해놓고 후반에는 컨디션을 조절하며 공연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 여유

“처음에 팬 층이 없을 때는 비평에 상처를 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잘한다는 칭찬이 더 무섭습니다.”



1

가 생기니까 배우도 덜 불안하고 우리도 덜 불안해요.”

극단 죽도록 달린다를 만든 지 어느덧 7년, 초창기 멤버들은 그사이 서른 살이 넘었고 식구도 늘어났다. 이제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알아서 동선을 맞추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는 성숙해진 단원들을 보며 이들은 이제 ‘시즌 2’를 이야기할 때가 왔다고 했다.

“그전까지 단원들은 ‘하자!’고 이끌면 운동화 끈을 조이고 따라서 달려오는 쪽이었어요. 하지만 ‘죽도록 달린다’의 2기는 우리가 이끄는 게 아니라 단원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연습을 하고 공연을 주도하는 형태를 꿈꿔요. 지금 공연 중인 〈청춘 18대 1〉은 그걸 실험하는 첫 무대죠. 전 감독만 했을 뿐 조연출과 단원들이 스스로 스케줄을 짜서 연습을 하고 공연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올해는 고궁뮤지컬 〈왕세자 실종사건〉까지 잘 끝내고 내년쯤 단원들이 상시 쓸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 싶어요.”

한아름 작가의 이야기는 다시 고궁뮤지컬로 또 한 번 변신을 감행할 〈왕세자 실종사건〉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대장금〉 〈명성황후〉 〈화성에서 꿈꾸다〉 등의 뮤지컬이 경희궁 중정전을 무대로 새로운 모습으로 공연되어 시민들의 사랑을 받은 바 있다. 다섯 번째 고궁뮤지컬로 경희궁에 입성할 〈왕세자 실종사건〉. 역시나 이번에

- 1 경희궁 송정전 무대에 올릴 <왕세자 실종사건>을 앞두고 연습에 한창인 서재형 연출과 한아름 작가, 그리고 배우들. 객석과 무대를 뒤편 훑기적인 공연을 준비 중이다.
- 2 고궁뮤지컬 <왕세자 실종사건>.



도 서재형 연출은 기존과 다른 무대를 꿈꾸고 있다.

“연출가에게 야의 공연은 무척 매력적인 기회라 꼭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의 콘셉트는 ‘왕의 자리에서 뮤지컬을 본다’는 겁니다. 송정전이 객석이 되고 기존에 객석을 놓았던 마당이 무대가 되어 관객들은 송정전에 앉아서 공연을 보는 거죠. 원래 그게 맞거든요. 게다가 <왕세자 실종사건>의 주된 이야기 역시 그 아래 공간에서 탄생했으니까요. 기존에 안 하던 방법을 취하니까 또 일이 많네요.”

구동과 지속의 이야기에는 변함이 없지만 극장의 규모가 커진 만큼 코러스와 악사가 늘어나 참여 인원도 14명 정도 많아졌고 추가된 장면과 노래도 생겼다. 하지만 서재형 연출은 대극장을 꿈꾸기보다는 고궁이라는 공간을 거치면서 한두 장면이 전보다 더 좋아지고 그것을 통해 작품을 진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요즘 연출가들은 무거운 대본을 들고 다니는 대신 태블릿 PC로 대본을 보고 메모

를 한다. 하지만 서재형 연출은 종이를 고집한다. “적을 게 너무 많아서, 상황별로 쓰는 펜의 색도 다르고 포스트잇 모양도 다르다”고 웃지만 한아름 작가의 말에 따르면 그는 한 작품당 평균 3권의 대본을 본다. 고사 지낼 때 하도 많이 봐서 닳고 낡은 대본 3권을 꺼내놓으면 배우들도 놀라 경건해진다고.

매일 새벽 제사를 지내듯 엄숙하게 대본을 읽는 남편이나, 더 이상 쓸 게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아내나. 부창부수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닐까. 잘하고 있다고 방심하는 순간 퇴보할 것 같아 만년 2등이고 싶다는 서재형 연출과 한아름 작가. 그들은 오늘도 칭찬을 채찍으로 여기며 힘차게, 끝없이 달려간다.

이탈리아 요리사 파올로 데 마리아

음식 한 접시에 담긴 문화의 힘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 출신의 요리사 파올로 데 마리아(Paolo de Maria), 14세 때부터 요리에 입문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던 그가 한국을 찾은 지 벌써 7년이 지났다. 그간 보나세라, 스타세라, 디비노 등 서울의 명소가 된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거치며 이름을 알린 파올로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건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정통 이탈리아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2008년에는 간단한 레시피로 파스타를 즐길 수 있는 요리책을 출간했으며, 몇몇 대학에서 이탈리아 요리를 가르치기도 했다. 이러한 음식을 통한 문화 교류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가을에는 서울 명예시민으로 선정되었다. 나라와 나라를 잇는 것은 철로와 비행기만이 아니다. 제대로 만든 음식 한 접시로도 서로의 문화를 소통할 수 있다고 믿기에 오늘날 그의 주방은 분주히 돌아가고 있다.



● **아주 어린 나이에 요리에 입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계기로 요리사의 꿈을 갖게 되었나요?**

처음 요리에 매력을 느끼고 음식 만드는 일에 열정을 갖게 된 건 가족의 영향이 컸습니다. 어릴 적에 우리 집에서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항상 요리를 하셨는데,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늘 주방을 떠나지 않고 구경하곤 했어요. 아버지는 정식 요리사는 아니었지만 언제나 정성과 애정을 가득 담아 음식을 차리곤 하셨지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영향을 받아 요리사의 꿈을 꾸게 되었고, 열네 살에 정식으로 요리에 입문했습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젊은 시절부터 이탈리아 전 지역, 그리고 세계를 여행하면서 요

리를 했는데, 아시아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해 늘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한국의 레스토랑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되었어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아시아에 본고장 이탈리아 요리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제의를 받아들였지요. 처음엔 1년 계약으로 왔는데 점점 기간이 연장되었고, 그러다 이곳에서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니 벌써 7년이 지났네요.

대형 유람선인 크루즈에서 일하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는데, 크루즈의 요리사로 일한다는 것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크루즈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도시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도시죠.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개월씩 바다 위에 머물러야



파스타는 이탈리아가 아니라 미국식 음식이에요. 소스와 크림을 듬뿍 올린 그런 음식을 먹다 보면 느끼하니까 자꾸 피클이나 콜라를 찾게 되지요. 이탈리아 요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한 재료의 맛을 살리려고 하죠. 사용된 모든 재료가 조금씩 맛을 내야 좋은 음식인데, 한국 파스타에는 마늘 같은 향신료나 핫소스를 많이 넣어서 재료 본연의 맛이 나지 않아요. 때로는 재료가 신선하지 않아도 소스에 묻혀갈 때가 있어 안타깝습니다.

각각의 파스타에는 이탈리아의 다양한 지방색이 담겨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만드는 파스타는 어떤 색깔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북부 토리노 출신이지만 주방에서는 이탈리아 모든 지방의 다양한 파스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는 5,000종이 넘는 파스타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많아야 10종류 정도밖에 소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면에 대해 좀 고정관념이 있어서 스파게티 면을 고집하는데, 사실 파스타 면은 링귀니, 펜네, 페투치니 등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때로는 소스보다 면이 더 다양한 맛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식당에서는 절대 건조해놓은 파스타를 쓰지 않습니다. 그날 만든 신선한 면을 사용하죠. 저도 건조된 파스타는 쓰지 않고 아침마다 면을 직접 뽑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무엇입니까?

궁중 요리를 좋아합니다. 신선로와 구절판 등 한국의 궁중 요리는 일단 컬러풀해서 보기에 아름답고, 맛이 아주 섬세합니다. 또 자극적이지 않고 순한 맛이지요. 한입만 먹어봐도 몸을 보하는 음식이란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강한 맛을 좋아해서 그런지 궁중 요리 같은 정통 음식은 즐겨 먹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일본만 해도 정식인 가이세키 요리를 즐겨 먹는데, 한국은 외식을 할 때도 정통 한식보다는 트렌디한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듯합니다.

2008년에 자신만의 파스타 요리법을 담은 <파스타 에 바스타>를 출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파스타를 제대로 알리고 싶은 마음에 책을 썼습니다. 모든 요리는 평균 20분이면 완성할 수 있도록 쉽고 간단한 레시피를 담았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손쉽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재료가 신선할 때 빨리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파스타는 간단한 재료로 쉽고 빠르게 조리하는 요리입니다. 단순하지만 신선한 재료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그 외에 파스타와 잘 어울리는 와인을 소개한다든가 파스타에 얽힌 유래와 이야기를 설명하는 등 이탈리아 식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자 했습니다.

여러 대학과 강좌에서 이탈리아 요리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요리

하기 때문에 크루즈의 주방에서 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이의 식사를 매번 책임지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지요. 하루에 12시간씩 쉬지 않고 일해야 세 끼 식사를 준비할 수 있고, 매번 다양한 메뉴로 영양까지 생각해야 하니깐요. 하지만 크루즈에서는 늘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매너를 접할 수 있다는 건 매력적인 일입니다. 젊을 적에 한 번쯤 경험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스타를 비롯한 이탈리아 요리는 한국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외식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 한국 파스타 요리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맛이 너무 강하고 자극적입니다. 여기서 먹는 대부분의 피자

저는 음식이 문화를 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음식만 만드는 게 아니라 책을 쓰고
요리를 가르치는 이유지요.

사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가르치세요?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리사가 아니라 재료입니다. 요리사의 의무는 최고의 음식 재료를 고르고 선별하는 것이지요. 좋은 재료가 곧 좋은 음식을 만듭니다. 좋은 요리사는 좋은 재료를 알아보는 눈과 경험을 갖춰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음식 재료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재료건 함부로 버리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수업에서든 남은 재료를 무작정 버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음식에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 하라고 강조합니다.

현재 서래마을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이탈리아 레스토랑 '피올로 데 마리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신만의 특별한 운영 원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레시피를 바꾼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정통 이탈리아 음식 맛 그대로 만들었을 때 오히려 손님들의 만족도도 높고, 그것이 저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손님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들이 무엇을 요구할 경우에는 결코 "No"라고 하지 않습니다. 피클을 원하면 미국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탈리아식으로 만들어놓은 절임을 주고, 맵게 해달라고 하면 타바스코 대신 칠리소스를 가져다줍니다. 우리 식당에선 이탈리아 요리가 아닌 것은 제공하지 않지만, 손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재료나 방법을 써서 꼭 마련해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남산 공원을 좋아합니다. 그곳에 가면 숨이 탁 트이는 기분이 들어요. 회색 도시 안에 있는 녹색 지대라고 할까요. 남산이 좋아서 집도 거기 가까운 곳에 마련했습니다. 남산 공원이 지금의 한 열 배 정도 더 컸으면 좋겠어요. 물론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비교하면 이런 공원이나 숲이 더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서울시도 공원이나 녹지 환경의 중요성을 점점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산에 가서는 주로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을 많이 해요. 사실 요리사의 몸만 봐도 그 사람이



만드는 음식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음식을 먹고 만드는지 보이니까요. 배가 많이 나오고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 요리사보다는 보기만 해도 건강함이 느껴지는 요리사가 만드는 음식에 더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까.

흔히 요리에는 문화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요리에는 어떤 문화를 담고 싶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예술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8시간씩 일하는 요리사일 뿐이지요. 하지만 하나의 접시에 담기는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무언가 감정적인 움직임을 느낀다면 그것은 예술이라 할 수 있지요. 저는 사람들이 제 요리를 맛보면서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무언가를 느끼고 영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음식이 문화를 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음식만 만드는 게 아니라 책을 쓰고 요리를 가르치는 이유지요. 앞으로도 제대로 된 이탈리아 요리를 만들고, 이에 대해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하면서 이탈리아의 음식 문화에 대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글 김주연 대학과 대학원에서 러시아 문학을 공부하고 5년간 월간 <객석>에서 연극 담당 기자로 일했다. 현재는 문화와 공연에 대한 다양한 글을 쓰고 있다.
 사진 백중현 카메라 렌즈를 통해 바라본 세상만큼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사진가다.



2011 **뮤지컬 어워드**

와세기자 ; THE MUSICAL 실종사건

2011.09.01
Grand Open

저녁 8시 (9월 11일 일) | 공연없음

경희궁 송정전

대본,작사 | 한아름 작곡,편곡 | 황호준 연출 | 서재형

출연 | 김대현, 강하늘, 이지숙, 이상현, 박혜나
정문성, 태국희, 김선표, 박지희, 임철수 외

예매 | 인터파크 티켓 YES24.COM 공연 AUCTION 티켓
티켓11번가 lotte.com

문의 | 120 다산콜센터 콜림서비스 | 02-501-7888
극단 죽도록 달린다 | 010-4992-0222



내가 땅콩집을 짓는 이유

건축가 이현욱의 서래마을 추억



“현욱아 일어나야지! 오늘 이사 가는 날이잖아? 네가 아주 좋아할 동네야. 개구리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산에는 박쥐동굴도 많아. 어서 빨리 일어나.” 초등학교 4학년. 난 너무 좋았다. 태어난 후로 내내 아파트에 살다가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날. 그날 아침이 아직 생생하다. 반포고속터미널을 중심으로 이곳저곳으로 2년마다 이사한 기억밖에 없는 나에게 단독주택은 나의 꿈이었다. 드디어 꿈이 이루어지는 날. 당시 부모님은 강남개밭에 발을 맞춰 2년마다 이사를 했다. 2년마다 좀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조금씩 생활도 윤택해졌다.

이삿짐을 다 싸고 출발해서 10분 만에 도착한 곳은 완벽한 시골 풍경. 집보다는 논밭이 많았다. 그런데 그곳도 반포였다. 반포에 이런 곳이 있다니 놀라웠다. 배산임수가 거꾸로운 동네. 남쪽에 산이 있고 북쪽에는 하천이 있어 개발이 어려운 동네. 학교를 가기 위해선 하천에 놓인 구름다리를 건너야 했다.

학교가 파하면 흔들거리는 이 위험한 다리를 선생님의 인도 아래 조심조심 건너 다녔다. 이른 저녁 5시쯤만 되어도 박쥐들이 떼를 지어 날아다니고 논밭에 개구리며 메뚜기가 지천이었다. 아파트 놀이터가 전부였던 일상에서 그곳의 시간은 그대로 톰 소여의 모험이었다. 동생은 이 동네가 너무 더럽다고 싫다 했지만 나의 탐험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뒷동산을 올랐다. 웬 동굴이 그리 많은지 한 달을 꼬박 탐험해도 새로운 굴을 또 만날 수 있었다. 박쥐동굴, 여우동굴, 북한군동굴, 거지동굴.

30년 전의 서래마을 풍경

사실 아버지는 이곳으로 이사 온 것을 너무 미안해했다. 사업에 실패하고 아파트는 은행으로 넘어갔다. 학교를 옮기기 어려워 전세가 싼 가까운 동네로 이사를 결정한 것이다. 아버지는 이사한 날 저녁, “1년만 고생하자. 빨리 회사를 일으켜서 좋은 동네로 이사 가자”고 다짐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이다. 아버지의 사업실패가 나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 줄이야.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나는 인생 최고의 절정기를 보낼 수 있었다. 그 동네 친



때 알았다. 왜 들판에서 불놀이를 하는지. 눈이 오면 쌀부대를 구해 눈썰매를 탔다. 이것도 지겨우면 플라스틱 파이프를 반으로 갈라 앞부분을 불로 그슬려 구부린 다음 스키를 즐겼다. 눈발이 얼면 막대기를 하나씩 구해 아이스하키를 했다. 길 하나 사이로 생겨난 프랑스마을. 대화는 불가능했지만 같이 아이스하키를 하며 국가 대항전을 벌였다. 저쪽은 진짜 스틱. 우리는 그냥 막대기. 그래도 마냥 즐거웠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을까. 경제적으로도 그랬겠지만 아마도 부모님은 좌절과 절망으로 심리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으리라. 그런데 어린 나에게는 대단한 선물이었다. 돈은 없었는데 모든 게 공짜였다. 자연이 주는 무한한 선물. 아버지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1년은 어느덧 6년이 되었고 급기야 이민을 결정하게 되어, 나는 아주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다. 그 재미난 것들을 다 놔두고 가려니 아쉽고 또 아쉬웠다. 좋은 장난감도 고급 과자도 없었던 어린 시절이지만 나에게겐 추억이 한가득이었다. 구름과 개구리와 매뚜기, 친구들만 있으면 그만이었다. 아버지의 미안함은 나에게 고마움으로 남아 있다.

여우동굴 자리에 대법원이 들어오고, 북한군동굴 자리에는 국립도서관이 들어섰다. 구름다리는 4차선 다리로 바뀌었고, 주변의 5층짜리 아파트는 40층 아파트로 재건축이 되었다. 학교 운동장에는 잔디가 깔렸고, 길 건너 프랑스마을은 고급빌라 단지로, 동네 눈밭도 고급빌라, 카페촌으로 바뀌었다. 모두가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나는 그 동네에 갈 수가 없다. 너무 부자 동네가 되어서.

땅콩집 전도사가 되다

다행히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은 없었다. 일반적으로 저층주거단지를 아파트로 재개발하면 세대수가 늘어나고 주거환경이 좋아진다고 보지만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 집이 고층으로 올라가 세대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가구 수는 그대로다. 고층으로 올라가다보니 건물과 건물 사이가 넓고 공원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공간은 휴먼스케일이 아니다. 휴먼스케일이란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한계공간이 있다. 이 크기를 벗어나면 안정을 쉽게 회복할 수 없는, 불안정한 일상을 살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를 사서 집장만을 해도 내 집 같은, 온화함과 따뜻함을 잘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자꾸 이사를 간다.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

어린 시절 내가 살던 단독주택들은 사라졌지만 고급빌라들 사이로 골목길은 그대로다. 친구들과 축구를 하던 골목길. 구슬치기를 하던 놀이터도 남아 있다. 동네 빵집도 이름만 바뀌었지 그 상가 그 자리에 남았다. 쥐불놀이를 하던 우거진 뒷동산에는 산책로가 만들어졌다. 내가 불을 내 동네를 발각 뒤집어놨던 그 언덕에서 내 아이들과 산책을 한다. “한세야. 이곳이 아빠가 불장난하던 곳이야!” “오, 재미있겠다. 나도 해도 돼?”

이 동네의 추억으로 땅콩집을 만들게 되었다. 그 추억 때문에 <두 남자의 집짓기>를 쓰고 강연을 하면서 많은 부모에게 아이들을 위해 학원에 보내지 말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집을 지으라고 떠드는지 모른다.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의 유일한 주거방식이 아니라고 말이다. 아버지는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매일 아침 힘들어 지친 나를 깨운다. “현욱아, 일어나야지!”

구들의 특징이 있었다. 학교에서도 티가 난다. 우선 콧물을 흘린다. 손톱에 때가 많다. 운동화가 아닌 고무신, 옷에 항상 흙이 묻어 있다. 이사 전에 학교 다니면서 이 친구들이 더럽게 왜 콧물을 흘리나 궁금했지만 어느 순간 이 친구들 옆에 똑같이 서서 콧물을 흘리며 같이 옷을 나를 발견했다. 그렇게 변하는 게 당연했다. 온종일 추운 겨울에도 밖에서 뛰노니 코 밑이 성할 리가 있겠는가. 흐르는 콧물을 연신 닦아내느라 오른쪽 소매끝이 항상 딱딱했다. 흙을 만지며 노니 옷에 흙이 묻는 것이고 손톱에는 때가 길 수밖에 없다.

동굴탐험이 지겨우면 눈에 가 개구리를 잡아 구워 먹었다. 과자가 그리우면 매뚜기를 잡아 구웠다. 가을이면 들판에서 깡통을 구해 불놀이를 했다. 이것도 지겨우면 들판이 아닌 뒷산에 올라가서 불놀이를 하다 산을 홀라당 태우기도 했다. 그

● '낭독'이란 행위의 은근한 즐거움을 일깨워준 데에는 아무래도 TV프로그램 <낭독의 발견>의 공이 크다. 그전까진 낭독이라 하면 3.1절 기념행사의 독립선언서 낭독, 고등학교 시절 문예반 학생들이 주최하는 '문학의 밤' 행사의 시 낭송, 학교 졸업식의 송사, 감사 낭독... 대략 이런 것들을 떠올렸던 것 같다. 웬 일인지 그런 낭독들은 오래 한껏 고양된 억양, 판에 박은 듯한 말투로 이루어지게 마련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게으르게 TV를 보고 있노라니 황지우 시인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고 그의 시를 래퍼들의 랩송으로, 배우 박광정의 모노드라마 같은 연기로, 또 시인 자신의 낭송으로 전해주고 있었다. 동공이 커지고 귀가 쫑긋했다. 고리타분하거나 촌스러운 느낌을 주던 '낭독'의 재미를, 또 그 다양한 가능성을 그야말로 '발견'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이름 한번 참 잘 지었다.

문학 낭독공연, 청각성과 현장성

요즘 다양한 낭독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작가들이 모여 산다는 연희문학창작촌에서는 매월 <연희목요낭독극장>이란 이

름으로 책장에 새겨진 활자를 무대 위에 불러 세우고 있다. 또 지난겨울에는 홍대 앞 산울림소극장에서 <산울림 낭독페스티벌>이 열려 다양한 방식의 낭독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나도 대학로의 동료 연출가들과 함께 <배우가 읽어주는 소설>이란 낭독공연을 마련했었다.

생각해보면 문학은 청각예술이다. 문학을 즐기는 일이란 책장에 코를 박고 거기 새겨진 활자를 읽어 내려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인쇄술과 출판이 발달한 근세 이후의 일이고 문학이란 자고로 청각예술이었다.

시인들은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시를 읊었고 어떤 시들은 노래가 되어 세상에 퍼져나갔다. 겨울밤 화롯가에서 할머니들은 손자·손녀들을 무릎에 누이고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손자·손녀들은 눈을 감고 그 이야기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책이 흔치 않던 시절 전기수라 불리던 사람들은 소설을 들려주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다고 한다. 사람이 붓을 들고 무언가를 써 내려간다는 건 어쩌면 그 글월이 읽는 사람의 귓전에 육성으로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행위였다. 그러니까 문학은 본질적으로 글월의 예술이 아니라 말의 예술, 즉 '어학(語學)'인 셈이다.

우리가 '낭독'의 즐거움을 깨닫게 된 건 바로 그렇게 문학의 청각성을 재발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 낭독을 오디오북 같은 것이 아닌 공연으로 즐길 적엔 현장성의 짜릿함이 더해진다. 그 순간, 그 공간에서만 생겨나는 아우라가 있을

상상 또는 여백, 낭독의 무한매력

낭독공연이 뜬다



다원공연 <소설가 구보씨의 1일>(박태원 원작, 성기웅 연출, 두산아트센터, 2010). 서울문화재단 다원공연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작.

것이다. 그때 거기 모인 그 사람들하고 공유하기에 피어나는 정서가 있을 것이다. 마치 옛날옛적 장터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반응이며 훈수 덕에 전기수의 이야기가 더더욱 흥미진진해 지듯이. 그렇게 해서 문학은 작가의 골방으로부터 독자의 골방으로 은밀하게 전달되는 복제된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 몸으로 나누는 짜릿한 그 무엇이 된다.

희곡 낭독공연, 예술가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예술

인쇄나 복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극단원들에게 주어진 대본이 몇 권 되지 않았다 한다. 근대적인 연기술을 확립한 100여 년 전 러시아의 스타니슬라브스키가 쓴 연기론 책을 보면 단원들이 새로 공연할 작품의 대본을 어떻게 접했는지 알 수 있다. 모두 모여 앉아 누군가 한 사람이 희곡 전체를 읽어 내려가는 것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 그것이 첫 대본 독회였다. 셰익스피어의 배우들도 우리나라의 신파극 배우들도 저마다 대본 한 권씩을 가질 수가 없었다. 기껏해야 자

기 대사만을 떼어다 옮겨 적을 뿐이었다. 연습 기간도 부족했기 때문에 요즘처럼 완벽하게 대사를 암기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공연 때는 관객 모르게 숨어서 대사를 불러주는 프롬프트에 의지해 연기를 했다. 그러니까 희곡 역시 예전에는 입에서 귀로 전해지는, 그러니까 목소리를 타고 전해지는 청각의 예술이었던 셈이다. 희곡 역시 본시 문학의 한 장르란 걸 생각하면 어쩌면 당연한 일일까?

유럽에서는 희곡 낭독공연이 꽤 친숙한 공연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주로 극작가의 신작 희곡을 미리 선보이고 검증하기 위해서 열리는데, 무대 장치는 생략한 상태에서 배우들이 배역을 나누어 맡아 희곡을 들려준다. 무대, 조명, 의상을 온전히 갖춘 상태에서 완벽한 환영 아래 연극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연의 몇몇 요소를 덜어낸 채로 보고 듣는 공연이다.

7월 남산예술센터에서 열린 <상주극작가 낭독공연>은 남산예술센터의 상주극작가인 김지훈, 동이향의 신작 희곡을 미리 감상하는 자리였다. 또 2008년부터 한일연극교류협회가 격년으로 마련하고 있는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은 세 편의 현대 일본희곡을 번역하여 소개하는 행사로, 그중 <억울한 여자> 같은 작품은 본공연으로 이어져 거듭 재공연을 하는 인기 작품이 되기도 했다. 그 밖에도 많은 희곡 낭독공연이 이루어지며 한국 연극의 레퍼토리를 살찌우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희곡 낭독공연이 꽤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희곡 낭독공연의 묘미는 연극 작품의 여러 요소 중에서도 희곡이 품고 있는 말에 집중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어 이외의 요소들이 최소한으로 생략되면서 관객의 상상력이 발휘되기 시작한다는 데에 있다. 관객들은 배우들이 들려주는 대사를 실마리로 저마다의 나름으로 완성된 무대를 상상하며 낭독공연을 즐긴다.

창작자의 상상을 그대로 관객에게 주입하기보다 관객의 상상력을 최대한으로 자극하고자 하는 것- 이견 많은 현대의 예술가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예술 행위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희곡 낭독공연은 미완의 공연 형태가 아니라 관객에게 많은 여백을 남겨주는 새로운 공연 장르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다성성(多聲性)의 무대로 진화하는

문학성과 공연성, 그 사이에 낭독공연이 있다. 그런데 골방의 글자들이 너른 극장 무대로 옮겨가는 그 길이 참 여러 갈래일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난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처럼 설렌다. 연출가로서 나는 낭독공연을 수많은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블루오션처럼 느끼고 있다.

작년 대학로의 작은 소극장 선돌극장에서 아침 공연으로

시도했던 <배우가 읽어주는 소설>은 네 연출가가 각기 한 편씩 한국 현대 단편소설을 골라 낭독공연을 연출하는 것이었는데, 소설 문장을 연극 대사로 각색하지 않고 문장 그대로를 전한다는 원칙 아래 나를 포함한 네 연출가는 각기 다른 길을 택했다. 최진아 연출은 윤대녕의 <천지간>의 문장을 세 배우에게 나눠 말하게 함으로써 1인칭 시점의 소설 문장으로부터 여러 겹의 목소리가 배어 나오도록 했다. 최명숙 연출은 김경옥의 <위험한 독서>에 나오는 두 인물에 딱 어울리는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그들을 연기하도록 했다. 그랬더니 과거형 문장으로 쓰인 1인칭 화자의 진술은 관객에게 현재진행형으로 건네는 내레이션이 되고, 현재형 대화로 쓰인 따옴표 안의 말들은 두 배우에 의해 재연되는 과거 회상 장면처럼 끼어들었다. 하일호 연출은 문순태의 <대바람 소리>를 비교적 평이하게 낭독하는 가운데 관객을 등장인물 중 한 명으로 끌어들이는 시도를 했다. 나는 박완서의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을 연출했는데, 영상 프로젝터를 써서 소설 중 어려운 단어에 대한 풀이 자막을 내보내거나 1950년대 신혼 시절 이야기에서 당시 풍경과 풍물 사진을 틀거나 했다. 그랬더니 박완서 작가의 유족이 공연을 보시고 소설 속에 나오는 작가 자신의 결혼식의 실제 영상을 건네주셨다. 그래서 올해 재공연 때에는 공연 도중에 낭독을 멈추고 관객들과 함께 그 영상을 보기도 했다.

<낭독의 발견>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느끼는 일인데, 어떤 시나 소설을 가장 잘 낭독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그 글을 쓴 시인이나 소설가인 것은 아니다. 글을 쓴 작가는 그 글에 담은 생각과 감정을 가장 잘 알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꼭 퍼포



연희목요낭독극장.

머로서 그걸 오롯이 잘 전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또 한 가지, 작가가 쓴 텍스트 안에는 작가 자신도 모르는 목소리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 텍스트의 의미와 재미는 독자에 의해, 청중에 의해 새롭게 발견되어가는 법이니까.

어떤 한 가지 감정에 사로잡혀서 판에 박은 듯한 어조로 일관하는 단순한 낭송이 재미없고 촌스럽게 느껴지는 건 까닭이 있다. 이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라면 단 하나의 단어, 단 한 줄의 문장일지라도 뉘앙스가 단순하고 명료하게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한순간 동시에 서로 다른 의미, 다른 감정, 다른 톤을 떨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낭독공연이란 활자 아래에 잠자고 있는 '다성성(多聲性, polyphonic)'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이 될 수 있겠다.

지난겨울에 열린 <제1회 산울림 낭독페스티벌-우리 모두의 책 읽는 시간>의 프로그램을 보면 텍스트를 전달하는 다양 각색의 아이디어가 있다. 문학성과 공연성뿐만 아니라 음악성, 그리고 테크놀로지까지가 서로 서로 이종교배되고 있다. 이종교배란 무릇 무수한 혼종과 잡종을 낳을 수 있다.

작년 가을 페스티벌 장(場)의 한 작품으로 남산예술센터에서 공연된 설치미술가 양혜규의 <죽음에 이르는 병>을 보았다.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소설 텍스트가 담긴 공연이었는데 설치미술과 공연, 낭독과 연기의 경계를 드러내고 있는 듯했다. 이것 역시 낭독공연이랄 수 있을까? 이종교배는 때로 변종과 별종을 낳는다.

채움과 비움, 낭독공연의 어려움

이 글을 청탁하는 전화가 걸려왔을 때, 나는 마침 내년 초에 올릴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을 준비하는 회의를 하고 있었다. 누군가 희곡 낭독공연에 지나치게 많은 연출을 더하는 걸 경계하는 말씀을 하던 참이었다. 희곡 낭독공연을 하는 본연의 목적이 극작가가 써낸 세계의 밀그림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는데 연출자가 너무 많은 해석과 장치를 덧붙이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 무엇보다 관객의 상상력까지 침범해 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옳은 말씀이지만 연출가 입장에서는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두 시간 가까운, 때론 두 시간이 넘는 작품을 그저 대사에만 의존해 들려준다면 관객들이 지루해할 테니까. 특히 현대의 희곡 작품이란 셰익스피어 시대처럼 멋진 대사의 문학성만이 중요하다 할 수 없다. 대사와 지문 사이사이의 행간에 다양한 공연적 요소가 잠재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설 낭독공연 <어둠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박완서 소설, 성기웅 연출, 선릉극장, 2010).

낭독공연을 연출할 때면 배우들의 등퇴장이나 배치에 변화를 주고 상징적인 구조물이나 효과 등 연출적인 고안을 동원하게 되는 것이다. 극작가의 상상과 관객의 상상을 헤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도 중립적인 연출을 하고 싶지만 주관적이지 않은 해석, 개성을 배제한 연출이란 게 과연 얼마나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

이 글을 다 쓰고 나면 나는 새로 준비하는 소설 낭독공연의 회의에 가야 한다. 동료 연출가인 추민주, 김한내와 함께 김연수, 김애란, 김미월의 단편소설을 각기 낭독공연으로 연출해보기로 했다. 연출 콘셉트는 각기 다르지만 우리의 고민에는 공통점이 있다. 어찌 되었든 소설을 무대 위로 끌어 오는 일이란 문장에 어떤 형태를 부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독자가 상상했던 이미지가 실체가 되어 출현했을 때 그게 그 상상을 헤치거나 기대에 못 미치면 어쩌나. 마치 베스트셀러 소설을 각색한 연극이나 영화가 원작 독자들의 외면을 받듯이.

우리는 아무래도 3D영화까지 나와 창작자의 상상을 끝간 데 없이 구현하고 있는 영상 매체와는 다른 길로 가야 할 것 같다. 관객의 상상력을 믿을 것. 관객에게 최대한의 여백을 남겨줄 것. 관객의 상상을 부풀리도록 다성적이고도 다의적인 자극을 가할 것. 하지만 그건 말처럼 쉽고 간단하지 않다. 얼마나 채우고 어떻게 덜어내지? 무얼 내밀고 무얼 감춰야 좋지? 어디까지 친절하고 어디서부터 내버려둬야 되지? 아직은 답을 모른다. 낭독공연 연출은 그래서 더 즐겁다.

● 길고 지루한 장마와 습막히는 무더위로 도시 생활이 힘들게 느껴지는 요즘, 온 가족이 함께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작심하고 도심을 탈출한다 해도 휴가철을 맞아 교통체증 극심하고 인파로 북적거리는 곳에서 진정한 ‘휴가’를 즐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이럴 땐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 예술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심 속 휴양지를 찾아 떠나는 것이다. 온 가족 CQ(Culture Quotient, 문화지수)를 높여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특별한 여름을 꿈꾸는 어른들에게 손짓한다.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CQ는 한 사람의 문화 정서와 교양을 나타내는 지성 지수를 말한다. 지능의 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IQ(Intelligence Quotient)가 중시되던 시대가 가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하는 EQ(Emotional Quotient)가 화두로 떠오른 적이 있다. EQ는 미국의 심리학 저술가인 대니얼 골먼이 저서 <감

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에서 처음 제시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는데, 미국의 교육학자들은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지 못하는 아이가 학교를 중퇴할 확률이 8배나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아기부터 사회적 공감능력을 키우는 감성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CQ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현대 사회는 개인적 능력인 IQ나 사회적 능력인 EQ를 뛰어넘어 서로 다른 문화와 영역, 계층 간의 소통이 매우 중시되는 ‘융합의 시대’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타 문화에 대한 적응과 응용, 소통을 원활하게 해내는 이들이 주목받게 된다. 이러한 능력을 CQ라고 하는데, 특히 ‘글로벌 경영’을 고심하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글로벌 경쟁력은 문화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선언하며 앞다퉈 문화예술 체험에 나서면서 아이를 미래의 인재로 키우고 싶어하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화지수 쑥쑥 올라가는 알뜰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IQ? EQ? 이제는 CQ를 높여라



CQ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꾸준히 하는 것이다. 이런 체험을 통해 감수성과 창의력을 키우고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는 한편 자기만의 독특한 시각과 느낌을 다른 이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CQ 짙은 21세기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올여름 서울문화재단에서 마련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히 미술 전시를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품에 대한 교육과 체험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오감만족 미술체험 프로그램, 문화계 인사를 초청해 어른들의 잠든 문화지성을 일깨우는 강좌 프로그램, 온 가족이 다 함께 문화체험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는 갤러리형 북카페와 어린이들을 위한 구연동화 등 CQ를 높여주는 프로그램이 풍성하다. 그 중에서도 '문화술프로젝트'는 복합쇼핑몰 가든파이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와 나들이하는 기분으로 쇼핑도 할 겸 프로젝트에 참여한 엄마들을 중심으로 입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3



4

1·3·4 <아이스쿨>
2 <만드는 가드너> 예코 놀이터.



2

● 하늘 위 세상을 꿈꾸는

<어린이 특별전시 - 하늘만큼 땅만큼展>

아이들이 바라보는 하늘은 어떤 모습일까? 풀밭에 누워 여름 하늘을 올려다보는 상상을 해보자. 파란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이 둥실 떠다니는데, 비행기 한 대가 하얀 연기로 또 다른 구름을 만들어 날아간다. 고개를 돌려 풀밭을 둘러보니 군데군데 하얗고 풍성한 민들레 홀씨가 구름을 닮았다. <어린이 특별전시-하늘만큼 땅만큼展>은 즐거운 상상의 공간인 하늘과 엄마 품처럼 편안한 땅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노동식, 로리킴, 방선미, 백민준, 유주현, 이재민, 그린차일드 등 아이 같은 천진함을 지닌 작가들이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솜과 천, 철사, 종이 등의 소재에 기발한 상상력과 독창적인 표현력을 더해 완성한 환상의 세계가 펼쳐진다.

전시는 가든파이버 지하1층 라이프 스프링 플라자에서 오는 8월 21일까지 계속되며, 작품과 작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더욱 풍성한 미술전 체험을 하고픈 이들을 위한 '도슨트 프로그램'은 평일 오전 11시와 오후 12시 30분, 주말 오후 1시와 4시에 운영된다. 굳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도심 속에서 온 가족이 활짝 열린 여름 하늘과 풍요로운 대지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다.

일시	2011년 8월 21일까지 (도슨트 평일 오전 11시, 오후 12시 30분 / 주말 오후 1시, 4시)
장소	가든파이버 지하 1층 스프링플라자
문의	02-2157-8771

1·3·4 <아띠스쿨>
2 <만드는 가드너> 에코 놀이터.

● 다양한 미술교육에서 체험까지 이어지는
<아띠스쿨>

어린이 미술교육 프로그램 <아띠스쿨>은 전시를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시 주제를 토대로 다양한 미술교육과 체험까지 이어지는 본격적인 CQ 강화 프로그램이다. 가든파이프 지하 1층 라이프 스프링플라자에서 오는 8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 두 차례(오후 2시, 4시 30분) 열리는 <아띠스쿨>에는 만 5세부터 초등 6학년까지 미술에 관심 있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아띠스쿨>은 먼저 어린이 눈높이에 꼭 맞는 도슨트 해설을 들으면서 기획전시를 관람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번 기획전은 앞서 소개한 어린이특별전시 <하늘만큼 땅만큼>으로, 상상의 하늘을 주제로 한 설치작품들이 전시된다. <아띠스쿨>에서는 이 전시를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두 개의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매주 일요일에 열리는 '스카이콩콩'은 아이들의 손으로 벽화를 완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늘 우리 곁에 있기에 항상 같은 모습일 거라 착각하게 되는 하늘과 땅은, 자세히 보면 참으로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 변화무쌍한 존재다. 땅속 개미굴부터 하늘을 뚫을 듯 기세 좋게 피어오른 버섯구름까지, 아이들이 보고 상상한 하늘과 땅의 모습을 벽화에 담는다. '스카이콩콩'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6주반(드로잉 형식으로 6주 동안 벽화 전체 완성)과 4시 30분에 열리는 2주반(주제에 맞춰 플라스틱이나 천, 나무, 스티로폼, 종이 같은 산업재료를 활용해 벽화 꾸미기) 등 두 가지 강좌로 구성되며 매 강좌당 90분가량 소요된다.

매주 토요일에는 기획전을 관람한 뒤 '흔들흔들 구름가방'이라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흔들흔들 구름가방은 소소한 일상의 풍경과 다양한 하늘의 모습을 소재로 아이들이 직접 만드는 '입체 가방'이다. 가방의 원단은 투명필름인데, 이 투명필름을 여러 개의 페이지로 구성한 뒤 각 페이지의 이미지를 전시 작가들이 작품에 활용한 슝, 셀로판지 등으로 꾸며 공간감과 원근감이 돋보이는 입체가방을 만들면 된다. 입체가방 만들기 체험은 60분 동안 진행된다.

일시	2011년 7월 16일~8월 21일 매주 토·일요일 오후 2시 / 4시 30분
장소	가든파이프 지하 1층 스프링플라자
대상	흔들흔들 구름가방(토요일) 초등학생 20명 스카이콩콩(일요일) 초등학생 15명
접수	문화술프로젝트 블로그 www.g5culture.com
문의	02-2157-8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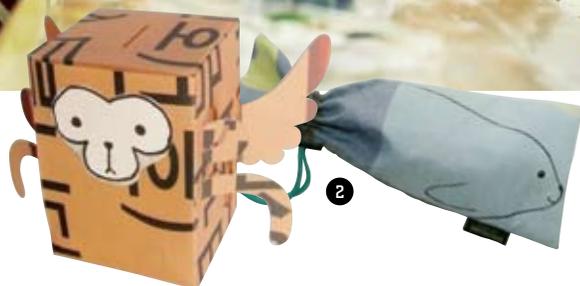


● 우리 가족은 예술가
<만드는 가드너>

온 가족이 함께 CQ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가드너>를 추천한다. '가드너'는 가든파이프 시민예술가라는 뜻으로, <만드는 가드너>는 어린이는 물론 온 가족 모두 예술가가 되어보는 색다른 미술체험 프로그램이다. 가든파이프 지하 1층 라이프 스프링플라자에서 오는 8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 두 차례(오후 1시, 3시) 열리는 <만드는 가드너>에서는 각종 재활용 재료를 이용한 만들기 체험을 해볼 수 있다.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에코 놀이터'는 쓸모없게 여기기 십상인 도시의 자원을 재활용해 자신만의 소품을 제작하고 친환경 생활 실천법을 배우보는 도시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다. 오후 1시 강좌에서는 현수막을 활용해 멸종위기 동물의 파우치를 만들고, 오후 3시 강좌에서는 지하철 광고판으로 만능저금통을 만들어볼 수 있다. 매주 일요일에는 부모와 아이들이 집에서 사용할 비누를 직접 만들면서 가족의 사랑과 건강을 함께 지키는 '천연비누 만들기' 강좌가 열린다.

일시	2011년 7월 16일~8월 21일 매주 토·일요일 오후 1시 / 3시
장소	가든파이프 지하 1층 스프링플라자
대상	에코놀이터(토요일) 초등학생 15명 비누만들기(일요일) 누구나 20명
접수	문화술프로젝트 블로그 www.g5culture.com
문의	02-2157-8771



● 오감이 즐거운 책 읽기
〈아띠북카페 구연동화〉

책을 눈으로만 읽는다고 생각하는 당신은, 잠자는 CQ 계발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할 듯하다. 서울문화재단이 마련한 문화술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아띠북카페 구연동화〉에 참여하면,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며 다른 이들과 느낌을 공유하는 오감 만족 책 읽기를 체험할 수 있다.

구연동화는 가든파이프 영관 9층에 있는 갤러리형 북카페 '아띠북카페'에서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일요일 오후 2시, 5~7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마련된다. 단순히 책을 실감나게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책 내용을 토대로 퀴즈 맞추기, 손유희 등 유아들이 책에 대한 호기심과 풍부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다채로운 놀이 프로그램이 더불어 진행된다. 8월 7일에는 창작동화 〈빨간 압타프〉의 등장인물이 되어 그림책 읽어보기, 8월 21일에는 과학동화 〈하마는 엉뚱해〉를 통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동물의 특성을 알아보는 시간이 준비돼 있다. 문화술프로젝트 블로그(www.g5culture.com)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하면 매회 선착순 15명을 선발하는데, 워낙 인기가 많아 순식간에 마감되기 때문에 블로그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시	2011년 12월까지 매월 1주·3주 일요일 오후 2시
장소	가든파이프 영관 9층 아띠북카페
대상	5~7세 미취학 어린이 15명
접수	문화술프로젝트 블로그 www.g5culture.com
문의	02-2157-8771

● 재활용 아트 프로젝트
〈바퀴 달린 새의 동물원〉

청소년들의 CQ 향상을 위해 영등포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뭉쳤다. 문래예술공장에서 진행되는 〈바퀴 달린 새의 동물원〉은 쓸모 없어진 다양한 폐품과 재활용품에 동력장치를 결합해 움직이는 조형작품을 만드는 재활용 아트 프로젝트로, 참여한 청소년들은 실제 예술가들의 스튜디오에서 작품을 만들고 완성한 뒤에는 직접 전시를 기획하고 작품 발표도 한다. 〈바퀴 달린 새의 동물원〉은 오는 11월까지 매월 두 차례씩 열리고, 참여한 청소년들의 작품을 모아 오는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 전시회를 갖는다.

일시	2011년 9월 3일, 27일 / 10월 1일, 15일 11월 5일, 9일 오후 2시~5시
장소	M30
대상	영등포 지역 청소년(중학생) 한 회당 3팀 모집
문의	02-2676-4333

● 문학이 탄생하는 공간 이야기
〈젊은 작가 주간〉

어른들의 CQ를 높여줄 재미있고 유익한 강좌. 연희문학창작촌 문학미디어랩에서 열리는 〈젊은 작가 주간〉은 일반 시민들에게 문학예술 창작에 대한 참여와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2011년 〈젊은 작가 주간〉에는 오은(시인), 조해진(소설가), 김남중(아동문학가), 박춘근(희곡작가) 등 현재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주목받고 있는 4인의 작가가 초청돼 문학이 탄생하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일시	2011년 8월 9일~12일 오후 7시~9시
장소	연희문학창작촌 문학미디어랩
대상	문학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문의	02-324-4600



10th 한국실험예술제 Performance must go on!

● 자신의 죽음마저 퍼포먼스로 이끈 백남준은 “비디오테이프와 달리 인생은 되감기가 없다”고 했다. ‘퍼포먼스 아트’는 그렇게 삶을 ‘찰나’로 구현한다. 처음 접한 사람이 당황하는 건 기본. 35년 만에 귀국한 백남준은 “예술은 고등 사기다. 대중을 얼떨떨하게 만드는 것”이라 했다. 그렇게 퍼포먼스 아트는 삶처럼 실시간으로 작동한 후 ‘연기’처럼 사라진다. 그래서 낯설지만 기실 삶과 살을 맞댄 다원예술이며, 그 시간은 과거 아닌 미래로만 흐른다.

‘권불십년’의 고사를 비웃듯 10년째 여름마다, 홍대 앞에서 ‘퍼포먼스 아트’에 집중하는 작고 강한 축제가 있다. 한국실험예술제(Korea Experimental Arts Festival). 퍼포먼스 아티스트로 유명한 김백기 예술감독의 추진력으로 시작된 페스티벌은 올해 열 둘이다. 2000년 설립한 한국실험예술정신(이하

KoPAS)이 예술제의 모태가 됐다. 다른 장르에 비해 저변이 열악했고 복합적 성격이 강했던 실험예술은 공공지원을 받기도 어려웠다. “당시만 해도 다원예술 분야가 따로 없었다. 연극, 무용 등 여러 곳을 문의하다 2001년 처음 인디, 퍼포먼스 분야가 신설되며 가능해졌다”고 그는 기억했다. ‘퍼포먼스’를 관객과 호흡하려 내놓은 복안이 ‘하우스예술파티’. 9년간 300여 명의 작가가 250회를 공연했고, 5천 명 관객이 동참했다.

축제에 5년간 개근한 팀이 둘 있다. 에스토니아의 논 그라타(Non Grata)팀은 예술제에서만 무려 스무 가지가 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타계 트로스가 벌거벗은 몸에 붙은 고기를 직접 인두로 지지는 <연금술사>가 유명하다. 두 번째는 ‘영혼의 춤’ 부토의 명인 후지에다 무시마루. ‘천연육체시인’ 무시마루는 늘 수많은 제자와 동반한다. 심지어 다섯 살 난 아들과도 공동 퍼포먼스를 펼칠 만큼 예술제에 애착이 강하다. 올해도 그들은 당연히 참석한다. 해외작가의 참여나 합동 퍼포먼스는 페스티벌에 머물지 않았다. 논 그라타와 김 감독이 예술제에서 만난 각국의 아티스트들은 ‘다



이버스 유니버스(Diverse Universe)라는 7개국 유럽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유럽 전역 15개 지역을 두 달간 순회한 프로젝트는 3년째 계속되고 있다.

올해 한국실험예술제의 슬로건은 3년간 계속된 ‘예술도시 생성프로젝트’의 마지막 편 ‘확장’이다. 쉽게 말해 ‘홍대 앞을 퍼포먼스로 뒤덮고 도시 전체를 예술공간으로 만들자’는 말이다. 강산처럼 홍대 앞도 변했다. 2000년 초입 1,000여 명이 넘던 아티스트는 40~50명 수준으로 줄었다. 문화단체들도 서너 곳을 제외하면 모두 떠나버렸다. KoPAS도 지난봄 홍대에서 떠나려 고민했다. 개관 2주년을 맞은 서교예술실험센터의 공간 지원으로 이뤄진 이번 한국실험예술제는 하지만 변함없이 ‘예술도시’를 꿈꾼다. “내년에는 홍대가 아니라 당인리 발전소에서 멋지게 공연하고 서울 전역으로 뻗어나갈 생각”이라는 그들의 바람이 자연스럽게 실현되기를 바란다.

제10회 한국실험예술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 분야 정기공모 사업에 선정된 축제로, 7월 23일~7월 30일 까지 비보이극장, 서교예술실험센터를 비롯한 홍대 앞 일대에서 펼쳐진다. 축제 기간 동안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전시장과 지하 다목적 공간 등이 행사장으로 변신하여 다양한 전시는 물론 한국실험예술제의 본부로도 사용된다. 서교예술실험센터는 2009년 6월 개관 이후 홍대 앞 문화 네트워크 지원과 서비스를 추구하면서 홍대 앞을 지키는 또 하나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실험예술제 홈페이지 www.keaf.co.kr

글 김수경 영원한 글쟁이의 삶을 꿈꾸는 자유기고가. <씨네21>의 기자로 일했으며, <고고70>의 시나리오를 썼다.

● 한국실험예술제 김백기 예술감독

한국의 실험예술 10년, 홍대 앞을 세계적인 메카로

1990년대 홍대 앞을 지주 오갔다면 ‘황금투구’ ‘발전소’를 기억할 것이다. 한국실험예술제의 김 감독은 한때 거기 주인이었다. 그곳에서 김 감독은 사장보다는 퍼포먼스 아티스트였다. “공간을 운영하는 것도 퍼포먼스의 일환이라 생각했다”는 후일담. 홍대 미대를 다녔고 1985년부터 지금까지 토박이로 지낸 그는 항상 눈앞에 닥친 열 돌의 ‘한국실험예술제’와 문화공간 ‘홍대’를 동시다발적으로 사고한다. “수년간 예술제에 참여한 작가들의 공통분모는 세계 어디에도 여기보다 즐겁고 체계적인 실험예술제가 없다”며 흐뭇해한다. 그래서 김 감독은 한국이 “다원예술적인 퍼포먼스가 지배적인 흐름인 지금, 홍대 앞이 세계적인 실험예술의 메카가 될 수 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페스티벌에 대한 성격 규정은 곧바로 문화공간 ‘홍대’의 이야기로 옮겨간다.

그가 말하는 홍대 앞의 문화적 특성은 두 가지다. “첫째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다원문화지역. 인디밴드 400~500개, 그림 그리는 사람이 수천에 이르고, 출판사나 카페가 수백 곳이 넘는다.” 그렇다. 일명 멀티컬처 지역. 둘째는 글로벌이다. “홍대 앞처럼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며, 한국문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곳은 드물다”라는 견해.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냉정한 현실에 대한 개탄도 이어진다.

급격히 유입된 상업자본에 의해 2000년대 중반부터 아티스트들이 외곽으로 말 그대로 떠내려갔다. 밀려다 못해 떠난 사람이 태반이다. 김 감독은 남아 있는 사람들과 얼마 전 ‘홍대 앞 문화예술회’를 만들었다. “젊은 작가들이 새로 유입된 힘드니까 더 악화되는 거라도 막자”는 방어적 취지였다. 많은 이가 바라고 당인리발전소가 표방했듯, ‘문화발전소’를 만들면 떠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까. 폐공장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던 런던의 테이트모던 지역이나 베이징의 798예술단지를 생각해보자. 공공성을 담보하며 도시의 명소가 될 만한 멋진 예술공간이라면 가능하리라. 그때는 그림이나 퍼포먼스를 넘어서는 새로운 예술이 피어날지도 모르겠다.



© 오계옥



1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새로운 길을 찾다

02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높이기

최근 붐을 이루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이 문화예술 분야와 결합하여 사회적 가치 생산과 동시에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새로운 길을 찾다'를 주제로 7월부터 기획연재를 시작했다.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기업에서 서울문화기업으로' 차별화를 선언한 서울문화재단의 이야기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성공열쇠로서 강조되고 있는 지역과의 연계를 화두로 설정했다. 사회적기업이 아니면서 지역 활성화와 사회적가치 생산을 누구보다 많이 담당하고 있는 문화기업 감자꽃스튜디오 이선철 대표의 논점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짚어보았다.

●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필자는 편집진에게 일부러 위의 제목을 그대로 붙여달라고 부탁했다. 이것들이 요즘 얼마나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게 되는 문화정책의 화두인가를 새삼 강조하려는 의도였는데, 마지막의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를 '재단', '정책', '사업', '축제' 등 다른 말로 바뀌어도 그 논지를 전개해나가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한 거창한 정책 비전과 현학적인 수사, 그리고 추상적으로 포장되는 성과들에 의해 사회적기업의 본질과 성과가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염려도 내포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서 '지역과

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기업의 취지와 역할에 충실하면서 꼬리표처럼 붙어 있는 '지역기반과 문화예술 활용' 그리고 '지속가능'하려면 어떤 전략과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현재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성공적인 사회적기업의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은 그 정의와 개념이 대단히 포괄적이고 중의적이다. 여기서 규정하는 '지역'은 서울과 그 외의 지역으로 나누던 지방(local)의 개념과는 달리 개별적으로 대등한 주체적 지위를 가진 지역(region)이며, 이는 단순한 인구학적 집합체를 넘어서서 유기적인 인적 공동체의 개념(community)까지 포함해야 한다. 특히 기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서는 시장(market)의 의미로 인식되어도 무방하며 마케팅적 관점에서는



2

- 1 지난 5월 28일, 감자꽃스튜디오와 동부오리 일대에서 진행된 <감자꽃 마을축제-분교로 가는 봄소풍>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 프로젝트도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온 예술가, 관광객까지 함께 소통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 감자꽃스튜디오
- 2 '또따또가'의 2010 문화예술축전 '또따또가'는 부산광역시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중구 중앙동 40계단 주변과 동광동 빈 상가 18곳을 리모델링하여 개관한 예술 창작공간이다. 최근 봄을 이루고 있는 문화예술을 활용한 도심재생 프로젝트의 성공 요소는 참여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이다. © 또따또가

장소(place)의 속성도 가질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역이 물리적 개념이든 추상적 개념이든 실제로는 정체성과 독자성을 가진, 많은 유·무형의 자원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자원조사나 매핑(mapping)이니 하는 것들이 무슨 대단한 방법론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지리적, 인구학적 사실관계의 정리를 포함하여 지역의 잠재적 자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와 의미는 무엇이며 그중 활용할 만한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일차적인 파악과 기본적인 인식의 정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은 그 자체적인 환경만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의 자원이 많다고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는 자원은 별로 없는 것에 대한 고민도 심각하며, 또한 자원이라 하여 모두 콘텐츠나 상품으로 단계적인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한 냉철한 점검도 필요한 것이다. 게다가 지역의 특성상 오랫동안 지연과 학연, 혈연 등에 기인한 단단한 역학 관계에서 오는 배타성이나 각종 정책과 사업에 있어서의 권력화된 토착 집단의 영향력 등은 지역의 건전한 혁신이나 새로운 유입 및 교류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지역에 기반한 많은 단체나 기관은 그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지에 대해 역설하며 지원의 확대나 기회의 증진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 또한 빈약한 논리와 타당성의 부족으로 그 적절성과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에 기반한다는 것은 '지역의'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것을 넘어서는 문제이다. 지역의 전반적인 자원의 가치와 의미를 인식하고 그중 선택하고 집중할

것을 권유받고 있으나 결국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집중할 것인지에 대해 현장에서는 많은 고민이 따르고 그 기대효과를 어떻게 미리 예측하고 입증하며 다양한 활동과 사업의 소재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이 필요한 것이다.

문화예술을 활용한

최근 전 세계 많은 도시가 새로운 생존과 성장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 간의 경쟁으로 인해 도시들은 많은 방문객과 관광객을 유치하고 물류를 통과시키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아마도 최근 도시 정책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른바 창조도시나 문화도시로의 지향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삼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문화이며 문화는 새로운 가능성의 도구로 인식된다. 그런데 문화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역할 인식의 수준, 그리고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는 여전히 의심과 회의의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문화에 대한 개념과 현실적인 활용 전략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중요하며 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르며 그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술은 물론 유산, 역사, 전통, 의식주의 생활적 요소들, 생태나 복지, 문화예술교육, 산업 등 문화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개별 범주의 인식과 적용이 필수적이다.

문화는 사업이나 정책의 소재로 선택될 때 시장에서의 가능성과 차별성 및 경쟁력 제고의 측면에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며, 동시에 제약과 리스크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체의 실시 이후 각 지역이 독자적으로 정책이나 사업을 벌여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이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것은 긍정적인 흐름이지만 이것이 또 다른 기득권으로 발목을 잡는 경향도 있다. 문화는 분명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지만 또한 더디고 보편적이지 못하며 보이지 않게 스며드는 속성도 있으므로 보다 치밀한 소통과 이해의 과정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자생력과 경쟁력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여러 요소의 결합과 다양한 주체의 협업 체계이다. 관계자들의 역량과 지역의 수준, 효과적인 홍보 마케팅과 호의적인 여론과 논리의 형성, 시장의 지속적인 확보와 영업력, 네트워크 전략 등 수많은 요소가 효과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가능한 것이다. 좋은 정책과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기간에 끝나는 시점 이후는 자구적인 고민을 하여야 한다. 공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자생력을 갖추라는 요구가 주어지지만 그것이 그리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애초부터 동서고금, 선·후진 국가를 막론하고

문화는 가치제와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니 그 속성상 산업화된 영역에서 문화상품 같은 것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단지 효율성과 투명성의 제고, 지속 논리의 개발, 그리고 일정부분 분담의 방법으로 공공의 지원과 함께 민간 차원의 마케팅적 노력이 결합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

그런 맥락에서 인력의 양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재원이 있어도 인력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지만 사람이 있으면 당장 돈이 없어도 돈을 끌어오거나 돈이 찾아오는 수도 있다. 지역에서는 꾸준히 지역 인력의 육성과 유능한 외부 인력의 영입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역의 공동체가 정책이나 사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사람 중심의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 기반하여 문화예술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나아가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대안적인 주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기존의 예술중심의 문화단체나 고립된 공동체 또는 관료적인 기관이나 행정보다는 능동적이고 생산적이며 기업 마인드와 사회적 책임감으로 균형 있게 무장한 이른바 사회적기업, 착한기업, 마을기업 등이 탄생하게 된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측면까지 보태어져서 많은 정책과 지원이 수행되다 보니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현상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부터 말하면, 이는 일반기업을 하거나 이에 비영리단체를 표방하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만약 직접적인 정보보조금이 없었으면 이 형태와 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연 너도나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추구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는 결국 사업 내용의 변화나 혁신 없이 또 다른 지원을 좇는 피동적인 방법의 출현에 지나지 않으며, 단지 기존의 형식으로도 사업 내용이 사회적 가치에 충실하면 이미 사회적기업이나 다름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실질적인 조직이나 사업의 변화 없이 사회적기업으로 옷만 갈아입는 현상도 보게 된다. 즉 사회적기업으로의 변신이 또 하나의 생존 환경을 위한 대



안처럼 떠오르고 있다. 많은 극단, 기획사, 공간, 협회, 심지어 동호회 성격의 조직들도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표방하고 있다. 이들이 갑자기 일자리 창출의 선봉으로 각광받으며 많게는 수억 원까지 지원금이 제공되기도 한다. 그러다가 재인증 또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에 실패하거나 지원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지원을 찾지 않으면 조직이 유지되지 못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그동안 문화예술계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이나 민간 분야(Private sector)와 공공영역(Public sector)의 이분법적 구조 속에서 진일보하여 이제 그 틈새 또는 중간의 영역을 창출하며 제3의 섹터 또는 새로운 역할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분명 바람직한 추세라 할 수 있다. 일반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공공영역의 마케팅만이 만나는 접점에서 틈새의 역할과 전문성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러다보니 사회적기업은 문화예술계의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과연 '문화예술'을 활용한 콘텐츠의 개발에 '지역기반'이라는 전제와 '지속가능'이라는 의무가 지워지면 과연 건강한 기업으로서 성장하고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문화기업으로 살아남기

필자가 운영하는 감자꽃스튜디오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지원을 시도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왜 우리의 핵심가치를 지키기 위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해명을 하고 다니는 형편이



3



4

- 1,2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문전성시)의 일환으로 춘천 중앙시장에서 진행된 <춘천 낭만시장>. © 김자꽃스튜디오
- 3 주문진 수산시장 옥상 작은 무대에 만들어진 공치극장. © 김자꽃스튜디오
- 4 사회적기업 이음은 지속가능한 농촌산업 모델 및 테마 개발을 위한 농촌마을 컨설팅과 우리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주한옥생활체험관 등을 운영한다.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되었다. 필자가 운영하는 단체는 그 특성에 맞게 유연한 노사 관리를 바탕으로 완전 자율근무 시간제의 활용, 소수정예지만 지역출신 인력의 채용과 육성, 자연친화적이고 유목민적인 업무환경을 지향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워크의 적극적인 실천, 상하 직급관계식 조직문화의 탈피,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의 소통문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원들을 위한 최고의 교육 복지 등의 투자 등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에 적합한 다양한 경영기법을 이미 시도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 후 관리적 측면의 제약과 행정 업무의 부담이 예상되는데, 일시적인 지원을 위해 이런 독창적인 경영 문화를 침해받고 싶지는 않다. 무엇보다도 사회적기업이라는 조직형태 자체가 기업의 생존이나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크게 끌리지 않는 이유다.

사회적기업도 결국 기업이다. 캠페인이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어디까지나 비즈니스의 주체이다. 공공의 지원이나 사회적 가치의 추구를 강조하지만 결국 기업의 평범하고 기본적인 속성과 미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건전한 수익을 창출하여 시장에서 살아남아 고용을 유지하고, 이를 위

한 경영 전반의 제반 의무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다. 기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하며, 영업과 지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지속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성장을 도모하는 일에 예외일 수는 없다. 결국 생존의 문제는 정책과 지원의 유무가 아니라 CEO와 스태프들에 달려 있는 것이다. 유사한 형태의 이른바 외국의 선진형 사회적기업도 현장 중심으로 활발히 자체 사업을 개발, 수행하며 이에 끝나지 않고 이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와 성과 그리고 전략들을 소재로 교육, 컨설팅, 출판, 콘텐츠 등의 형태로 적극적인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환경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사회적 가치의 철학을 유지하며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의 기획과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으로 무장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스타기업의 등장이 필요하다. 필요시 공공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프라를 조성하고, 자체적으로는 투자에 의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며, 홍보와 마케팅에 의해 판매하고, 다시 정부나 도시 또는 지역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그 지식과 경험을 유통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산업이자 창조산업의 전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사업은 결국 사람의 문제로 귀결된다. 궁극적으로 이와 관계된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재의 양성과 고객의 관리에 적극적이며 내부 고객이든 외부 고객이든 모두 하나의 공동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기업의 실질가치를 창출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글_ 이선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와 영국 런던의 시티대학교 문화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김덕수패시물놀이(사)한울림 기획실장과 공연·음반제작 벤처기업 폴리미디어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는 지역의 유류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네트워크(주)김자꽃스튜디오의 대표이며,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아빠는 슈퍼맨

어릴 적엔 아빠의 손을 잡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말만 하면 들어주던 아빠. 날고 싶다고 하면 번쩍 들어 올려
뽕뽕 몸을 날려주는 요술램프의 지니가 따로 없었다.
배 나오고 머리는 빠졌지만 졸졸이 파란 타이즈에
빨간 팬티를 입은 아빠는 슈퍼맨이다.

가든파이크 〈나도 아티스트, 우산디자인〉展

사진·글 최성열





초라한 현실을 감추는 서정적 비가 悲歌

극단 실험극장의
〈바람이 분다〉

● 최창근 작, 류주연 연출의 〈바람이 분다〉가 극단 실험극장의 제 171회 정기공연으로 무대에 올랐다. 2010년 창단 50주년을 맞았던 실험극장은 2011년 첫 공연으로 젊은 작가 최창근의 신작을 골랐다. 최창근 작가는 실험극장과 인연이 깊다. 데뷔작인 〈봄날은 간다〉(2001)를 실험극장에서 공연했고 두 번째 희곡 〈서산에 해 지면은 달 떠온단다〉 역시 2003년 실험극장의 무대에 올랐다. 〈13월의 길목〉(2009)에 이어 최창근 작가가 오랜만에 선보인 〈바람이 분다〉는 작가 특유의 따뜻한 시선이 배제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쓸쓸하고 외로운 무대였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추억이 된 기억을 불러내다

공연이 시작되면 구은혜와 이희순이 디자인한 비사실적인 무대가 광활하게 펼쳐진 무대 앞쪽 구석에 자리 잡은 세 인물은 바다 소리 들리는 그림 속 무심한 배경처럼 앉아 있다. 무대는 공간을 분할하는 바닥면 이외에 별다른 오브제 없이 간결했고, 호흡을 맞춘 세 명의 배우 이승훈, 최광일, 조운미의 연기 역시 담백하게 절제되어 있었다. 풍경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풍경화 속에 풍경의 사소한 일부처럼 자리 잡은 세 인물이 만들어내는 정지된 첫 장면들은 일종의 프롤로그다. 정지된 화면 속에 포착된 이들은 다



정하고 행복하게 장난을 치며 여유로운 일상을 보여주지만, 그것이 정지된 화면 속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 심상치 않다. 마치 지나간 추억을 순간의 정지 화면 속에 붙들어 잡아맨 사진이 그러하듯이, 그들의 행복은 지금은 느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영원한 과거일지도 모른다는 인상을 준다.

아니나 다를까, 프롤로그가 끝나고 두 사내의 이야기가 시작되면 흰색과 푸른색이 만나 더욱 확장되어 보이는 무대를 거의 비워놓고 두 사내는 무대 앞쪽 작은 공간에 앉아 있다. 이후 진행되는 공연에서 지금, 여기의 현실로 돌아왔을 때 두 사내는 늘 그 작은 공간에 위치한다. 두 사내에게 그곳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공간인데, 구체적으로는 시간과 장소를 짐작할 수 없는 어느 길 위를 질주하는 차 안이다. 그들이 좁은 차 안의 공간을 벗어나는 때는 과거의 기억 속에서뿐이다. 현실 속에서 그들은 차 안 작은 공간 속에서 생활하며 '집'이라는 인식체도, 그것이 제공할 수 있는 가족도 없다.

운전수인 두 사내 '해미(최광일 분)'와 '비인(이승훈 분)'은 목적지를 스스로 정하지 못한 채 운전하는 운전수다. 그들은 사고가 난 후에야 목적지를 알 수 있는 래커차를 운전하기 때문이다. 간혹 비극적일 수도 있는 사고 장소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이 목표인 이들은 늘 비극을 목도할 운명을 지닌 인물들이다. 물론 이들의 이러한 전사(前史)는 공연 중에는 표현되지 못한다. 그들이 운전하는 것은 덤프트럭일 수도 있고 레미콘일 수도 있다.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은 앞서의 작가의 노트 속 "하루에도 몇 번씩 삶과 죽음의 경계를 왔다갔다 하면서 먼 길을 가는"이라는 구절이다.

그런데 사실 <바람이 분다>에서 이러한 연관 관계의 확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작가의 소개처럼 <바람이 분다>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삶과 죽음의 경계를 왔다갔다 하면서 먼 길을 가는 두 남자의 특수하면서도 보편적인 생의 비가(悲歌)"이지만 두 사내

의 생의 비가는 지금, 여기 현실의 참담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의 비가는 첫 장면의 프롤로그가 암시하듯이 두 사내의 지금, 여기의 현실 속에 잠입하는 기억이자 추억 그 자체다. 그러므로 <바람이 분다>는 추억이 된 기억을 환기하는 연극이다. 추억이 된 기억을 불러내기 위해 지금, 이곳의 현실은 그저 누추하기만 하면 된다. 지금, 여기의 현실이 누추할수록 과거의 기억은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추억으로 빛나기까지 할 테니까. 그러니까 현실과 과거의 대비, 나아가 대조의 형식이 필요한 것이 지그재그의 구체적인 세목을 전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작가도 연출가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 여기의 현실이 차지한 작은 공간을 드러내기 위해 과거 추억의 공간은 광활할 만큼 넓어야 했던 것이다. 물론 그 역도 성립한다. 결과적으로는 <바람이 분다>는 현실과 과거 기억의 대비 혹은 대조에 집중하기 위해 모든 것은 털어낼 수 있을 만큼 털어낸 간결한 무대가 되었다.

고백을 조용히 응시하는 방법

작가의 고백처럼 작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한 <바람이 분다>는 환상과 실제, 기억과 현실이 뒤섞인 경계 없는 장면들이 나열되는 연극이다. 행동과 사건, 갈등으로 구성되는 드라마도, 줄거리로 연결할 수 있는 서사도 없이 등장인물들의 기억 속에서 걸어 올린 동화 같은 추억과 두 사내의 사소한 잡담이 무대 위에서 교차된다. 새로운 기억의 에피소드를 '해미'가 꺼내놓을 때마다 현실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현실로 시공간은 변했다.

그렇다면 장면의 분절을 가져오는 현실과 기억을 어떻게 매개시킬 것인가, 곧 현실로부터 기억을 어떻게 무대 위에 불러올 것인가는 극작법상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연극 무대 위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는 늘 지금, 여기의 이야기로 현재화되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것은 매우 섬세한 극작법을 요구한다. 그러나 <바람이 분다>에서 최광근 작가는 극작법상 이 지점을 특별히 배려하지는 않았다. <바람이 분다>는 극적



단순히 고통, 슬픔, 그리움 어느 하나에 고정되지 않고 복합적 정조를 끌어냈다는 것이 이 작품의 큰 성장점이다.

(dramatic) 구성을 갖고 있지 않기에 현실과 기억의 매개는 대화나 서사의 구성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다. 작가는 '해미'의 기억을 끌어내는 매개체로 연을 날리며 까르르 웃어대는 작은 계집아이 '이야'를 활용했다. 작가가 매우 애정을 가지고 그려낸 것이 분명한 이 작은 계집아이는 뜨거운 술을 뒤집어쓰고 죽어간 '해미'의 어린 누이 '이야(조윤미 분)'로 설정된다.

서로의 성(性)에 대한 호기심을 아이다운 유치함과 솔직함으로 표현하는 '해미'와 '이야'는 이 세상에 단둘밖에 없는 오누이지만 연인처럼 보이기도 한다. 애뜻했던 어린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그저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의 '해미'는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지는 어린 누이에 대한 기억과 죄책감을 남의 이야기처럼 무심하게 동료인 '비인'에게 들려준다. 비인은 가끔은 유머러스한 대거리를 통해 잔잔한 극에 작은 활기를 주기도 한다. '비인'의 유머가 활기를 떨수록 '해미'의 기억은 더욱 애잔하게 들린다. 여기서 '비인'의 역할은 다분히 기능적이다. '비인'은 '해미'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필요한 인물이다. 그런데 그에게도 아픈 기억은 있다. 사고로 아내와 아이를 잃고 혼자 살아남은 것이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비인'이 '해미'처럼 가족을 잃은 과거사를 한꺼번에 털어놓았을 때 그것이 다분히 극작상의 필요에 의한 내용 첨가처럼 생뚱맞게 느껴졌던 것은 공연에서 그의 역할이 기능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작가의 몫이었다.

텍스트상에서는 '이야'를 등장시켜 현실과 기억의 장면을 교차 배치하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되었을 이 지점에서 연극적으로 장면을 구성한 연출력의 강력한 실천이 목도된다. 사실 웃으며 함께할 이야기는 아닌데 하는 안타까움이 오히려 관객의 몫으로 남게지도록 하기 위해 연출을 맡은 류주연은 '해미'의 기억의 에피소드를 완결되지 못한 채 단절되도록 구성했다. 기억이 온전히

게 서사로 완결되지 못하는 상황은 오래된 기억이 온전히 기억되지 못하는 끊임의 상황으로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연출가는 '해미'의 기억의 에피소드가 완성되려는 순간 무대를 암전시켜 관객들이 다소 긴 암전 속에서 기억의 내용을 반추하고 그 여운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한다. 그래서 <바람이 분다>에서 관객들은 '비인'과 함께 답답히 고백되는 '해미'와 '이야'의 추억을 조용히 응시하게 된다. '해미'의 기억은 무덤덤하리만큼 건조하게 느껴지는데 그것은 '해미'가 기억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사념도 달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억에 '해미'의 고조된 감정이 실리려는 순간 무대를 암전시킨 연출력 때문이기도 하다. 그 담백하고 담담한 전달의 태도가 오히려 '비인'이 극속에서 그런 것처럼 무심히 듣고 있던 허리를 끝추세우게 한다.

기억되어야 하는 이유

과거사의 기억은 기억하는 자의 기억 속에서 다시 구성된다. 때로는 대담하고 솔직하게도(오누이가 서로의 성(性)에 대해 호기심을 표현하는 장면에서처럼), 때로는 동화처럼 미화되기도(이야라는 인물의 성격이 만화 속 여주인공처럼 평면적으로 고정된 것은 기억하는 자에 의해 인물이 미화된 탓이다.) 하고, 상식에 걸맞지 않게 터무니없이 과장(전신화상을 입은 '이야'가 병원으로 호송되면서도 웃고 있었다는 '해미'의 고백)이 될 수도 있다.

이 모든 가능성 속에서 '해미'가 기억한 과거는 놀랍게도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유년기의 동화와 같다. 무대 위에 삼입된 정적이고 포근한 정지 화면 속에서 아름답게 기억된 '해미'의 추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선명해지고 또렷해지는 그리움과 반비례하여 바래고 바래서 흐릿해진다. '해미'는 고통스럽고 슬픈 추억을 기억하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어느 순간 문득 그 기억이 유년기의 아름다운 추억과 닿아 있다는 극적인 깨달음에 도달한 것은 아닐까. <바람이 분다>에서 소환된 '해미'의 기억이 단순히 고통, 슬픔, 그리움 어느 하나에 고정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상관적(相關的) 기억 반응 탓이며 이를 통해 복합적 정조를 끌어냈다는 것이 이 작품의 큰 성장점이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떠오르는 질문은 커다란 광음과 함께 압전되어버린 마지막 장면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고통스러웠던 과거사를 유년기의 추억으로 아름답게 기억해낸 '해미'가 갑자기 어떻게 된 것일까. 제목처럼 바람이 (소망하는 곳으로) 불어간다면, '해미'는 그리운 누이에게로 바람과 함께 사라진 것일까. '해미'가 소망한 것은 죽은 누이와 해후하는 것일까 아니면 누이와의 추억을 지니고 초라한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일까. 물론 의미를 탐색할 수 있는 실마리는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 '비인'이 털어놓은 과거사는 '비인'에게는 동화도 무엇도 아닌 고통 그 자체다. '비인'은 혼자인 이곳의 삶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가 있는 그곳을 더 그리워한다. 어쩌면 '비인'은 이곳의

삶을 내려놓고 그곳으로 가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누이에 대한 '해미'의 기억이 지닌 서정적 정조는 그것이 '비인'의 그것처럼 단일한 슬픔이나 고통의 정조가 아니기에, 레커차의 굉음으로 마무리된 결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바람이 분다>가 지극히 개인적인 누군가의 기억이자 제망매가에 그치는 것은, 그 서정적인 비가를 애잔하게 느끼면서도 누군가의 숨겨진 고통을 몰래 엿본 것 같은 허탈함에 빠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기억은 늘 언제나 현실의 맥락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이 실종된 기억은 진공 상태 속 막연한 환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약간의 위안을 제공할 뿐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기억이 보편적인 고통의 의미를 공유하려면 기억되어야 하는 이유, 곧 기억이 지금, 여기 인물들의 현실과 맺는 연관성도 탐색되어야 할 터인데 안타깝게도 <바람이 분다>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 나는 스스로에게 자문해본다.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고 한 발레리의 '바람'은 과연 어떤 바람일까 하고.

이 글은 서울문화재단의 '예술평론활성화지원사업'을 통해 선정, 지원하는 평론가가 2011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선정 작품을 대상으로 한 현장평론입니다.



고민금지, 반칙권장

제2회 10초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어떤 이는 10초에 100m를 내달리고, 어떤 이는 10초에 열토당토 않은 재미를 새긴다. 엔딩 크레딧을 뺀 10초 분량의 애니메이션을 즐기는 축제, 10초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돌아왔다. 올해 2회를 맞는 10초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5명의 멤버가 꾸려가는 '스튜디오 쉘터'가 기획한 축제다. 올해는 서교예술실험센터의 2011년 정기 공모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흥대 앞에 위치한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7월 13일~20일까지 열렸다.

10초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전시와 상영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애니메이션 조건>전이라는 이름을 단 전시회는 '애니메이션이란 무엇인가' '애니메이션이 스크린을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전시에 참여

한 애니메이터들은 '애니메이션의 조건은 무엇일까'라는 화두를 안고 작업에 뛰어들었다. 스튜디오 쉘터 양정우 대표는 "정지된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게 애니메이션 작업"이라면서 "애니메이션을 스크린에서 감상하는 차원을 넘어 스크린 밖에서도 즐길 수 있었으면 한다"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제2회 10초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스크린 밖으로 확장된 애니메이션 축제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0초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본행사라 할 수 있는 상영회는 단 하루 동안만 열리며, 이날 96편의 출품작이 모두 상영된다. 1회에 비해 상영 편수가 두 배 이상 늘었다. 10초 애니메이션은 중독성이 강하다. 박장대소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무심코 영상을 보다보면 귀여워서 황당해서 어이없어서 자꾸만 웃게 된다. 그래서 인지 관객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적극적이다. 박수와 야유가 공존하는 상영회는 창작자에게도 자극이 된다. 10초는 창작자에게 군더더기를 허용하지 않는 부담스러운 10초일 수 있지만 한편으론 실험정신을 일깨울 수 있는 시간이다. 10초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출품 공모 포스터에 적힌 '작업요령'이 그것을 잘 설명한다. 고민금지, 오버금지, 과열금지, 반칙권장, 숙면권장, 실험권장! 깊게 생각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작업이 언제나 재미있는 건 아니니 반칙도 하고 숙면도 취하면서 맘껏 실험하라는 뜻이다. 실제로 1회 페스티벌 때 5편을 출품한 어느 참가



페스티벌 현장.



페스티벌 현장.



페스티벌 현장.

자는 2회 페스티벌 때 13편을 출품했다. 그러면서 3회 페스티벌이 열리면 20편을 만들어 출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0초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창작의 즐거움을 일깨워준 좋은 예다.

10초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또 다른 재미는 별난 시상식에 있다. 누구나 심사위원이 될 수 있고 미리 접수만 하면 누구나 시상자가 될 수 있다. 가장 손이 적게 간 작품에 수여하는 골든핑거상(상품 핸드크림), 의도치 않게 호응이 좋아 주는 후쿠쿠상(상품 로또복권), 심초 동안 명상하는 기분이어서 주는 심초명상(상품 목탁) 등 자유롭게 자신만의 상을 만들어 시상하는 게 가능하다. 양정우 대표는 "관객이 자기가 인정한 작품에 직접 상을 주는 것은 꽤 즐거운 경험이 된다"고 말한다. 독특한 시상식에 대한 관객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 1회 때는 생각지도 못하게 시상자들이 대거 몰려 시상식만 1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10초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언뜻 유치한 장난 같다는 인상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유치하고 장난 같은 놀이가, 상식 파괴와 유희 추구가 바로 10초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매력이다. 24시간을 빈틈없이 쪼개 생활하는 팍팍한 현대인에게 10초의 일탈은 더없이 달콤하고 짜릿한 경험이 될 것이다.

글_이주현 영화주간지 기자. So Cool하지만 번덕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음.

● 스튜디오 쉐터

“공든 탑도 무너지더라”

스튜디오 쉐터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애니메이션과 출신 5명이 모여 만든 그룹으로 알고 있다.

양정우, 하주안, 박태준, 김영석, 이성환. 이렇게 학번도, 나이도 다른 친구들이 모여 만들었다. 애니메이션을 단순히 만화영화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애니메이션으로도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공유한 사람들끼리 모였다.

10초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어떻게 시작된 프로젝트인가.

우리가 작품 활동을 많이 했음에도 영화제에선 상을 많이 못 탔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상을 주는 건 어떨까, 하는 얘기가 장난스럽게 나왔다. 또 애니메이션은 고노동 작업이다. 한 프레임씩 일일이 손으로 그려야 해서 작업 시간도 길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이 있는데, 우리는 주위에서 공들여 쌓은 탑이 쉽게 무너지는 걸 많이 보았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1층짜리 탑을 여러 개 쌓아보자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이 10초 애니메이션 페스티벌로 발전하게 됐다.

제2회 10초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서교예술실험센터 2011 정기 공모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웬지 이곳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다들 예술 지향적일 것 같아서 머뭇거리기도 했는데 한편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았다. 다행히 선정돼서 지금은 작업 공간과 상영 공간 등을 지원받고 있다.

10초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추구하는 것은 뭔가.

낮은 탑이다. 힘들게 높게 탑을 쌓아 올리지 말고 낮게 쌓아서 많은 사람이 보고 즐길 수 있게 하자는 거다. 상영회장에서는 박수받는 작품도 많지만 아유받는 작품도 많다. 관객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아야 하는 10초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매력이란 그런 것 같다.

스튜디오 쉐터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제작하다가 우연히 페스티벌까지 기획하게 됐다. 꾸준히 애니메이션 종사자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분들이 한 데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Review



배우의 몸에 주목!

피지컬 씨어터 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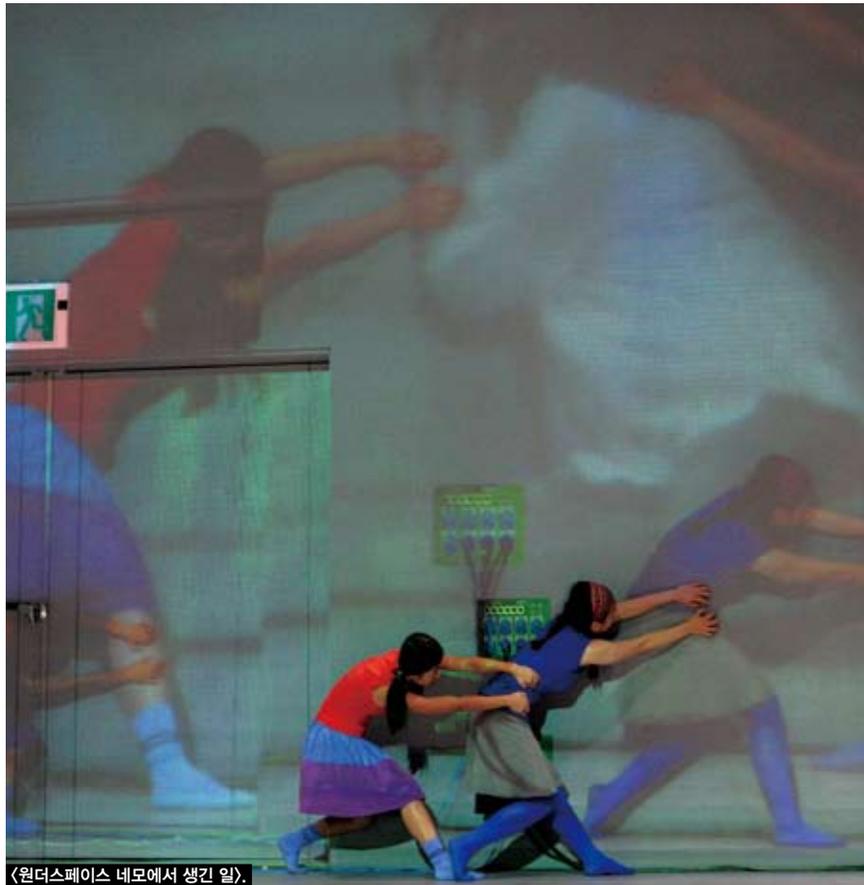
● 피지컬 씨어터 페스티벌은 작은 축제이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약 한 달간 수십 개의 작품이 서울 극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오르고, 여름의 끝자락에 열리는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그 수를 헤아리기도 어렵게 참가자들의 열기가 뜨겁다. 그런가 하면 봄에 열리는 춘천마임축제는 춘천을 대표하는 관광축제로 분류될 만큼 관객들의 참여와 호응이라는 폭넓은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에 비해 이름부터 낯선 '피지컬 씨어터'를 내세우고 있는 이 축제는 대학로의 수많은 소극장 중 단 한 곳에서 일주일에서 열흘 남짓의 기간 동안 벌어지는 소박한 축제이다. 올해는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원더스페이스 네모극장에서 펼쳐졌다.

게다가 '빈 공간'과 '몸'을 내세우는 '피지컬 씨어터 페스티벌'은 콘셉트이건 볼거리이건 점점 화려해지는 공연예술의 경향을 거슬러 공연예술의 가장 최소한으로의 회귀를 표방한다. 대부분의 공연은 검은 벽과 바닥, 천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블랙박스의 공간을 그대로 드러낸다. 공상스럽게 라면을 끓여 먹고, 객석마저 접어놓고 서 있든 앉아 있든 관객들 편하게 있으라 한다.(그러나 의자를 치운 극장에서 관객은 결코 편안할 수 없다)

그렇다고 블랙박스가 그대로 드러난 무대에 배우만 덩그러니 등장하는 것도 아니다. 톱이 나오고 피가 튀고(물론 분홍색 물감으로 피를 '표현'한다!) 한 무더기의 신발이 무대 위에 쌓여 있기도 한다. 또 때로는 차를 마시고 있는 카페의 손님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공연을 벌이기도 한다. 때로 그것은 마임이기도 하고 무용이기도 하고 연극이기도 하고 우연적인 '해프닝'이기도 하다. '피지컬 씨어터' 페스티벌은 그러한 장르적 규칙이나 관습이 아니라 그렇게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배우를 보라고 우리를 초대한다.

고깃간의 고깃덩어리처럼 매달려 있는

올해 축제의 개막작인 Do Theatre(독일)의 <Upside Down>은 마치 기괴한 악몽을 보고 있는 듯한 공연이다. 악몽이라는 것은 침대 위의 남자를 톱으로 자르고 피를 뿌리거나 친근한 포옹이 곧



<원더스페이스 네모에서 생긴 일>

바로 살인으로 이어지는, 죽음과 죽음이 반복되는 상황 때문은 아니다. 도리어 그러한 상황들은 말끔하게 검은 연미복을 차려입고 수술대에 선다거나, 방금 죽임을 당해 쓰러져 있던 사체가 벌떡 일어나 주머니에서 분필을 꺼내 마치 경찰이 사건 현장을 표시하듯이 스스로의 사체를 표시하는 식의 코믹한 상황 연출로 전개된다. 무대 위의 사건은 잔혹한 B급 영화의 그것이건만 마치 무대는 채플린의 무성영화를 보는 듯 팬터마임의 과장되고 우스꽝스러운 천진난만한 표현들이다. 하여 기괴함은 이러한 이질적인 것들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같은 상황들이 반복되고 변주되면서 무대에 흐르는 천진난만함과 그 밑바닥에 놓여 있는 적의, 무관심, 냉소가, 마치 마주 보고 내달리고 있는 평행선처럼, 그렇게 나란히 차오른다. 그리고 공연의 마지막, 마치 고깃간의 고깃덩어리처럼 천장에 거꾸로 매달린 몸이 펄떡거리고 비틀리며 길게 몸부림친다. 장르나 양식 방법론을 넘어, 이 기괴한 악몽의 세계에서 악몽을 악몽으로 인식하지도 못하는 존재들의 고통스러운 이 어떠한 설명도 없이 전개되는 몸부림에서 강하게 다가온다.

<Upside Down>이 잘 훈련된 몸과 몸의 표현력, 그리고 조직된 이야기와 연출로 전개된다면 정반대의 대척점에 놓여 있는 작품이 실제상황극흥프로젝트의 <원더스페이스 네모에서 생긴 일>일 것이다. '실제상황' '즉흥'이라는 공연팀의 이름처럼 그리고 공연



〈원더스페이스 네모에서 생긴 일〉

장인 '원더스페이스 네모'를 명시하고 있는 공연 제목처럼 공연이 벌어지는 시간과 장소가 공연의 시간과 장소로 그대로 겹쳐 있다. 극장에 들어서면 객석의 의자는 모두 접혀 있고 극장의 검은 벽과 천장 바닥이 형광등 불빛에 맨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관객들은 객석도 없는 이 불친절한 극장의 이곳저곳에 자리 잡고 앉아 공연이 시작되기를 기다린다.

당신의 움직임도 공연이 된다

공연은 네모극장 밖 로비와 연결된 화상전화로 시작되는데 화상 통화를 하고 있는 컴퓨터의 모니터를 확대한 화면이 무대(라 짐작되는)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방금 지나쳐왔던 극장 로비가 뒤 배경으로 보이고 늦게 도착한 관객들이 흘금흘금 화상전화를 하고 있는 모니터의 화면을 쳐다보며 지나간다. 로비에서 전화를 걸어온 퍼포머는 관객들과 채팅창으로 대화를 한다. 이름이 뭐냐, 누구랑 왔냐, 장맛비에 오는 길이 불편하지는 않았냐 등등의 일상적 대화에서부터 어린 시절의 추억 같은 지극히 사적인 질문들이 오간다. 관객들은 무대 벽면의 확대된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대화한다. 무대와 객석이 자연스럽게 나누어지고 통합되는가



〈Upside Down〉

하면 무대 옆 갤러리를 장난스럽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벌어지는 몸짓 전달하기 놀이 등 관객과 함께 벌이는 즉흥 퍼포먼스의 콘셉트와 검은 벽들로 이루어진 '극장'이라는 물리적 실체가 드러난 블랙박스의 공간이 흥미롭게 교섭한다.

현대공연예술은 잘 짜인 이야기보다는 무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주목한다. 따라서 당연히 배우, 퍼포머의 몸은 매우 중요한 실험의 장이다. 그것은 언어를 배제하느냐 아니냐는 마임이나 넌버벌과는 다른 질문이자 실험이다. 하여 피지컬 씨어터, 신체극은 그러한 실험의 연장선에서 마임이나 무용처럼 독자적인 양식이라거나 방법론이라기보다는 공연예술에서 배우의 '몸'에 주목하는 개념적인 용어이다. 피지컬 씨어터 페스티벌은 그러한 현대공연예술의 경향성을 프리즘처럼 펼쳐놓는다.

Toronto

세계 공연예술계의 집단 지성과 휴먼 네트워크

2011 ISPA(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Performing Arts) 토론토 총회



2011년 7월 현재, 213개국 7억 명의 세계인이 가입한 페이스북의 열풍. 개인과 커뮤니티, 기관과 기업이 모두 동등하게 정보와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생각이 지구촌 곳곳으로 파급되어 사회적, 정치적 파워로 전이되며 현실에서의 변혁의 물결을 일으키는 소셜 미디어의 세계는 누군가의 말처럼 “거대한 집단 지성과 휴먼 파워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지난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25회 ISPA(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Performing Arts, 국제공연예술협회) 국제총회는 페이스북 열성 유저로서 확인할 수 있는 인류의 집단 지성,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뜨거움, 네트워킹의 힘이 여전히 오프라인에서도 구축 가능하며, face to face 커뮤니케이션의 저력, 서로 다른 도시와 국가의 공통성과 다름을 모두 허용하는 자신감, 사회적 위치와 무관하게 참가자 모두가 동등하게 개인의 목소리를 내고,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소셜 미디어에 대해 세계인이 보여주고 있는 신뢰와 열성이 똑같이 가능할 법한 자리였다.

토론토의 ‘컬처 르네상스’

ISPA는 1949년 미국 공연장 협회로 창립된 이후 북미 전역과 유럽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며, 오늘날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까지 아우르는 6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국제 공연예술협의체의 선두 주자다. 미국 링컨 센터와 카네기홀, 영국 런던 필하모닉과 브리티시 카운슬, 독일, 네덜란드의 공연예술단체 등 전통적 문화 강국은 물론, 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 공연예술기관을 비롯하여 창작과 경영을 병행하고 있는 공연예술 분야 예술가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회원 국가와 도시, 공연예술계 종사자 간의 아이디어 교환과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매년 1월 뉴욕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1987년부터는 매해 6월, 주요 회원국 도시에서 국제총회를 열어, 각 도시 고유의 색과 문화적 다양성을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국제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꾸준히 만들고 있다.



- 1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ISPA 국제총회.
- 2 로열 컨서바토리에서의 총회 세션.
- 3 로이툰스홀 야외에서의 환영 리셉션.
- 4 안은미 컴퍼니 공연 생중계.



미와 회의 세션 중간에는 캐주얼한 분위기의 간단한 다과 및 식사 세션이 여럿 배치됨으로써 참가 개인과 기관들이 서로를 소개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했다.

2012 ISPA 국제총회는 서울에서

총회는 토론토 심포니가 상주하는 로이툰스홀 로비에서의 이틀간의 아카데미 세션으로 시작되어, 토론토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며 가장 오래된 더블 데커 시스템을 갖춘 엘긴앤윈터가든 극장에서의 개막회의로 이어졌다. 오페라와 발레 중심의 관객 친화형 극장 시스템을 표방하며 2006년에 문을 연 포시즌즈 센터, 증류주 공장을 개축한 영센터 공연장, 토론토 통신사 텔러스의 후원으로 개축된 로열 컨서바토리, 토론토가 배출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 기념 스튜디오, 토론토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벨 라이트박스 등에서도 행사가 펼쳐졌다. 토론토의 컬처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핵심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진행됨으로써 문화도시 토론토의 의지와 노력을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자리가 되었다.

28개국, 300여 명의 문화예술계 인사가 참가한 2011년 ISPA 토론토 총회는 한국의 문화적 파워와 다채로움을 보여준 안은미 컴퍼니의 '바리공주' 공연의 스키이프 생중계가 마지막 세션으로 진행되어, 2012년도 ISPA 국제총회 선정지인 한국의 문화적 잠재력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국제도시 서울에 대한 기분 좋은 기대감을 반영한 큰 박수로 막을 내렸다.

ISPA 국제총회가 특별한 점은 공연예술계가 직면한 여러 현안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국제회의의 윤곽을 가지고 있으면서, 총회가 개최되는 현지의 문화적 특수성과 공연예술계 현장 탐방, 세계 공연예술계 종사자 특유의 자유분방하면서도 격을 잃지 않는 자연스러운 네트워킹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총회는 '컬처 르네상스'라는 모토 아래, 지난 10년간 공연장 개·신축 등 공연예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세계 정상의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토론토에서 개최되었다. ISPA 국제총회는 통상 이틀간의 아카데미와 나흘간의 회의로 진행된다. 토론토 총회의 아카데미는 신진 공연예술 기획자들을 위한 기부금 조성, 프로그램 기획, 사업 운영과 마케팅 등 미니 예술경영 커리큘럼으로 진행되었으며, 회의는 'Groundbreaking(혁신적인 시작)'이라는 주제하에 신규 공연장 건립에 따른 해당 지역의 사회문화적 변화, 비전통적 공연장의 프로그래밍과 지역 관객 끌어들이기, 미래 공연예술 소비자에 대한 활발한 담론이 진행되었으며, 토론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연극, 무용, 음악 단체들의 신규 프로그램도 함께 소개되었다. 아카데미

New York

미적체험교육

링컨센터인스티튜트(LCI)
예술교육 연수프로그램



7월 11일~15일, 뉴욕 줄리어드 스쿨에서 링컨센터인스티튜트(LCI)의 International Educator Workshop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이 특별했던 이유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예술교육가(TA)와 교사가 서울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 이번 워크숍 참가는 예술가와 교사, 공연장과 학교가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고유의 예술교육 철학과 시스템을 구축한 LCI의 우수 사례와 노하우를 습득, 서울의 창의예술교육을 발전시키고자 이루어졌다.

워크숍의 소재는 마스크와 플라멩코였다. 본격적인 프로그램은 비주얼 아티스트이자 링컨센터에서 30년을 TA(teaching artist)로 함께해온 바바라 열먼이 준비한 여러 가지 마스크 사진을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종이를 가지고 3D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실로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음악 파트는 색소포니스트이자 TA로 활동하고 있는 린 리저마리와 함께했다. 두 가지 스타일의 플라멩코를 듣고 음악의 요소를 찾아낸 다음, 그룹별로 쪽지에 적혀 있는 음악을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만 해도 과연 우리가 뭘 하고 있는 지조차 모를 정도로 모호함 투성이였다. 다만 인상적이었던 것은 TA들이 설명 대신 계속해서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게끔 가이드해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둘째 날, 어제에 이어 아프리카인 마스크 사진을 보고 연상되는 동물을 찾고 나만의 심벌을 이용해 마스크를 만들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품들은 다양하고 입체적이었으며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는 것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아프리카인 마스크를 관찰하면서 알게 되었다.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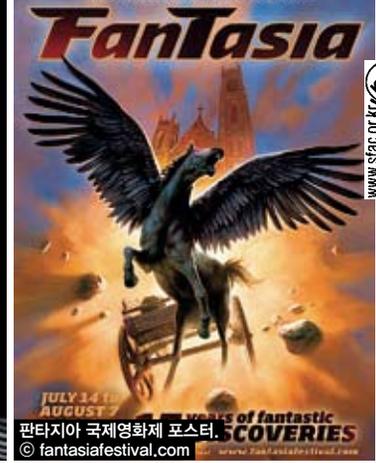
1 LCI 예술교육 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
2 참가자들이 만든 다양한 작품.

에서 바바라와 함께한 시간 동안 아프리카인 마스크의 의미, 사용된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이 과정 역시 우리가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심도 있고도 깊은 관찰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다음 날에는 내가 만든 가면으로 셰리머니를 만들어 저널로 작성, 짝과 나누는 활동을 했다. 또한 플라멩코를 보고 발견했던 것들을 그룹별, 전체별로 나누었고 우리끼리 여러 악기를 가지고 그림과 글로 소개되어 있는 플라멩코의 한 종류를 표현해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 미술적, 음악적 요소를 발견하고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TA들이 계획한 교안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교안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남은 이틀에 걸쳐 진행했다. 한 작품을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것을 의미 있게 엮어나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깨달았으며 그들의 작업에 다시 한 번 감탄하고 존경했다. 예술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예술가를 양성하는 데 있지 않다. 미적체험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상상력과 창의성이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풍부하게 해줄 것인가? 상상만 해도 짜릿하다.



파리 국립 오페라 발레단 Ballet de l'Opera national de Paris.
© Anna Deniau / Opera national de Paris



서울문화재단
www.ssc.or.kr



베이컨과의 필연적 만남

프란시스 베이컨을 위한 감각의 해부학
L'Anatomie de la sensation pour Francis Bacon

〈뉴욕타임스〉가 '발레계의 록스타'라 칭한 영국의 젊은 안무가 웨인 맥그리거(Wayne McGregor)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파리 국립 오페라 무대에 새 작품을 올렸다. 화가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의 그림에서 영감을 얻은 〈감각의 해부학〉은 역시 그의 그림에서 제목을 따온 마크 안토니 터니지(Mark Anthony Turnage)의 음악 'Blood on the Floor'에 맞춰 아홉 개의 단막으로 구성됐다. "육체는 그 자체가 계속해서 더 복잡하게 변해가는 리듬이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재현은 사라져야 한다"는 웨인 맥그리거의 생각은 베이컨의 회화 속에서 끝없이 어딘가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내용 없는 형상만이 남은 몸뚱이들과 상통한다. 그래서 그가 정신보다는 신경을 자극하고 감각 자체를 환기하는 베이컨의 그림을 무대로 불러낸 일은 필연적으로 보인다. 베이컨의 세계는 "순수한 형태, 색, 그리고 순수한 긴장감"이며 그의 그림은 "마치 무용처럼 색깔이 추상적인 방식으로 공간과 연결되는 직접적인 언어"라고 안무가는 말한다.

비디오와 비주얼 아트, 3D 건축 등의 테크놀로지와 '가장 뛰어난 기계인 인간의 몸의 조합에 집중해온 그는 이번 작품에서 존 파우슨(John Pawson)의 미니멀리즘 건축 구조를 배경으로 삼았다. 움직이는 거대한 패널이 무대에 세 개의 다른 차원, 즉 세 개의 달한 세계를 부여하면서 베이컨 그림의 대표 형식인 삼면화 구조를 3차원으로 옮겨놓았다.

글_서도은 사회학, 철학과 미술사학을 전공하고 현재 파리에서 영상미학 박사과정 중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기울이려 노력한다.



세계 최고 장르 영화제

판타지아 국제영화제
Fantasi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일시_ 7월 14일~8월 7일
장소_ 몬트리올 Théâtre Hall Concordia, Cinémathèque québécoise 외 6곳
문의_ +1 855 790 1245, www.admission.com(티켓 문의)
www.fantasiafestival.com/2011/en(공식 홈페이지)

7월 중순부터 8월 초, 몬트리올에서 해마다 열리는 판타지아 국제영화제가 15회를 맞이한다. 미주, 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초대된 영화들을 상영하는데, 특히 아시아 영화를 소개하는 선두 역할을 하는 영화제라고 할 수 있다. 코미디, 공포, 액션을 비롯한 모든 장르를 볼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장르 영화제이며, 올해는 총 130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1996년부터 시작된 이 축제는 북미에서 매우 규모가 크고 유명한 영화제 중의 하나이며 국제영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각 영화마다 매진이 될 만큼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찾으며, 영화를 관람하는 것 외에도 감독, 제작자, 배우 등 영화인들과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마련된다.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나라 영화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아시아 영화를 유치, 홍보하고 있는 '씨네 아지(Ciné-Asie)'가 있기 때문이다. 씨네 아지는 1997년부터 시작된 문화 홍보 단체로, 캐나다인에게 아시아 영화를 알리고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한국 영화가 여러 편 초청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유성현 감독의 〈파수꾼〉, 이준익 감독의 〈평양성〉, 이해영 감독의 〈페스티발〉이 있으며 이 외에도 6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특히 이번 심사에 이준익 감독이 참여하며, 게스트로는 류승완 감독과 영화 제작자 강혜정이 초대되었다.

글_김성정 2009년 몬트리올에 처음 왔고, 현재 퀘벡대학교에서 비주얼 아트를 공부하고 있다.



서교예술실험센터 무용 체험 프로젝트
 <우물쭈물 꿈꾸는 움직임>

망설이지 말고
 춤을 춰요
 이렇게



● “춤 춰보셨나요?” 어떤 춤이든 배우러 가면 첫 시간에 늘 이런 질문을 받는다. 잘 추고 못 추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출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묻는 거라 생각한다. 춤은 미술이나 영화 등 다른 종류의 예술에 비해 ‘사전 준비’가 필요한 장르다. 자신의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일 준비, 그런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 스스로없이 내보일 준비. 그럼 이 글을 쓰는 나는 얼마나 춤을 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재즈댄스 2년, 아마추어 댄스 동호회 3년, 스윙댄스 1년, 탱고 두 달. ‘스펙’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질문에 대답할 자신은 없다. 한 번도 춤에 입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공연의 일부가 된 스스로의 자아 성찰과 함께 성취감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서교예술실험센터의 성인을 위한 무용 체험 프로젝트, <우물쭈물 꿈꾸는 움직임>의 문화 체험을 덜컥 수락한 건, 다음 아님 이 한 문장의 소개 문구 때



- 1 기초원업 시간, 수강생들이 좌우의 밸런스를 맞추는 동작을 하고 있다.
- 2 안무 <오늘>의 한 장면, 수강생들이 동시에 멈춰 정면을 주시하는 이 동작은, 팀워크를 맞추기 위한 석수정 강사의 의도다.
- 3 팔다리의 근육을 상하로, 앞뒤로 충분히 수축, 이완하는 동작.

문이었다. '자아 성찰'과 '성취. 취미로 춤을 추면서는 만날 수 없는 단어들이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우물쭈물 꿈꾸는 움직임>은 일반인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던 무용과 움직임을 연구한 '공연체험 7단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강생들은 6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문 무용수인 선생님과 이 프로그램을 체험한 뒤, 오디션을 거쳐 하나의 완결된 무용 공연을 문래예술공장에서 올리게 된다. 수강생들이 몸을 움직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은 떨쳤을 7월 9일, '똥자루무용단'의 석수정 강사가 진행하는 수업을 듣기 위해 서교예술실험센터를 찾았다.

아무런 준비 없이 추는 춤

열 명 남짓 되는 수강생들이 연습실 바닥에 동그랗게 모여 앉아 있다. 이들은 지금 막 '온몸을 이용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보라'는 선생님의 즉흥적인 과제를 끝낸 참이었다. 직접 안무를 만들어보니 어땠다는 석수정 강사의 질문에 수강생들의 아쉬움 섞인 목소리가 쏟아진다. "숙제로 내주셨으면 더 잘해올 수 있었을 텐데..." 한 수강생의 말에 석 강사가 맞받아친다. "숙제를 해오시는 스타일이구나!" 연습실이 금세

수강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다. 하지만 마냥 웃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무 준비 없이, 온몸을 움직여, 거기다 그림까지 그리라니 이보다 더 부끄럽고 오싹한 과제가 있을 수 없다. "아무래도 즉흥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춤을 한번 추더라도 음악 고르고 동작을 정해야 하는 부담감이 늘 존재하는 것 같아요. 또 해보면서 느끼셨겠지만 누가 가르쳐준 걸 따라 하면 분명 내 몸으로 춤을 추면서도 의식적으로 남의 동작을 따라 하다보니 내 몸 같지가 않아요." <우물쭈물 꿈꾸는 움직임> 수업을 진행하는 석수정 강사는 그렇게 "(남의 동작을) 따라 하는 춤이 전부처럼 보이는 안타까움"에 대해 말했다. 문득 재즈댄스, 방송댄스만 추다가 처음 스윙댄스를 배웠을 때의 당황스러움이 떠올랐다. 재즈댄스와 방송댄스는 선생님의 동작을 잘 따라 할수록 배우기가 수월한 춤이었다. 그런데 스윙댄스는? 다른 사람의 '신호'를 받아 취야 했고, 다음



1 무게중심을 바르게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자세.
2 플리에 동작. 발레의 기본 자세다.

에 어떤 '신호'가 올지조차 미리 알 수 없는 춤이었다. 이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추는 춤은 언제나 두려운 법이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깨고 자신의 몸을 스스로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이 수업의 또 다른 목적이기도 하다.

흥미롭게도, <우물쭈물 꿈꾸는 움직임>은 이 수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풍자루 무용단을 만든 이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풍자루 무용단은 연극배우 출신인 이성재 대표가 무용 소그룹 커뮤니티인 '댄우사'(댄서라 우기는 사람들)의 멤버로 활동하던 도중 창단했다. 연극인 출신이라는 점, 무용수의 외모를 갖추지 못했다는 부담감을 마음 한쪽에 안고 있던 이 대표는 재능 있어 보이는 무용수들조차 재능과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특히 한 친구의 말이 이 대표의 가슴에 와 닿았다. "오빠, 난 키가 풍자루라서 졸업하면 무용 안 할 거예요." 그 친구의 말이 곧 무용단의 이름이 된 이유는 '풍자루'라는, 무용의 세계에서 일견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단어의 인식을 바꾸고 싶어서다. 풍자루무용단에서 '풍자루'란, '작고, 이상하고, 추하고, 아름답지 않고, 웃기다'는 뜻이 아니라, '재미있고, 신기하고, 새롭고, 같이 느낄 수 있고, 열정이 있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편견에 갇힌 무용이 아니라 열린 무용을 지향하겠다는 얘기다. 풍자루무용단이 관객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이유도 그래서다. 전문 무용수들이 자신의 재능에 대한, 신체적 구조에 대한 걱정으로 '우물쭈물' 망설이던 것처럼 춤을 출 수 있을지, 무용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지 망설이고 고민하는 일반인들에게 풍자루무용단은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주고자 한다. <백조의 호수>의 대목을 토막토막 나누어, <그것이 알고 싶다> 형식의 프레젠테이션으로 관객들에게 선보인 적이 있다는 석수정 강사의 경험담은 풍자루무용단이 어떤 무용을 지향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사례다.

'즉흥 안무'로 문을 연 7월 9일의 수업은, 본격적으로 춤을 추기 전에 충분히 몸을 풀어주는 '기초웍업'으로 이어졌다. "몸이 살아 있다는 걸 느끼는 시간이 될 거예요." 석수정 강사의 말처럼 평소 굳어 있던 온몸의 근육이 저릿저릿하게 반응해오는데 느껴진다. 팔을 버드나무 가지처럼 땅으로 축 내리며 호흡하고, 뿌리가 된 느낌으로 하늘을 보며 호흡했다. 곧게 서서 배의 힘만으로 온몸을 움직이는 상하 운동도

했다. "지금 하는 동작은 척추를 펴는 과정이에요. 무용의 기본인 점프, 스트레칭,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우리는 척추를 축으로 춤을 춰야 합니다." 워낙에 운동량이 없었던지라 여기까지만 해도 숨이 차오른다. 반면 다른 수강생들은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적응이 된 탓인지, 전반적으로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웍업에서 가장 중요한 척추 운동을 한 뒤에는 무용에 앞서 해야 할 '근육 풀어주기' 운동이 계속됐다. "무릎은 용수철처럼, 발끝은 화살촉처럼!" 선생님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학생들이 일제히 위로 뛰어오른다. 용수철과 화살촉이라니, 참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핵심을 관통하는 단어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다른 사람의 동작을 따라 한다 하더라도 춤은 나만의 동작이다. 학생들에게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전문 무용수인 선생님 또한 고민이 깊을 듯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용수철 되기에 실패한 학생이 등장했다. 하늘보다 땅에 가까이 머물러 뛰고 있던 탓이다. "용수철이 되는 데 장애가 되는 건? 당신의 엉덩이?" 선생님의 농담에 또 한번 연습실이 웃음으로 가득 찼다. 이번에는 뛰느라고 잔뜩 숨이 벅찬 웃음이다.

김연아처럼 품위 유지하기?

이어지는 건 "몸 안의 아주 미세한 근육까지 컨트롤해보는" 플리에 동작이다. 이는 동작이 나오니 괜히 우쭐해진다. 재즈댄스 강습 시간마다 되풀이했던 동작이기 때문이다. 플리에 발레의 기본 동작으로, 양발을 붙인 다음 발뒤꿈치를 움직이지 않은 채 180도가 되도록 양쪽으로 벌리는 동작을 말한다. 발뒤

춤을 출 수 있는지, 무용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지 망설이고 고민하는
일반인들에게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주고자 한다.

꿈치의 근육과 종아리 근육이 빠르해지는 게 느껴졌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다리를 180도로 벌리는 스트레칭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연습실이 순식간에 침묵으로 가득 찼다. 숨소리 하나 내기 힘들 정도로 고통이 따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숨을 참으시면 안 돼요.” 석수정 강사가 수강생 각각의 자세를 바로잡아주며 말한다. “누구나 자신만의 방어방법은 있어요. 어려운 테크닉을 할 때 숨을 쉬지 않는 다든지, 얼굴 근육을 긴장시킨다든지... 특히 프로 무용수가 아닌 경우 더더욱 얼굴 근육과 상체를 긴장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거울 앞에서 춤을 추는 것도 그런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거든요.” 순간 거울을 확인하고 웃음이 날 뻔했다. 상황은 고통스러운데, 잔뜩 경직되어 있는 내 얼굴은 너무 우스꽝스러웠기 때문이다. 아직 표정관리는커녕 동작관리도 잘 안 되지만, 결국 모든 것의 마무리는 ‘폼위 유지’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김연아 선수가 다른 선수들보다 아름다워 보이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수업의 말미에는 석수정 강사가 고안한 안무 <오늘>을 연습해보는 시간이 있었다. 안무의 주제를 묻자 “한때 댄서의 꿈은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갈등했던 모습을 춤으로 표현해보는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국적이고 부드러운 현악기 멜로디가 울려 퍼지자 수강생들이 사막 한가운데를 걷는 듯 느리게 움직인다. 이어서 아프리카 부족의 축제를 연상케 하는 음악이 들리고, 수강생들은 언제 사막 위를 걸었느냐는 듯 파워풀하고 역동적인 안무를 시작했다. <오늘>을 지켜보며 인상적이었던 건 스트레칭 시간에 했던 동작들이 개별 안무를 잇는 연결 고리로 사용된다는 점이었다. 덕분에 서로 다른 동작이 짜깁기되어 있다는 느낌보다 하나의 큰 안무가 물 흐르듯 이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수업시간의 절반 이상을 스트레칭에 할애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부드러운 동작을 하다 갑자기 역동적인 동작으로 옮겨가니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철부덕’ 쓰러지는 학생도 있었다. 석수정 강사는 “상당히 역동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부상의 위험이 있다”고 조언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다시 동그랗게 모여 앉았다. 모두 치킨 기색이지만 선생님의 말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집중력은 여전하다. 7월 16일, 이들은 9월 4일의 공연을 위한 오디션을 보게 된다. 오디션을 앞둔 학생들의 마지막 과제는 바로 ‘독무다. “<햄릿>의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라’라는 유명한 독백을 아시죠? 그 대목을 읽고 각자의 방식으로 안무를 만들어주세요. 만족스러운 안무가 있다면 공연에 반영하기로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숙제’를 듣는 학생들의 눈이 반짝인다. 무용수가 되고 싶은 어른들은, 분명 ‘우물쭈물 꿈꾸는 움직임’으로 저마다의 햄릿을 만들어 올 것이다. 9월 4일 공연에 이날의 숙제가 어떻게 반영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우물쭈물 꿈꾸는 움직임> 진행하는 석수정 무용가

그러니까
우리는
나아지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현직 무용가들이 좋은 공연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무용을 보러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물쭈물 꿈꾸는 움직임>은 풍자루 무용단의 이성재 단장과 내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우리 무용단이 선체험 후학습 스타일이다.(웃음) 또 요즘 무용 워크숍 마니아들이 생긴 것 같은데, 워크숍과 공연은 완전히 다르다. 안무가가 어떤 워크숍을 통해, 어떤 방법론을 통해 이런 작품을 만들었는지 공연을 하며 직접 체험해보면 공연을 보는 힘이 생기기도 할 것이고, 저변 확대도 될 것이다. 피나 바우쉬의 <댄싱 트림즈>처럼, 어떤 사람들이 수업을 듣나. 춤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절반, 실사나 재즈 댄스 등을 배운 사람들이 절반이다. 공연을 해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직업으로 보면 출판사 다니는 사람, 일러스트 하는 사람, 국어선생님 등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춤을 추고 싶어 여기저기 기웃거린 사람이 많다보니 무척 열심히 한다. ‘선생님, 힘들어요. 그만 할래요’ 이런 반응이 있어야 도와줄 텐데 뭘 시키면 다 하더라.(웃음) 안무가로서 책임이 무겁다.

공연을 하기 전에 오디션을 보는 이유는 뭔가. 오디션을 보는 것과 안보는 것에 준비의 차이가 있다고 봤다. 못하는 사람을 떨어뜨린다고 보다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수강생 각각의 장기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의미의 오디션이다. <오늘>이라는 작품도 워크숍 작품이지 공연 무대에 올리지는 않을 거다. 7월16일 오디션을 본 뒤에는 공연을 위한 본격적인 안무 짜기에 들어갈 거다.

이 수업에서 수강생들이 무엇을 얻어갔으면 좋겠나. 수업을 들으며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내서, 몸을 쓴다는 건 사실 귀찮고 힘든 일이다. 하지만 이걸 견뎌내면서 힘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내가 뭔가 다른 걸 시도하고 있고 열심히 했다는 성취감을 얻어 각자 하는 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글. 장영엽 자유기고가. 리듬과 스텝이 있는 곳을 사랑하며, 우연한 마주침을 즐긴다. 집으로 가는 길 종종 마주치던 시교예술실험센터와 이렇게 '만남' 것도 운명이라 생각한다.
사진. 백중현 카메라 렌즈를 통해 바라본 세상만큼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사진가.

Cultural Calendar

8 월 의 재 단 소 식

08



조이오버스트링스



카툰판소리 날아라 예코맨



보다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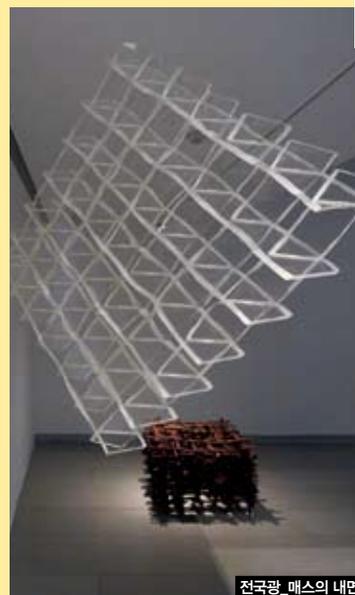
구분	사업	장소	일시	문의
공연창작활성화지원사업				
연극	내가 울어줄게	국립극장 별오름	8/10(수)~8/21(일)	국립극장 별오름 02-2280-4114
	한국, 미국, 오스트리아 국제 공동제작 (하녀들)	두산아트센터 Spacell	8/27(토)~9/10(토)	두산아트센터 Spacell 02-708-5001
무용	사막의 붉은 달	장현수	8/27(토)~8/28(일)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 02-3668-0029
음악	작곡가 강은수의 Ad Lib I, II	세종체임버홀	8/2(화)	세종체임버홀 02-399-1111
	목관악기와 뮤지컬의 향연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8/7(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02-580-1300
	코리아목관앙상블			
	2011 서울 클라리넷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8/7(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02-580-1300
	앙상블 정기연주회			
	바흐 v.s 헨델	성공회대성당	8/18(목)	성공회대성당 02-730-6611
(사)조이오버스트링스 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8/19(금)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02-580-1300	
작곡동인 소리목 창립22주년 음악회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8/23(화)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02-580-1300	
전통	카툰판소리 날아라 예코맨	홍대카톨릭청년회관 CY씨어터(200석)	8/3(수)~8/7(일)	홍대카톨릭청년회관 CY씨어터 070-8668-5795
	한여름에 우리 악기로 떠나는 세계의 뱃노래 여행	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 콘서트홀	8/6(토)	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 콘서트홀 02-2289-5401
	창과 칼의 노래	노원문화예술회관	8/9(화)~8/10(수)	노원문화예술회관 02-951-3355
	창작아쟁의 새로운 시도 - 아쟁의 꿈	국립국악원 우면당	8/12(금)	국립국악원 우면당 02-580-3333
	여성국극	관악문화예술회관 대극장	8/14(일)	(사)한국여성국극예술협회 02-741-1535
	김정림의 해피해금 '춘향'	세종체임버홀	8/31(수)	세종체임버홀 02-399-1111

시각창작활성화지원사업				
전시	보다 프로젝트-진실은 진심이다	비주얼아트센터 보다	1차 7/7(목)~8/2(화) 2차 8/4(목)~8/16(화)	비주얼아트센터 보다 02-3474-0031
	전국광 20주기전- 매스의 내면0000	성곡미술관 2관 전관	6/17(금)~8/7(일)	성곡미술관 2관 02-737-7650
	인터섹션(교집합)	통의동 보안여관	7/7(목)~8/1(월)	통의동 보안여관 02-720-8409
	유윤빈 개인전_탐의 인상	갤러리 라메르	8/3(수)~8/9(화)	갤러리 라메르 02-730-5454
	Pang! (Parasite Project #2)	갤러리 무이	8/8(월)~8/27(토)	갤러리 무이 02-587-6123
	우리시대 리얼리즘전 -꼬리치레의 눈물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제1전시실	8/10(수)~8/22(월)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02-2171-2491
	Housing Project(단체전)	이온갤러리	8/5(금)~8/20(토)	이온갤러리 02-725-6777
	한국미술을 말한다-양가주망50년전	공아트스페이스	8/31(수)~9/20(화)	공아트스페이스 02-735-9938
	발견의 지점, 공간에 말을 걸다	대안공간 총정각	1차 8/24(수)~9/16(금) 2차 9/21(수)~10/14(금)	대안공간 총정각 02-363-2093
	Self-imposed rules project	갤러리조선	8/4(목)~8/25(목)	갤러리 조선 02-723-7133

다원예술창작활성화지원사업				
다원	재구성의 경로를 (창천동 52-12 - 모기장)	갤러리정미소, 스페이스엘 모기장(서대문구 창천동),	8/9(화)~8/30(화) 8/25(목)~8/31(수)	갤러리정미소 02-743-5378 전미정 070-8615-6549
	기억 속의 공간, 기억 속의 사람들	다원예술공간 도어 (마포구 동교동)		

시민축제지원사업				
시민축제	제4회 액션가면 섬머페스티벌	서교호텔별관 지하 V홀	8/14(일)~8/15(월)	액션가면 02-3472-7737

구분	사업	장소	일시	문의
서울연극센터				
프로그램	8월 대학로연극투어	서울연극센터	8/28(일) 오후 12시 30분	02-743-9333
서교예술실험센터				
기획	서교음악싸롱	서교예술실험센터	매주 월	02-333-0246
프로그램		지하 다목적공간		
정기공모	제11회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전시장	8/4(목)~8/14(일)	02-333-0246
	2011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서교예술실험센터 전관	8/11(목)~8/27(토)	02-333-0246
	성인을 위한 무용체험 프로젝트 <우물쭈물 꿈꾸는 움직임>	서교예술실험센터 지하 다목적공간	6/18(토)~8/31(수)	02-333-0246
신당창작아카데미				
기획	공공미술프로젝트 <시장골목살리기>	신당창작아카데미	7/17(일)~8/30(화)	02-2232-8833
프로그램	지역연계교육프로젝트 I <화요예술클럽1 - 황하여(餘)지도>	성동공업고등학교	8/23~11/8(매주 화)	02-2232-8833
	지역연계교육프로젝트 II <화요예술클럽2 - 칠보 심화 강의>	성동공업고등학교	8/23~11/8(매주 화)	02-2232-8833
	지역연계교육프로젝트 III <프로젝트 I (아이) - 소리 얼굴>	신당창작아카데미	8월 2째주 ~10월 2째주 (예정)	02-2232-8833
	2차 무료체험공방 <나도 예술가>	신당창작아카데미	6/18~9/3(매주 토)	02-2232-8833
연희문화창작촌				
교육	여름방학특강 <젊은 작가 주간>	연희문화창작촌 미디어랩(3동)	8/9~8/12(화~금 오후 7시)	02-324-4690
공연	8월 연희목요낭독극장 <숨은 밤! 힌트는 도련님(가제)>	연희문화창작촌 야외무대 '열림'	8/25(목) 오후 7시 30분	02-324-4690
문래예술공장				
교육	문래예술공장 시민문화 향유프로그램 <장롱 속 기타 꺼내기> 2기	문래예술공장 녹음실	6/8(수)~8/10(수) (매주 월, 화, 수, 목)	02-2676-4300
영상 기록	문래예술공장 MEET 프로젝트 다큐멘터리 <문래동을 아시나요?>	문래예술공장 문래창작촌 등 문래동 일원	5/30(월)~12/10(토)	02-2676-4300
영화상영	문래예술공장 MEET 프로젝트 <문래동네, 씨네문>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문래창작촌 작업실	8/26(금)	02-2676-4300
교육	지역 아동 소통 프로그램 상상력 훈련소와 '스무 번, 함께 상상하기'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7/18(월)~8/12(금) (오전 10~12시, 주말제외)	02-2676-4300
	고양이 놀이터 만들기 작가, 주민 워크숍 <고양이를 부탁해~> 2차 워크숍(대상: 지역주민) 1기	문래창작촌 나무수레 공방	8/13(토), 8/27(토)	02-2676-4300
성북예술창작센터				
전시	벌써 일년展	갤러리_맺음	7/28(목)~8/20(토)	02-943-9300
프로그램	즐거운 방학! 음악과 놀자!	성북예술창작센터 스튜디오#5	8/1(월), 8/2(화), 8/8(월), 8/9(화)	02-943-9300
	나를 찾는 여행(미술치료 워크숍)	성북예술창작센터 스튜디오#4	8/10(수), 8/27(토)	02-943-9300
	주근깨 난 콩나물이 있는 수다방 (성인대상 현대미술강좌)	성북예술창작센터 스튜디오#7	8/1(월)~12/6(화)	02-943-9300
	가족-마음과 만나다(사춘기 교육연극)	성북예술창작센터 스튜디오#1	8/1(월)~8/30(화)	02-943-9300
	도시락워크숍 (수집, 리폼, 대안생활에 관한 공감워크숍)	성북예술창작센터 스튜디오#3	8/21(일)~9/2(금)	02-943-9300
	무더위테라피(무용동작치료)	주민창작실1	8/1(월)~8/13(토)	02-943-9300
	극단 마실의 조각보(과정중심의 연극놀이)	성북예술창작센터 스튜디오#2	8/4(목)~9/15(목)	02-943-9300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프로그램	미디어영역 프로그램 <은천동, 은천이>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8/3~9/24(매주 월~토)	02-871-7400/7417



전국광·매스의 내면



우물쭈물 꿈꾸는 움직임



제4회 액션가면 씬머페스티벌



연희목요낭독극장, 백가흠



27기 프락시스 프로그램



숙명음악치료 프로그램



책, 음악과 만나다



홍은 입주작가 박혜수 전시 <꿈의 표류>



아띠북카페 '구연동화'

구분	사업	장소	일시	문의
홍은예술창작센터				
전시	1기 입주작가 박혜수 전시 <꿈의 표류>	홍은예술창작센터 교육연습실2	7/16(토)~8/13(토) 오프닝 7/16 오후 5시 30분 with 주정민(무용분야 입주 예술가)	02-304-9100
프로그램	리폼 교육 프로그램 <폼생폼사(Form生Form思)> 초/중급	홍은예술창작센터 교육연습실1	8/25(목)~10/27(목) (오전 10시~, 매주 목, 총 10회)	02-304-9100
	커뮤니티댄스 프로그램 <몸, 좋다>	홍은예술창작센터 무용연습실1~3	8/8(월)~9/30(금) (예정)	02-304-9100

문화사업팀				
프로그램	책, 음악과 만나다	대화로 연극센터	8/9(화) 오후 7시 30분~오후 9시	02-3290-7146, 7162
	책, 영화와 만나다	대화로 연극센터	8/23(화) 오후 7시 30분~오후 9시	02-3290-7146, 7162
	책, 세상과 만나다	대화로 연극센터	8/30(화) 오후 7시 30분~오후 9시	02-3290-7146, 7162
	움직이는 도서관	난지 한강공원 거울분수 앞	8/6(토) 오후 1시~오후 6시	02-3290-7146, 7162
	움직이는 도서관	난지 한강공원 거울분수 앞	8/13(토) 오후 1시~오후 6시	02-3290-7146, 7162
	움직이는 도서관	독섬 한강공원 음악분수 앞	8/20(토) 오후 1시~오후 6시	02-3290-7146, 7162
	움직이는 도서관	난지 한강공원 거울분수 앞	8/27(토) 오후 1시~오후 6시	02-3290-7146, 7162

가든파이브 <문화술프로젝트>				
공연	하늘樂 콘서트	가든파이브 옥상정원(테크노관)	8/5~8/20(1·3주 금·토 오후 7시 30분~)	02-2157-8776
	썸머 페스티벌	가든파이브 중앙광장	8/12~8/28(2·4주 금·토·일 오후 7시 30분~)	02-2157-8776
	프린지 공연	가든파이브 옥상정원(테크노관)	8/12~8/28(2·4주 금·토·일 오후 7시 30분~)	02-2157-8776
	가드너(Gardner) 공연	가든파이브 내 곳곳	8월(매주 토·일)	
전시	[어린이특별전시] 하늘만큼 땅만큼展	가든파이브 스프링플라자(B1)	~8/21(일)	02-2157-8771
	[공공미술프로젝트] 우산디자인 전시	장지역 3번출구~ 스프링플라자 입구	~8/21(일)	
	신인발굴展 - 강원제 작가 '발칙한 사물들'	가든파이브 영관 9층 전시장	8/10(수)~9/25(일) (오전 10시~오후 8시)	02-2157-8771
교육	문화술프로젝트강연 (색소포니스트 이정식과의 만남)	가든파이브 패션관 11층 중회의실	8/3(수)	02-2157-8771
	아띠북카페 '구연동화'	가든파이브 영관 9층 전시장	8월(1·3주 일요일, 1회 오후 2시)	02-2157-8771
체험	만드는 가드너 (토-에코놀이터/ 일-천연비누만들기)	가든파이브 스프링플라자(B1)	8/6~8/21(매주 토·일)	02-2157-8771
	[공공미술프로젝트] 타일 그림그리기	가든파이브 스프링플라자(B1)	8월(매주 토·일)	02-2157-8771
	가든아띠스쿨	가든파이브 스프링플라자(B1)	~8/21(매주 토·일)	02-2157-8771
	가든아트마켓	가든파이브 중앙광장	8/13(토)	02-2157-8771
		가든파이브 스프링플라자(B1)	8/27(토)	02-2157-8771
공연	[뮤지컬] 아이러브유	가든파이브 아트홀 (영관10층 CGV 내)	7/22(금)~8/20(토)	02-501-7888
	[연극] 라이어	가든파이브 아트홀 (영관10층 CGV 내)	8/27(토)~9/10(토)	02-501-7888
	아이리스 촬영장	가든파이브 톨관 10층	상설운영	02-2157-8771

S F A C N e w s

8 월 의 재 단 소 식

08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워크숍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The 광대

교사들이 먼저 배우는 뉴욕의 '상상력'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워크숍

전국 교원 및 전문예술교육가를 대상으로 8월 15일부터 24일까지 2011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SEW 2011: Seoul Educators Workshop with LC)을 개최한다. 초·중·고 교장 및 교사 35명을 대상으로 하는 입문 1과정과 예술교육가 35명을 대상으로 하는 입문 2과정, 서울문화재단 서울국제예술교육 입문과정 또는 뉴욕의 INEW 과정 수료자 3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문과정은 총 5일간, 심화과정은 총 3일간 남산예술센터 예술교육관에서 진행된다. 참여교사들은 총 40시간의 밀도 있는 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방법을 찾고 교사 스스로 창의적인 교육관 및 교육방법을 체득하게 된다. 8월 15일과 17일에는 남산예술센터에서 특별 초청 공연 (시간은 두 자매가 사는 서쪽 마을에서 멈추었다)가 펼쳐진다. 국립현대미술단이 제작한 작품으로 인물은 정영두가 맡았다.

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 문화예술 체험으로 충전하기!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여름방학 청춘예술특강'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하는 어르신 대상 문화예술교육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은 여름을 맞아 어르신들이 평소 접해보지 못한 다양한 예술 장르를 체험해봄으로써 더위를 잊고 예술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여름방학 청춘예술특강'을 마련했다.

이번 특강은 연극에서 찾은 추억이야기 '내 인생의 연극 속으로', 광대들의 재담과 움직임 배우고 공연도 감상하는 '광대들의 배꼽 빠지는 우리 소리 한바탕', 손자손녀에게 재미있게 동화책 읽어주는 방법을 콕콕 짚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큰 책 보따리 이야기'로 교육과 공연이 함께하는 유쾌한 예술체험을 선사하는 <아주 특별한 예술체험>과 배우 인생 수십년, 지금도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연극배우 오현경의 삶과 철학을 들여보는 <내 배우, 명무대 이야기>, 연극 및 공연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이 배우의 몸짓과 화술 등을 직접 배우보는 '연기지도 워크숍'이 진행되는 <예

술가특강>으로 구성된다. 참가 대상은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어르신 외 일반 어르신 참여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프로그램 안내

일시	8월 2일(화)~8월 9일(화)
장소	남산예술센터 예술교육관 및 드라마센터
문의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 02-758-2022, 2030

프로그램 일정

<아주 특별한 예술체험>	8월 2일(화) 오전 10시~오후 12시
	할머니, 할아버지의 큰 책 보따리 이야기(극단 북새통)
<예술가특강>	8월 3일(수) 오전 10시~오후 12시
	광대들의 배꼽 빠지는 우리 소리 한바탕 (연희집단 The 광대)
<아주 특별한 예술체험>	8월 5일(금) 오전 10시~오후 12시
	내 인생의 연극 속으로 (성공독서코칭센터)
<예술가특강>	8월 9일(화) 오전 10시~오후 12시
	특강, 연극배우 오현경의 '내 배우, 명무대 이야기'
	8월 9일(화) 오후 1시~오후 3시
	연극배우 오현경의 '연기지도 워크숍'

'홍대 앞 문화'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축제

2011 서울프린지 페스티벌

서교예술실험센터 정기공모 지원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2011 서울프린지 페스티벌>은 예술가와 관객, 예술가와 예술가, 예술과 지역 커뮤니티, 사회에 말 걸기 등을 통해 열린 소통을 추구하는 홍대 대표 축제이다. 홍대 문화예술계에 끊임없이 새로운 호흡을 불어넣어주는 축제로서 8월 11일(목)부터 27일(토)까지 홍대 앞 49개 예술창작 공간과 거리 등 10여 곳에서 진행된다. 축제 기간 동안 구성원들의 교류와 소통의 장인 '프린지클럽'은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에 마련된다.

센터 2층은 '축제상황실'로 구성되어 축제 일일 데이터 및 티켓발권·홈페이지 관리 등 '프린지 페스티벌' 구성원의 소통 및 정보 집결지로 사용되며, 8월 11일 개막과 더불어 센터 지하에서 옥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연과 워크숍이 축제 장소로 제공될 예정이다.



금천예술공장 (아트 후레쉬(ART fresh)) 전



청소년 예술 인재 육성 프로젝트_칠보 심화 강의



예술로 함께하는 다문화 프로젝트_임나영 작가 작품

축제 안내

일시	8월 11일(목)~8월 27일(토) 오전 11시~오전 2시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전관
문의	02-333-0246

예술로 함께하는 다문화 프로젝트

〈아이, 소리 얼굴〉

신당창작아케이드 2기 입주 예술가 임나영은 2010년 〈프로젝트 아이(Project-): 얼굴 아이의 모험〉에 이어 2011년에도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 〈프로젝트 아이(Project-): 소리 얼굴〉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어린이들이 자신의 유년 시절의 모습을 관찰하고 흙으로 표현해낸다는 의미와 방법은 지난 프로젝트와 동일하지만 금년 프로젝트에서는 각별히 작업 과정에서 내는 '소리'에 집중한다. 함께 모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가져서 만들어내는 유쾌한 소리들(재잘재잘, 속닥속닥, 하하호호)을 한 곳에 모아 화음을 내는 도자 악기로 표현해보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큰 목적이며, 다양한 문화와 태생을 배경으로 한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모여 저마다 다르게 발산하는 얼굴 빛깔과 표정은 또 다른 화음을 만들어내는 한 축을 이룬다. 이 프로젝트는 신당창작아케이드 인근에 위치한 다문화 다민족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지역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함께 10주간 진행하고 추후 결과물을 전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안내

일시	8월 2주~10월 2주(예정)
장소	신당창작아케이드
문의	02-2232-8833

금천예술공장 2기 입주예술가 고별전시

아트 후레쉬(ART fresh) & 제3기 입주예술가 공모

서울시창작공간 금천예술공장은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총 14일 동안

금천예술공장 PS333 전시장에서 〈아트 후레쉬(ART fresh)〉 전시를 개최한다. 오는 8월 말 입주가 종료되는 2기 입주예술가 가운데 5개국 8팀(명)의 입주예술가가 참여한다. 7월 28일 오후 6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후 8시에는 밴드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천예술공장은 2기 입주예술가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9월에 입주할 3기 입주예술가를 모집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29일까지 국내외 예술가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국내는 1년, 해외는 4개월 단위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해외의 경우 항공료를 지급한다. 선정자에게는 기획전시 시의 창작금을 일부 지원하며, '해외 예술가 교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에 참여할 우선권이 주어진다. 신청은 인터넷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창작공간 홈페이지(www.seoulartspace.or.kr)를 참조하면 된다.

전시 안내

일시	7월 28일~8월 10일 오전 10시~오후 6시
오픈링	7월 28일 오후 6시(오픈링 밴드공연이 오후 8시에 진행)
장소	금천예술공장 PS333(3층)
문의	02-807-4120

청소년 예술 인재 육성 프로젝트

〈황학여(餘)지도〉 & 〈칠보 심화 강의〉

서울시창작공간 신당창작아케이드에서는 청소년 예술 인재 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근 성동공고 금속공예과 3학년 재학생 24명을 대상으로 2개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신당창작아케이드 2기 입주 작가 조수정(금속)이 진행하는 〈황학여(餘)지도〉는 발상과 표현 수업을 통해 현장 디자인 과정을 청소년들에게 직접 기획하고 경험하게 한다. 다음으로, 신당창작아케이드 2기 입주 작가 서지은(칠보)이 진행하는 〈칠보 심화 강의〉에서는 금속공예의 표면 처리 기법 중 난이도가 높은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칠보 공예 기법을 심도 있게 강의한다. 다양한 칠보 공예 기법 강의로 금속공예 전공 청소년 각자의 작업 발전을 도모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예술 장르 간 교차 작



연희목요낭독극장 소설가 김유진



24시간 만화그리기 프로젝트

업의 가능성을 선보이고, 개인 작업이 확장된 결과물을 모아 10주 후 전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안내	
일시	8월 23일~11월 8일(10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30분)
장소	신당창작아카데미 및 성동공공
문의	02-2232-8833

연희문학창작촌 8월 연희목요낭독극장

<숨은 밤! 힌트는 도련님>

서울시창작공간 연희문학창작촌의 연간 기획 프로그램인 '연희목요낭독극장'의 8월 무대가 8월 25일(목) 저녁 7시 30분 연희문학창작촌 야외무대 '열림'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는 연희문학창작촌 입주작가였던 백가흠 소설가의 소설집과 김유진 소설가의 첫 장편소설이 함께한다. 백가흠 소설가의 <힌트는 도련님>은 4년간 발표한 단편소설 8편을 묶은 그의 세 번째 소설집이다. 김유진 소설가의 <숨은 밤>은 불안과 분노에 대한 정밀한 보고서인 동시에 사랑의 전조에 관한 은밀한 서사시이다. 이번 공연의 연출은 <말괄량이 삤삤> <한여름 밤의 꿈> 등에 출연하고 2011 예장문학콘서트 <이 세상 속 흑과 백 이야기>를 연출한 성경선이 맡는다.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문의 연희문학창작촌 운영사무실 02-324-4690

같은 공간에서 24시간 동안 한 편의 만화를

<24시간 만화그리기 프로젝트>

서울시창작공간 문래예술공장에서는 문래창작촌의 잠재력 있는 문화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시민문화 개발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한 MEET(Mullae! Emerging & Energetic)을 진행 중이다. MEET 프로젝트 지원사업 중 하나인 <24시간 만화그리기 프로젝트(24h comics project)>는 다장르의 예술가(만화, 일러스트, 회화 등) 12명이 문래동의 새 대안공간에

서 주어진 시간(24시간) 동안 한 편의 만화를 완성하는 행사이다. 행사 시작과 동시에 예술가는 식사와 숙식도 작업장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24시간 내에 제한분량 24페이지의 만화를 창작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며, 창작 과정을 공개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관객들은 다양한 작업과정을 관찰할 수 있으며, 참여 예술가는 서로의 작업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할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8월 27일(토) 오후 3시부터 28일(일) 오후 3시까지 문래창작촌에 위치한 '대안공간 문(문래3가 58-41 지하층)'에서 진행되며, 행사를 통해 완성된 만화는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전시된다.

문의 문래예술공장 02-2676-4300

다양한 예술교육체험 속으로 풍덩!

성북예술창작센터 여름방학 프로그램

서울시창작공간 성북예술창작센터에서는 본격적인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2기 입주단체 숙명음악치료연구회의 <즐거움 방학, 음악과 만나다>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기 프로그램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러운 교류를 이루고 또래 간의 비언어적, 언어적 의사소통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배우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2기 입주단체 아트만의 <나를 찾는 여행>으로, 자신 안의 창조성과 자기치유성을 바탕으로 미술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미술치료 여행이다. 성인과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번 방학에 새롭게 선보이는 동작치료 프로그램 <무더위 테라피>는 초등학생 대상의 더위 탈출 프로젝트이다. 창의적인 신체 움직임 표현활동의 경험을 통해 또래 간의 긍정적 관계형성과 학교적응력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연극놀이를 진행하는 2기 입주단체 극단 마실의 <조각보>는 엄마와 18개월 미만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엄마로서의 변화와 새로운 인생의 창조에 대한 의미를 되짚어보는 과정 중심의 연극놀이이다. 2기 교육극연구소 프락시스의 <가족-마음을 만나다>는 부모와의 교류와 소통이 점차 줄어들



성북예술창작센터 여름방학 프로그램 <조각보>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미디어영역 은천동, 은천이



홍은예술창작센터 커뮤니티댄스 프로그램 <몸, 좋다>

는 시기인 청소년기 딸과 엄마를 대상으로, 연극적 상황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문의 성북예술창작센터 02-943-9300

프로그램 안내	구분	장소	일시
즐거운 방학, 음악과 만나다	음악치료	성북예술창작센터 스튜디오#5	8/1~8/9
나를 찾는 여행	미술치료	성북예술창작센터 스튜디오#4	8/10, 8/27
무더위 테라피	동작치료	주민창작실1	8/1~8/13
조각보	교육, 연극	성북예술창작센터 스튜디오#2	8/4~9/15
가족, 마음과 만나다	교육, 연극	성북예술창작센터 스튜디오#1	8/1~8/30
도시락워크숍	교육, 체험	성북예술창작센터 스튜디오#	8/21~9/2
주간개 난 콩나물이 있는 수다방	교육	성북예술창작센터 스튜디오#3	8/21~9/2

미디어아트로 강감찬 장군을 만나다

<은천동, 은천이>

6세부터 10세까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서울시창작공간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가 8월의 미디어영역 프로그램으로 <은천동, 은천이>를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관악구 낙성대에서 태어난 고려시대의 명장 강감찬 장군의 일화와 업적을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현대예술의 기법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라이트아트, 라인드로잉, UCC 등 미디어아트를 통해 강감찬 장군의 일대기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보다 흥미롭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게끔 했으며, 더불어 우리 주변의 문화유적지를 다시금 살펴보고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8월 3일(수)부터 9월 24일(토)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네이버카페 cafe.naver.com/gakidsartspace
02-871-7400, 7417

홍은예술창작센터 입주예술가 박혜수 개인전

<꿈의 표류>

서울시창작공간 홍은예술창작센터 입주예술가 박혜수(설치미술)의 개인전 <꿈의 표류>가 7월 16일(토)부터 8월 13일(토)까지 약 1달 동안 홍은예술창작센터 2층 교육연습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박혜수 작가가 2009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프로젝트 다이얼로그 1 (Project Dialogue vol. 1)' 시리즈의 일환으로서, 서울 시내 공공장소에서 수집한 일상 속 사람들의 평범한 대화를 가지고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와 관객의 의견을 이어나가는 프로젝트이다. 각 주제에 따라 실시하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며 2010년부터 주제별로 관련 전문가와 협업하여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관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데, 앞서 발표한 <꿈의 먼지>전(2011 금호미술관)에서는 정신과 의사, 점술가와 협업한 관객 참여 설치 작업 <오래된 약국>과 관객들의 설문지를 이용해 제작한 설치 작품 <꿈의 먼지>를 선보인 바 있다.

이번 전시에는 홍은예술창작센터 무용 입주예술가 주정민과 함께 이를 실험극 <꿈의 표류>로 표현한다. 2천여 명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설문 '당신이 버린 꿈'을 분쇄한 종이를 이용해 20여 평의 공간을 가득 채운 설치작품 속에서 주정민 무용가가 관객들의 동작에 따라 반응하고 움직이는 퍼포먼스이다.

전시 안내

일시 7월 16일(토)~8월 13일(토) 오전 10시~오후 6시
(월요일 휴관, 무료관람)

장소 홍은예술창작센터 2층 교육연습실

문의 02-304-9100

홍은예술창작센터 커뮤니티댄스 프로그램

<몸, 좋다>

홍은예술창작센터에 입주한 무용가가 진행하는 지역 주민 대상 커뮤니티댄스 프로그램 <몸, 좋다>가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홍은예술창작센터에서 진행된다. 커뮤니티댄스란 지역민과 함께하면서 춤을 통해 스스로를



아띠스쿨_스카이콩콩 나도 벽화작가



아띠스쿨

재발견하고 일상 속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무용 프로그램을 말한다. 첫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움직임과 색(가제)>은 2기 입주 무용가 주정민이 참가자와 함께 일상 속 존재하는 색과 움직임을 찾아보고 몸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통해, 마지막에는 개인의 특정 기억을 색과 움직임으로 재연해보는 워크숍이다.

프로그램 안내

일시	8월 8일(월)~9월 30일(금)
장소	홍은예술창작센터 1층 무용연습실
문의	02-304-9100

**아시아지역 도서관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아름다운 도서관 프로젝트>**

극단 연우무대, 서울연극센터, 아름다운가게가 함께 아시아 지역의 도서관 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도서바자회를 8월 6일(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연극센터 1층에서 개최한다. 관객들에게 기증받은 2천여 권 내외의 도서와 아름다운가게의 '에코파티 메아리' 팬시 상품을 판매하며, 이를 통해 모인 수익금은 문맹률이 높은 아시아 빈곤지역의 도서관 건립을 위해 쓰인다. 바자회 진행 중 연극 <인디아 블로그>의 쇼케이스와 <아름다운 도서관 프로젝트>를 통해 건립된 네팔 도서관의 현장사진을 전시한 <우리는 그들의 꿈을 보았습니다> 슬라이드 사진전도 함께 진행된다.

문의 02-8854-1759

어린이를 위한 미술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아띠스쿨>

**'흔들흔들 구름가방'
'스카이콩콩 나도 벽화작가'**

문화술프로젝트 기획전시와 연계한 어린이 미술 교육 프로그램 '아띠스쿨'은 도슨트와 함께 전시를 관람한 후 전시 주제를 바탕으로 미술체험이 이어지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아띠스쿨은 <하늘만큼 땅만큼> 테마에 따라 하늘을 상상하여 그리고 만드는 체험이 진행된다.

매주 일요일 진행되는 '스카이콩콩 나도 벽화작가'는 시중 미술교육에서 100만 원을 호가하는 프로그램으로, 아띠스쿨에서는 무료로 진행한다. 회화(드로잉) 형식으로 6주간 벽화 전체를 완성하는 6주반, 다양한 주제에 맞추어 플라스틱이나 천, 나무, 스티로폼, 종이 등의 산업재료를 활용하여 벽화를 꾸미는 2주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매주 토요일에는 가방을 만드는 '흔들흔들 구름가방'이 진행된다.

프로그램 안내

일시	8월 6일~21일(매주 토·일요일)
대상	6세~11세
인원	토요일 흔들흔들 구름가방 각 20명 일요일 스카이콩콩 나도 벽화작가 각 15명
시간	토·일요일 lclass 오후 2시, 2class 오후 4시 30분
장소	흔들흔들 구름가방 스프링플라자 (어린이아띠스쿨 교육장소)
	스카이콩콩 나도 벽화작가 스프링플라자 (하늘만큼 땅만큼展 전시장)

문화술프로젝트 <어린이 가든아띠스쿨>

'에코놀이터' '천연비누만들기'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단순한 전시 관람뿐 아니라 체험을 접목하여 오감으로 문화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문화술프로젝트에서는 어린이 '가든아띠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과대광고와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고 도시의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소품을 제작해보고 친환경 생활 실천법을 배우보는 도시형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엄마와 자녀가 함께 손으로 우리 가정에서 사용할 비누를 만들며 가족의 사랑과 건강을 지키는 천연비누만들기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프로그램 안내

일시	8월 6일~21일(매주 토, 일요일)
대상	6세~초등학생
시간	토·일요일 lclass 오후 1시, 2class 오후 3시
장소	스프링플라자(B1)

당신의 얼굴이 문화, 그리고 서울입니다

「문화+서울」에서는 서울의 다양한 공연, 전시,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서울의 전시장, 공연장 등에서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문화+서울」은 문화예술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께는 해당 호 월간지를 보내드립니다.



© 최성열

〈움직이는 도서관〉 '책 읽는 버스'를 찾은 부녀

이규성, 이민경

곧 빗방울이 쏟아질 것만 같았던 7월의 첫째 토요일, '책 읽는 버스'는 어김없이 난지 한강공원에 도착했다. 여섯 살 민경이의 손을 잡고 '책 읽는 버스'에 올라탄 이규성 씨를 만났다.

'책 읽는 버스'는 어떤 계기로 이용하게 됐나?

마포구에 살다보니 한강공원에 가끔 아이들과 함께 온다. 공원 안에서 뽕플러를 나눠 주기에 아이와 함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 찾게 됐다.

'책 읽는 버스'를 직접 이용해보니 어떤가?

아이가 버스 안에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재미있어하는 것 같다. 공간을 잘 활용해서 꽤 많은 책이 있고 아이와 함께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마음에 든다.

평상시에 자녀와 함께 어떤 독서 활동을 하나?

쉬는 날 서점에 가서 아이와 함께 책을 고르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아이가 책에 관심을 갖고 좋은 책을 고르는 눈을 기르는 걸 도와주려 하고 있다.

'책 읽는 버스'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책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책과 관련된 공연까지 한다는 점에서 참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한다. 홍보가 잘돼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주말마다 동네 구석구석까지 다니면 어떨까?(웃음)



© 최성열

●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김소정 | 서초중학교

토요일 오후, 열여섯 명의 청소년이 정독도서관 세미나실에 모였다. <불량한 자전거 여행>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곳곳에서 정독도서관까지 달려온 학생들. 그중에서도 유독 돌 망뿔망한 눈동자를 빛냈던 김소정 학생을 만났다.

서초동에서 정독도서관까지, 이 독서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온 건가? 꽤 먼 거리인데. 정독도서관은 좀 멀긴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주 오게 된다. 또래들과 두 시간 동안 책 한 권에 대해 토론한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좋았고, 학교에서 <모모>를 읽고 토론한 적이 있는데 같은 책을 읽고서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오늘 토론할 김남중 작가의 <불량한 자전거 여행>은 모두 읽고 온 건가?

물론 다 읽었다. 오랜만에 읽은 아동도서라 재미있었고, 자세한 소감이 좀 이따 토론 시간에 이야기 하겠다.(웃음)

취미가 독서인가? 한창 아이들에 빠져 있을 나이인데.(웃음)

남들이 '책벌레'라고 놀릴 정도로, 모든 분야의 책을 좋아한다. 심리학, 사회학, 소설 모두. 국내 작가 중에서는 김형경 작가가 가장 좋다.

여름방학도 책과 함께 보낼 생각인가?

아마 그럴 것 같다. 이미 '독서대학 르네21'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계절학기 프로그램을 신청해놓았다.



● <하늘樂 콘서트> 프리포즈 이벤트에 참여한 커플

김현수, 문지희

가든파이브 옥상정원에서 펼쳐진 <하늘樂 콘서트>. 인디밴드 '크라잉넛'의 열정적인 공연이 잠시 중단되더니, 무대 위에서 깜짝 프리포즈 이벤트가 펼쳐졌다.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로맨틱한 프리포즈를 연출한 이 행운의 커플은 누구일까?

프리포즈 성공을 축하한다. 이번 이벤트에는 어떻게 응모하게 됐나?

인터넷 검색하다 우연히 알게 됐다. 마침 여자친구에게 뭔가 특별한 프리포즈를 할 수 없을지 고민하던 차라 망설임 없이 응모했다.

경쟁률이 꽤 높았던 걸로 아는데, 당첨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나?

글쎄, 복불복 아니었을까?(웃음) 게시판에 진실되게 정성을 다해 사연을 쓴 점을 좋게 봐준 듯하다. 사권 기간은 1년이지만 중학교 동창이기도 해

알고 지낸 지는 13년째인 우리 커플의 사연이 조금 특이했던 것도 같고, 공연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의 시선으로 인해 조금 창피했을 듯도 하다.(웃음) 여자친구의 반응은 어땠나?

물론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떨린 게 더 컸다. 여자친구는 정말 감동하고 고마워했다.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라고 하더라.

결혼 날짜는 잡았나?

아직 정확한 날짜는 잡지 못했지만, 내년 봄으로 계획하고 있다. 많은 이들 앞에서 근사한 프리포즈를 한 만큼 누구보다 멋지게 잘살겠다. 프리포즈를 도와준 크라잉넛, 커뮤링과 꽃다발, 케이크를 선물해준 가든파이브 입주업체에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문화+서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의 많은 독자분들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성곡미술관에 전시를 보러 갔다가 「문화+서울」을 접하게 됐습니다. '서울 단상'에 게재된 백가흠 작가의 글을 보면서 개성 없는 서울의 모습에 공감했네요. 문화예술 소식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각 해볼 거리도 안겨주어 좋습니다. 앞으로 일반인들의 동호회 활동에 대해 다루어 보면 어떨까요?

김지선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충무아트홀에서 뮤지컬 관람 후 「문화+서울」을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리처드 용재 오닐의 인터뷰가 실려 있어 관심 있게 읽었는데, 기사를 통해 '디토 페스티벌'에 대한 그의 열정과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참신한 문화예술계 인물을 발굴해 소개해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어듯 새로운 인물을 소개받는 것도 큰 기쁨일 테니까요.

강현숙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문화+」에 게재된 작가 르 클레지오의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의 서울에 대한 예찬을 듣고 나니 서울 시민이라는 사실 자체에 자부심이 느껴졌네요. 앞으로 서울 곳곳, 알려지지 않은 작은 골목과 거리를 구석구석 취재해서 소개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길자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아들과 함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를 찾았다가 「문화+서울」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좀 더 다양한 장소에서 「문화+서울」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남녀노소 모두를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의 글을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어린이가 볼 수 있는 기사를 부탁드립니다.

강경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문화+서울」은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요청이 불가합니다.
아래의 기관을 방문하셔서 무료로 비치된 잡지를 확인하거나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로 들어오셔서 e-book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극장,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다산플라자, LG아트센터, 두산아트센터, 충무아트홀, 난타전용극장, 동숭아트센터, 아르코미술관, 대학로예술극장, KT&G 상상마당, 한전아트센터, 성곡미술관, 백암아트홀, 코엑스 아티움, 서울연극센터, 대학로연습실, 남산예술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신당창작아카데미, 금천예술공장, 연희문학창작촌, 문래예술공장, 성북예술창작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장매인미술창작스튜디오, 흥은예술창작센터, 가든파이프



2011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 심포지엄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for Arts in Education and Creativity

예술교육으로 창의교육의 변화를 이끈다

Leading Change in Education through AIE and Creativity

2011. 08. 12. Friday 09:30 - 17:00

대한상공회의소의원회의실



www.sisac.or.kr

주최 | 서울문화재단

후원 | Hi Seoul SOUL OF ASIA

